

국립국어원 2023-01-50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974-01

2023년 북한어의 사전 정보 집필 및 지침 정비

연구 책임자: 이선웅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2023년 북한어의 사전 정보
집필 및 지침 정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23년 6월 27일 ~ 2023년 12월 15일

2023년 12월 15일

연구 책임자: 이선웅(경희대학교)

연구 기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이선웅

공동 연구원: 도원영, 이시우, 이영제, 한용운

연구 보조원: 강다현, 김지영, 김희성, 박상훈, 엄소영, 오재연, 임고은,
한수미, 함병호, 황지영

<국문 요약>

2023년 북한어의 사전 정보 집필 및 지침 정비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말샘》에서 북한어에 대한 정보를 정비하는 것이다. 본 연구 사업단이 수행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말샘》의 기존 북한어 관리 지침을 검토하여([부록 1]), 새로운 북한어 등록 및 정비 지침([부록 2])을 마련하였다.

둘째, 《우리말샘》의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체계성’, ‘확장성’, ‘전형성’, ‘명시성’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북한어 집필의 세부 지침([부록 3])을 마련하였다.

셋째, 북한어 집필의 세부 지침에 따라 《우리말샘》에 이미 등재된 북한어 중 북한어성 검토 결과 ‘보류’로 분류된 어휘 2,102개를 재검토하여 북한어성을 확정하였다.

넷째, 총 3,716개의 어휘를 신규 집필하여 그 집필 결과물을 《우리말샘》의 웹 서비스 시스템에 입력하였다.

다섯째, 향후 과제로 《우리말샘》의 북한어 기술 내용을 최신의 내용으로 보완하는 것과 탈북민에게 남한어와 대조되는 부분을 교육하는 것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남한어, 북한어, 《우리말샘》, 『조선말대사전』, 남북 전문용어, 북한어 관리 지침, 북한어 집필 지침

<Abstract>

A Preparation of dictionary information and guidelines for North Korean language in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project is to improve information about the North Korean language in 《Urimalsaem》. The specific details of the projects carried out by this research team are as follows.

First, we reviewed the existing North Korean language management guidelines of 《Urimalsaem》 ([Appendix 1]) and prepared new North Korean language registration and maintenance guidelines ([Appendix 2]).

Second, 'systematicity', 'extensibility', 'typicality', and 'explicitness' were presented as principles for describing information in 《Urimalsaem》, and detailed guidelines for writing of North Korean vocabulary ([Appendix 3]) were prepared accordingly.

Third, in accordance with the detailed guidelines for writing of North Korean vocabulary, 2,102 vocabulary words that were classified as 'reserved' as a result of the review of North Korean language already registered in 《Urimalsaem》 were reexamined and the North Korean language was confirmed.

Fourth, a total of 3,716 new vocabulary words were written and the writing results were entered into the web service system of 《Urimalsaem》.

Fifth, two suggestions were made: supplementing the North Korean language description of 《Urimalsaem》 with the most up-to-date content and educating North Korean defectors about the contrast with South Korean language.

Key words: South Korean, North Korean, 《Urimalsaem》, 『Joseoneo Daesajeon』, Inter-Korean terminology, North Korean language management guidelines, North Korean writing guidelines

차 례

제1장 사업 개요

1. 사업의 필요성 2
2. 사업의 범위 3
 - 2.1. 《우리말샘》 북한어 관리 지침 마련 3
 - 2.2. 《우리말샘》 북한어 정비 및 등재용 용어 집필 5
 - 2.3. 집필 및 정비 결과물 《우리말샘》 시스템 입력 6

제2장 지침 팀 작업 결과

1. 《우리말샘》 북한어 지침(등록, 편찬) 검토 9
2. 《우리말샘》 북한어 관리 지침의 마련 11

제3장 집필 팀 작업 결과

1. 북한어 정비 사업에서 ‘보류’로 분류된 어휘 재검토 29
2. 북한어 정비 사업에서 ‘명북’으로 분류된 어휘 집필 31
3. 《조선말대사전》(2017)에서 북한어 선정 및 집필 36
4. 정비 및 집필 결과물 『우리말샘』 시스템 입력 37

차 례

제4장 향후 과제 전망

1. 2021년 5개년 계획에서 제안한 과제 39
2. 2023년 사업 연계 과제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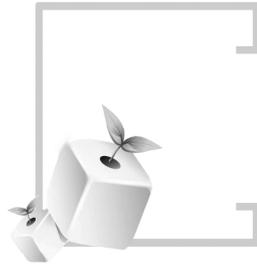
[부록1] 2023년 북한어 지침 정비 작업 42

[부록2] 우리말샘 북한어 관리 지침 54

[부록3] 북한어 집필 세부 지침 142

표 차례

<표 1> 북한어에 대한 북한어성 판단 결과	29
<표 2> ‘보류’로 분류한 용어 재검토	29
<표 3> ‘명북’ 예시	29
<표 4> ‘삭제’ 예시	30
<표 5> 남북 전문용어	31
<표 6> 남북 전문용어 집필 예시	31
<표 7> 남북 정보통신기술 용어	33
<표 8> 남북 정보통신기술 용어 집필 사례	33
<표 9> 사전 미등재 북한어	34
<표 10> 사전 미등재 북한어 집필 예시	35



제 1 장

사업 개요



I. 사업 개요

1. 사업의 필요성

① 최신 북한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

- 70년간의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언어에 적잖은 차이가 존재함.
- 형태와 어휘의 차이, 언어 정책에 따른 차이, 문화적 변이형과 신어 등의 차이를 포함한 북한어와 북한의 언어문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은 국민에게 북한어의 현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통로임.
- 기구축 북한어¹⁾ 자료를 검토하여 현재 북한에서 널리 사용하는 어휘를 선별하고, 이를 《우리말샘》에 체계적으로 수록할 필요성 증대.

② 사전 체제에 맞는 북한어 집필의 필요성

- 국립국어원은 1999년 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에 7만 2천여 항목의 북한어를 등재함으로써 남과 북의 어휘를 아울렀음.
- 이후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과정에서 북한어를 수정·보완하였고, 그 결과는 2008년 웹 개정판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되었음.
- 2019년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던 북한어가 옛말, 비표준어, 방언과 함께 《우리말샘》으로 이관됨.
- 이에 따라 북한어는 《우리말샘》의 정체성과 지향점에 맞게 정비

1)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단 하나의 ‘대한민국’만이 존재하나, 대한민국에는 남과 북의 두 정치 집단이 오랜 기간 분단되어 공존하고 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는 정통성 있는 정치 집단은 남한이나, 정치 집단의 정통성과는 별개로 사회 방언으로서 ‘북한어’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전체의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고, 남한어와 북한어는 서북 방언, 중앙 방언과 같은 지역 방언 개념이 아니라 정치 집단에 따른 사회 방언 개념으로 성립한다.

하고 새롭게 집필해야 할 필요가 생김.

③ 북한어 관리를 위한 사전 지침 정비의 필요성

- 북한어 정보를 《우리말샘》에 수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북한어 지침을 분석, 검토하여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임.
- 그간 북한어는 《표준국어대사전》 초판의 편찬 지침과 2008년 개정 지침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리되어 옴.
- 이에 따라 남과 북의 언어 정책 변화, 북한의 언어 변화와 함께 《우리말샘》의 체제와 지향점에 근거하여 기존의 북한어 지침을 분석하여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말샘》에서 서비스하는 북한어에 대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어 관리, 등록, 정비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 증대.

2. 사업의 범위

2.1. 《우리말샘》 북한어 관리 지침 마련

이 연구에서는 《우리말샘》에서 북한어를 등록하고 집필하고 정비하기 위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는 기구축 북한어를 《우리말샘》의 체제에 맞게 입력하는 작업에서부터 향후 추가될 신규 북한어를 수록하는 모든 작업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에 관한 세부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말샘》 북한어 지침(등록, 편찬) 검토

이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우리말샘》 북한어 지침을 검토하였다.

첫째, 기존의 북한어 관련 지침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편찬 지침과 《표준국어대사전》(2008) 개정 지침에서 북한어 관련 부분을 확인하고 통합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였다.

둘째, 《우리말샘》(2023)의 지침을 검토하여 현재 북한어 지침의 구조와 내용이 적절한지 분석하였다.

셋째, 수정·보완해야 할 지침과 추가해야 할 지침을 도출한 뒤 자체 분석 과정을 거쳐 구조화하고 관련 내용을 작성하였다. 특히 새로운 북한어를 추가하는 기준, 의미와 용법이 바뀐 북한어를 수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우리말샘》 북한어 등록 및 정비 지침 마련

사전 편찬에서 지침은 사전의 성격과 목적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최종 목표에 이르기 위한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거시 구조의 측면에서는 표제어의 선정 기준과 범위, 구체적인 선정 방법에 대해 원칙과 세칙을 제시하였다. 미시 구조의 측면에서는 표제어에 대한 모든 기술 항목을 하위범주화하고 미시 구조의 각 항목에 대해 원칙과 세칙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말샘》의 북한어 등록과 편찬 작업을 총괄할 수 있는 관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지침의 체계와 내용을 세울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은 국어사전 편찬사에서 최초로 학자 및 사전 편찬가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된 지침이다. 일반어와 전문어를 비롯해 북한어, 방언, 옛말, 비표준어까지 체계적인 거시 구조 구성과 정밀한 미시 구조 기술의 방법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우리말샘》역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 따라 집필되고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말샘》에서 제공되고 있는 북한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을 준용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 조건이다.

반면 북한어는 남한어와 달리 그 사용 실태를 광범위하게 파악하여 사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특수 부류 표제어에 해당한다. 또한 북한어가 《우리말샘》이라는 국민 참여형 지식 대사전에서 웹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고 세심한 관리 지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북한어 관리 지침의 체계와 내용을 《표준국어대사전》의 지침을 준용하되, 《우리말샘》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관리 원칙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체계성’, ‘확장성’, ‘전형성’, ‘명시성’을 대원칙으로 세웠다.

체계성: 《우리말샘》의 구조와 체계에 맞게 작성한다.

확장성: 《우리말샘》의 개방성과 확장성을 고려한다.

전형성: 표준적, 객관적인 언술을 지향한다.

명시성: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한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체계성’, ‘확장성’, ‘전형성’, ‘명시성’을 원칙으로 하여 《우리말샘》에서 북한어를 등록하고 편찬할 수 있는 지침을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를 수행하였다.

- 관리 지침 개요 작성
- 등재 기준, 뜻풀이 작성 및 용례 선별·가공 지침 보완
- 북한어 전문가 또는 탈북민 감수 등 검토 절차
- 참고 자료 정리 및 활용 방안 검토
- 저작권 및 법률적 문제 검토

2.2. 《우리말샘》 북한어 정비 및 등재용 용어 집필

- ① 기등재된 북한어의 사전 정보 검토 및 보완: 북한어성 검토 결과 ‘보류’로 분류된 용어 2,102개 재검토 및 북한어성 여부 확정(비북한어로 판정할 경우 판정 내용에 따라 후처리 실시)

※ 용어의 성격

- 남한에서 동일한 형태, 의미로 쓰이나 비표준어, 방언인 용어
- 남한에서 동일한 의미로 쓰이지만 초점을 둔 부분이 다른 용어

- 분단 이전 문헌에서 쓰임이 확인되나 북한 사전에만 등재된 용어
- 남한의 각종 사전(事典), 온라인 등에 저빈도(5회 이내)로 쓰인 용어

☞ ‘보류’ 검토 대상: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북한어 정비를 위한 대상 선별’(2023) 결과 ‘보류’로 분류된 2,102개 용어

② 미등재된 북한어의 사전 정보 집필 3,716개 항목:

- ‘명백한 북한어’로 분류된 용어 사전 정보(원어, 분야 정보, 정의 문, 용례, 용례 출처 등) 집필
- ☞ 집필 대상: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북한어 정비를 위한 대상 선별’(2023) 결과 <남북 전문용어 대응쌍 상이형(Aa형, AB형)>, <남북 정보통신기술 용어 대응쌍 상이형>, <사전 미등재 북한어> 중 ‘명백한 북한어’로 분류된 1,612개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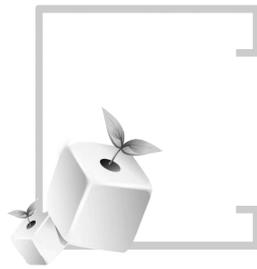
남북 전문용어	남북 정보통신기술 용어	사전 미등재 북한어	합계
1,354	144개	114개	1,612개

- 『조선말대사전』(2017)에 등재된 용어 중 일부 집필
- ☞ 집필 대상: 본 사업에서 마련한 “《우리말샘》 북한어 등록 및 정비 지침”에 따라 『조선말대사전』(2017)에서 2,104개 어휘 선정

③ 《우리말샘》 입력 전 정비 및 집필한 북한어 대상 오류 확인: 정비 및 집필한 북한어는 《우리말샘》 입력 전 교차 검토

2.3. 집필 및 정비 결과물 《우리말샘》 시스템 입력

- ①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우리말샘》 시스템 입력 관련 교육’에 용어 입력 담당자 전원 참여
- ② 사전 정보 검토 및 보완한 용어, 집필한 용어(기등재 북한어, 미등재 북한어 일체)를 《우리말샘》 시스템에 입력



제 2 장

지침 팀 작업 결과



Ⅱ. 지침 팀 작업 결과

1. 《우리말샘》 북한어 지침(등록, 편찬) 검토

1) 《우리말샘》 북한어 지침 확보

- 《우리말샘》 지침(2013/2022)
-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2000)
-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지침(2008)

《우리말샘》의 북한어 지침(2013/2022)은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2000)을 저본으로 하여 구성되었고, 주요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하거나 추가하면서 이어져 왔다. 이번 지침 검토 작업은 《우리말샘》 지침(2013/2022)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2000) 및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지침(2008)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여 체계와 세부 사항을 검토하려고 한다.

2) 《우리말샘》 지침(2013/2022) 검토 결과

(1) 표지와 목차

- ① 《표준국어대사전》(2000) 지침에서 ‘북한어’ 관련 항목을 발췌하여 북한어 세부 지침으로 보완해 온 것으로 보인다.
- ② 《표준국어대사전》(2000)의 목차를 따르고 있다. 일부 장절 구분이 달라진 부분이 확인되는데, 이는 일관되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표준국어대사전》(2000) 지침의 구조에서 비표준어 부류인 옛말, 방언, 북한어를 한데 처리하고 있는데, 재구조화 과정에서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2) 본문

- ① 북한어에 대한 형식과 내용의 준거로 《조선말대사전》을 종종 언급하거나 인용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 내용은 대부분 초판의 내용으로 보인다. 이를 《조선말대사전》 2017년 개정판으로 교체해야 한다.

② 사전의 주요 미시 구조의 하나인 ‘품사’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2000)에서 품사 정보를 ‘어휘 부류 정보’의 하위 항목으로 보았기 때문에 발췌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③ 지침에서 언급한 예시가 2023년 현재의 《우리말샘》과 상이하다. 이를 하나하나 확인하여 교체하거나 지침에 준하여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논의를 통해 바꿀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

3)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지침(2008)

① 개정 작업 전반에 걸친 실무 지침이다. 북한어의 남한어 처리에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규정과 기호 등은 《표준국어대사전》(2000)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당시 개정의 실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주요 내용은 보존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2023년 《우리말샘》 북한어 기술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 당시 북한어 정보의 기준 사전이 《조선말대사전》(2007)으로 판단되는데, 이 역시 《조선말대사전》(2017)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우리말샘》 관리 지침 마련 시 방향

앞에서 3종의 지침을 검토한바, 《우리말샘》의 북한어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주요 지침에서 세운 원칙을 존중한다.

구성과 장절 구분 등을 그대로 따른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체계를 준용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준거 사전의 내용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말샘》(2023), 《조선말대사전》(2017)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한다. 지침의 명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북한어 추가 등록과 편집이 가능하도록 한다.
《우리말샘》 북한어 정보의 확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우리말샘》 북한어 관리 지침의 마련

이 연구에서는 기존 지침을 통합하면서 기존 지침의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우리말샘》의 확장성을 고려한 북한어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관리 지침의 개요를 작성하였고 각 지침을 검토하면서 수정·보완 및 추가하였다.

1) 《우리말샘》 북한어 관리 지침 개요 작성

① 관리 지침 개요의 필요성

- 《우리말샘》을 유지, 발전, 계승하기 위한 대원칙의 제시
《우리말샘》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단순한 확장이 아닌, 상당히 다른 성격의 우리말 어휘 지식 사전으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말샘》의 정체성에 맞는 관리 지침의 원칙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 기존 지침의 통합과 보완에 관한 메타 정보 제시

《우리말샘》 북한어 정비를 위한 지침은 여러 지침에 제시된 북한어 항목을 추출하고 재구조화한 다음 내용을 수정하면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제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지침은 사전 편찬을 위한 규칙과 세칙을 세운 것인 반면, 《우리말샘》의 북한어 지침은 기집필된 북한어 정보를 유지·보수하면서 새롭게 추가해야 하는 북한어를 등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침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메타 정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웹 사전 구축과 개신에 걸맞은 사전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

종이사전 출간부터 시작한 《표준국어대사전》과 달리 웹 사전으로 기획되고 구축된 《우리말샘》은 거시 구조와 미시 항목 모두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맞게 지침 역시 바뀔 여지가 크므로 관리의 목적과 원칙, 대상, 범위 등을 상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다.

② 개요의 내용

0. 지침 개요

1) 목적

이 지침은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의 북한어를 등록하거나 기구축한 북한어를 정비할 때 기준이 되는 원칙과 세칙을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기본 원칙

첫째,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의 체계에 따른다.

둘째, 《우리말샘》의 성격과 목적에 합당하게 작성한다.

셋째, 《조선말대사전》(2017)을 북한어 기술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넷째, 북한어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한다.

3) 2023년 지침 정비

①정비 대상

2012년 《우리말샘》 북한어 관리 지침

2008년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지침

2023년 ‘북한어 집필 세부 지침’

②정비 방법

세 지침을 통합하여 체계를 맞추고 예시를 수정한다.

단, 개정 지침에 제시된 북한어의 남한어 처리 부분은 통합하지 않고 부록으로 둔다.

4) 목차

I. 표제어

II. 원어

III. 발음 및 활용

IV. 품사

VI. 전문어 영역

VII. 문법 정보

VIII. 뜻풀이

IX. 용례

X. 관련 어휘

XI. 관용구/속담

부록

띄어쓰기

북한어의 남한어 처리

5) 정비 이력

2023년 7월~12월 북한어의 사전 정보 집필 및 지침 정비 사업(연구 책임자: 이선웅)

2) 지침 통합 작업

① 통합 대상

- 《우리말샘》 북한어 지침1,2(2013/2022)
- 2023년 이 사업의 집필팀에서 작성한 ‘북한어 집필 세부 지침’(2023), ‘기등재 집필 지침’
-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지침(2008)

② 통합 절차

- 《우리말샘》1,2와 ‘북한어 집필 세부 지침’을 하나의 파일로 통합
- 《표준국어대사전》 지침의 구조를 반영하여 개요의 목차와 같은 순서로 배열

③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지침의 분리와 수정

- <표대> 개정 지침(2008)에서 다루는 북한어 관련 항목은 주로 북한어로 처리된 표제어를 남한어로 전환하는 기준, 내용 수정에 대한 세부 방법과 예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말샘》 북한어 지침의 구조와 체계 안에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통합하지 않기로 하였다.
- 향후 《우리말샘》의 북한어 역시 남한어에서 용법이 확인되면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요 내용을 확인 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존의 편찬 지침 마지막에 ‘부록’으로 두고 향후 <말샘>의 북한어를 남한어로 교체하는 데 길잡이가 되도록 한다.

3) 지침 수정 작업

3-1) 작업 원칙

- 수정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내용 기록’ 파일에 작업한다.
- 변경 내용 기록 파일로 작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변경 이력 전체를 삭제한 파일을 ‘정리본’으로 남긴다.
- 수정의 근거를 기록하거나 향후 독자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은 메모란에 작성한다.

3-2) 작업의 실제

① 정보의 현재화

첫째, 지침에서 지칭하고 있는 기준 사전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우리말샘》으로 바꾸었다. 아울러 예시의 내용이 《우리말샘》(2023)과 다를 경우 그에 따라 수정하였다.

둘째, 《조선말대사전》(2017)과 대조하여 지침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였다. 지침상에 언급된 북한어의 경우 표제어 등재 여부, 뜻풀이의 내용, 용례의 내용 모두 《조선말대사전》(2017)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표제어 형태, 뜻풀이 등이 바뀌었거나 해당 표제어가 삭제된 경우에는 다른 표제어로 교체하였다.

예) 남한 대응어와 뜻은 같으나 형태가 다른 어형

~~갑작부자 #5「명」「복」 ‘벼락부자’의 북한어. 『해방이 되자 우리는 옥답과 많은 밭을 그저 분
여받아 (갑작부자가) 되었답니다. <<선대>>』~~

=>

단물 「명」 『복』 ‘젤리’의 북한어.

지침에 제시되어 있던 ‘갑작부자’의 경우, 이미 《조선말대사전》(2007)에서부터 ‘벼락부자’가 등재되었고 이들을 동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갑작부자’를 관련 예에서 삭제하고 ‘단물’로 교체하였다.

예) 다듬은 말

~~씨앗갈래밭 #5「명」「복」「농」 ‘가계포’를 다듬은 말.~~

가계포 #5『명』『복』『농』 다른 계통을 지닌 종자들 사이의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계통의 종자만으로 조성한 밭. 씨앗을 늘리는 데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씨앗갈래밭’으로 다듬음.

⇒ 이 경우 뜻풀이는 다듬기 전의 말인 ‘가계포’에서 해준다. 단, 조선말대사전에 ‘(다듬은 말로)’라는 정보가 있을 때만 ‘다듬은 말’로 간주한다.

=>

마다라스(matras) 『명』『복』 ‘매트리스’의 북한어. ‘침대깔개’로 다듬음.

침대깔개 『명』『복』 ‘매트리스’의 북한어.

《조선말대사전》(2017)에 ‘씨앗갈래밭’이 삭제되어 있다. 즉 미등재 상태이다. 또한 ‘가계포’에는 순화 정보가 삭제되고 새롭게 뜻풀이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러두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마다라스’를 추가하고 이를 순화한 ‘침대깔개’도 함께 제시하여 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예) 뜻풀이 수정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다의어로 처리한다.

흐늘 『1』 ‘흐늘거리다’의 어근. 『1』 『부』『복』 『1』 힘없이 늘어져 느리게 한 번 흔들리는 모양. 『2』 어더에 매인 데 없어 멋대로 늘어나는 모양. 『3』 김, 연기, 아지랑이 따위가 피어오르는 모양. 『4』 물결 따위가 흥겹게 한 번 굽실하는 모양.

‘흐늘’을 《조선말대사전》(2017)에 확인한 결과 다의어 2번에 해당하는 뜻풀이가 삭제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② 내용의 명시화

첫째, 기존의 《표준국어대사전》(2000) 지침에서 구조화한 미시 항목이 누락되었으면 이를 복원하였다. 표제어의 ‘배열’, ‘품사’ 등을 전체 구조에 맞게 제시하였다. 아래는 표제어의 배열에 대한 지침을 살펴서 추가한 경우이다.

3. 배열

3-1. 일반 원칙

《표준국어대사전》 집필 지침에 따른다.

3-2.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 3) 표준어와 북한어는 동음이의어로 처리하여 분할 배열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는 다의어로 처리한다.

둘째, 《우리말샘》 북한어 지침상의 불분명한 표현을 정리하거나 수정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정비 또는 집필에서의 기준이 되기 어렵다거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맥락을 파악하여 고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삭제하였다. 이때 수정의 근거와 설명해야 할 사항은 메모란에 기록해 두었다.

예)

I. 표제어

1. 선정

1. 남한 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고 《조선말대사전》에만 실려 있는 표제어를 북한어로 간주한다. **북한의 《조선말 사전》에만 실려 있는 표제어는 삭제한다.** 선정된 북한어의 하위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남한 표제어와 표기법이 다른 어휘
남·북한 표기법의 차이에 따라 뜻은 같으나 표기가 달라진 어휘.
규률 #5'명', '복', '유술'의 북한어.
녀성1 #5'명', '복', '1,'의성1 [1] '의 북한어. 『녀성들은 사회 발전에서 수려의 한쪽 바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선대>/망 안에서는 젊은 녀성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고별삼, 평양은 노래한다> #2,'어,'의성1 [2] '의 북한어.

[메모:1] user 2023-08-18 15:07
※ 본디 <표준> 지침에서 '선정'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제안 요청서에는 관리 차원에서 '등록'이라는 용어를 썼음. '북한어 세부 원칙'에는 '단위별 등재 원칙'으로 되어 있음. <표준> 지침대로 일단 '선정'으로 함.

[메모:2] user 2023-09-11 20:20
현재 상태에서는 북한 사전에만 있더라도 남한 용법이 확인되면 북한어로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한 지침임. 특히 선정 조건인데 삭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부적절함.

위의 예를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2000) 지침에서는 북한어 선정의 기준으로 북한의 《조선말 사전》을 제외 기준으로 보았다. 현재는 의미 없는 기준이므로 삭제하였다. 이러한 이유와 근거를 메모란에 상세히 작성하여 이후 독자가 이러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새로운 내용의 추가

올해 북한어 집필 팀에서 작성한 '북한어 집필 세부 지침' 중에 기존의 지침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우선 《조선말대사전》에서 확

인한 내용 중 기존 지침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북한어의 변화를 포착하여 이를 《우리말샘》에 등록하거나 기존 내용을 편집할 때를 고려하여 표제어 선정에 관하여 추가하였다. 아래 (6)과 (7)의 예는 ‘I. 표제어 1. 선정’에 추가한 내용이다.

- 6) 형태와 의미가 같으나 사용역이 다른 어휘
- 남한어는 전문어인 반면 북한어는 일반어로 쓰인 어휘

목속굽이 《의학》적추에서 목뼈 부위가 앞쪽으로 불룩하게 굽은 부분. 《우리말샘》
목굽이 「명」 『북』 목에서 턱까지 올라오는 부분.

- 7) 북한어에만 있는 어근적 단어

신기무쌍 「북」 ‘신기무쌍하다’의 어근.

아래 내용은 북한어 말뭉치와 전문어사전, 백과사전 등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는 북한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추가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2. 북한어 말뭉치와 최신 주요 사전에서 북한어의 쓰임이 확인되는 말도 선정한다.

- 1)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말은 우선 선정한다.

고기겹빵 「명」 『북』 ‘햄버거’의 북한어.

왕다래 「명」 『북』 ‘키위’의 북한어.

혈붙이 「명」 『북』 ‘피붙이’의 북한어.

☞ 북한의 신문말뭉치, 학술사전, <조대>(2017) 등에 등재된 말.

- 2) 전문어, 속어 등도 그 쓰임이 명확하면 선정한다.

겹치기 「명」 『북』 『체육』 바둑에서, 구석에 있는 상대방의 돌이 굳히기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

☞ 북한의 신문말뭉치와 <조대>(2017)에 등재된 말.

통보문 「명」 『북』 『정보.통신』 ‘문자007’의 북한어.

☞ <조대>(2017)에 등재된 말.

④ 저작권 관련 사항 보강

북한어의 뜻풀이 및 용례 기술 시에 저작 재산권자의 권리 침해 여지가 없도록 해당 지침을 확인하고 일부 보완하였다. 북한어의 뜻풀이에서 《조선말대사전》을 확인하여 수정한다는 원칙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으나, 뜻풀이를 동일하게 인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1) 북한어의 뜻풀이가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호응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지나치게 장황할 경우에는 의미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한다. 다만 반드시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를 확인한 후 수정한다.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도록 한다.**

⑤ 형식의 통일

첫째, 약물 및 기호 수정

약물 등의 기호가 지침 간 차이가 있는데, 이는 <표대>(2000) 지침을 기준으로 수정한다. 데이터 처리를 위해 작성한 기호도 삭제한다. 예를 들어 <표대> 지침에 제시된 ‘#3(원어)’, ‘#4(발음)’, ‘#5(품사)’ 등은 편찬 당시 전체 사전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썼던 기호여서 정보성이 없다. 오히려 지침에 제시된 예시의 가독성을 떨어뜨리므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1) 참고표(※) 삭제

※ 보호막(保護膜)「명」『복』의『점막02(粘膜)』의 북한어.

=>

보호막 「명」『복』의『점막02(粘膜)』의 북한어.

예2) 항목 번호 삭제

희천-시002 #5「명」『지명』 평안북도의 자강도 남쪽에 있는 시. 면적은 998km². 북한에서는 1967년 행정 구역 개편 때 희천읍에서 시로 승격되었다.

둘째, 미시 항목 분리 및 순서 조정

품사 정보와 전문어 정보를 따로 분리하여 추가한다. <표대 지침>(2000)에서는 ‘품사 정보/북한어, 방언, 옛말/전문어 영역’을 어휘 부류 정보로 보아서 《우리말샘》 1,2에는 이를 미시 항목으로 처리하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여 ‘품사’, ‘전문어 영역’을 위의 목차 순으로 추가하여 배치한다. 이에 따라 이후 항목의 순서를 수정한다.

3-3) 북한어 전문가 및 탈북민 감수 등 검토 절차

국립국어원의 북한어 집필 및 정비 작업은 남측 전문가가 주도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어에 대한 규범적 정확성, 북한어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정치한 기술, 북한어의 특수한 언어문화 기술 등에 대해서는 남측 전문가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북한어 지침의 기술 내용이 북한어의 현재를 사전 안에서 밝히는 데 적합한지에 대해 북한어 전문가와 북한어에 능숙한 탈북민의 감수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말샘》의 북한어 추가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북한어 전문가와 탈북민, 《우리말샘》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사전 전문가를 감수위원으로 위촉하여 북한어 집필 내용과 지침이 적절한지 검토를 받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감수 목적: 《우리말샘》의 북한어 집필 지침의 정확성, 적절성을 확인하여 향후 《우리말샘》 북한어 등록, 수정보완, 정비 수준을 제고한다.

② 감수 내용

- 지침의 구조가 체계적인가
- 지침에 제시된 원칙과 세칙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 각 사례가 원칙과 세칙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가
- 북한어 예시가 해당 원칙과 세칙에 적합한가
- 북한어의 실재를 드러내는 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가

- 항목별 지침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는가
- 북한어 집필이 지침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 북한어 집필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나 오류는 무엇인가

③ 감수 시기

- 작업 초기: 지침과 샘플 작업에 대한 검토
- 작업 중기: 수정 지침과 본 집필 내용에 대한 검토
- 작업 종료: 최종 지침 및 집필 내용, 이후 계획에 대한 검토

④ 감수자 선정

- 북한어 전문가
- 탈북민: 교육 수준, 재북 시 직업, 탈북 시기 등 고려하여 선정

⑤ 감수 결과에 대한 기대 효과

- 북한어 관리 지침을 북한어 전문가와 탈북민이 검토하고 확인함으로써 북한어 지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 지침을 이루는 구조뿐만 아니라 세세한 방법과 예시가 북한어를 정확히 기술하기 위한 연습인지 확인하고 오류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3-4) 참고 자료 정리 및 활용 방안 검토

그간 남북 전문어 용어 구축 사업의 성과물, 북한어 말뭉치 구축 사업의 성과물은 《우리말샘》의 북한어 등록과 정비를 위한 기초 자원이 되었다. 또한 북한 전문용어 연구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도 이번 연구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특히 최신의 북한 학술 사전 등을

직접 확인하면 북한어 관리 지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의 집필팀에서 기구축 자료와 북한 사전 등을 활용하여 최신 북한어, 미등재 북한어를 선별하여 집필 완료하였다. 이는 곧 《우리말샘》의 북한어 정보로 탑재될 것이다. 북한어 토대 자료를 활용한 북한어 집필 결과물은 《우리말샘》의 북한어 정보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북한어를 정확히 이해하게 하는 데 길잡이가 된다.

그간 구축 완료한 북한어 말뭉치와 남북 전문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는 이후로도 북한어의 의미와 용법을 추출하고 적절한 예문을 선별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구축 북한어 자료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 전문 용어 데이터베이스는 국립국어원의 용어 구축 시스템에 탑재하여 남북 용어 비교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북한어 말뭉치는 남북 표기법 대조를 위한 연구자료, 북한어 형태소 분석기 개발의 학습 데이터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3-5) 저작권 및 법률적 문제 검토

사전은 편집 저작물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이다. 북한어 편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법률적 이슈가 무엇인지 미리 가늠하고 문제없이 집필, 관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어 자료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 문제에 대해 정리하고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다.

첫째, 사전과 같은 편집저작물에서 저작권자에 대한 침해 여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공표된 저작물 인용에 관한 저작권법 제28조이다. 《우리말샘》 북한어 정보 집필 및 향후 웹 서비스에 대한 법률 전문가 자문 결과를²⁾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2) 2021년 국립국어원의 ‘북한 자료 활용 방안 및 시범 구축’ 사업에서 북한어 집필 시 《조선말대사전》 인용에 관한 저작권 침해 여지에 대한 자문 의견서에서 발췌하였다.

(저작권법 제46조), 법 제28조에 따르면 ①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을 가지고, ② 정당한 범위 내에서, ③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인용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

(2) 북한어 정보 기술을 위한 저작물 이용 목적이 적절한가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 북한어 정보는 기존의 사전 및 말뭉치 등을 활용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북한어 집필 자료를 국립국어원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국민의 북한어 이해를 돕고 연구자 및 기관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며, 탈북민의 언어생활을 도와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우리말샘》 북한어 정보는 교육 및 연구의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북한 사전의 인용 목적에 대한 정당성은 다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국어원에서 교육, 연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인용하는 경우이므로 영리적인 목적일 때에 비해 자유 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3)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인가

인용이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인가는 인용의 목적, 인용되는 분량 및 상당성, 인용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인용 분량의 상당성에 관하여는 인용저작물의 고유의 내용이 주가 되고, 인용된 저작물(피인용저작물)의 내용은 부수적이고 최소한의 분량에 그쳐야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만일 인용자의 글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피인용자의 글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또는 인용자의 글은 없고 피인용자의 글들만을 모아 일명 ‘짜깁기’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범위 안의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인용 분량의 문제는 인용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서 산술적으로 그 적정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말샘》의 북한어 정보가 북한 사전의 뜻풀이나 용례에 대한 것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인용되는 저작물인 북한 사전의 인용 분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용은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인용이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인용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 함은 인용으로 인하여 피인용 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말대사전》을 참고하여 그 뜻풀이를 새롭게 한 것으로서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용으로 인하여 피인용 저작물인 『조선말대사전』의 시장 수요를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어야 하는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인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인용 저작물과 인용된 저작물을 인용부호 등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어를 집필함에 있어서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법 제37조), 자료 말미에 별도 항목으로 인용된 저작물의 목록을 기재하며,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서는’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등 저작물의 고유 부분과 피인용 부분을 구분한다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사전 인용 방식과 내용에 따르자면 저작물의 고유 부분과 피인용 부분이 구분되므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 다만 북한 사전을 인용하는 부분인 피인용 부분과 저작물의 고유 부분이 객관적으로 뚜렷이 구분하여 인식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출처를 밝히고 북한 사전을 인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개변을 하지 않는 것이 인용을 하는 공정한 관행에 부합한다. 따라서 출처를 밝히고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되는 원 저작물인 북한 사전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5) 웹 서비스가 가능한가

본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피인용 저작물인 북한 사전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인용에 해당한다면, 이는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인용으로서 북한의 저작물인 북한 사전을 인용한 자료를 웹 서비스를 통하여 외부에 공개 및 배포하는 것도 면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북한 저작물의 인용이 법적으로 면책이 되기 위해서

는 앞서 검토한 요건, 즉 ①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할 것 ②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할 것 ③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할 것 (인용의 방법과 형태가 출처 표기, 인용 부분 명시 등 통상적일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어 관리 지침에서 저작권 침해 여지가 없도록 보완하는 일이다. 북한어 집필 지침에 명시해야 할 항목은 ‘뜻풀이’와 ‘용례’이다. 먼저 북한어 뜻풀이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 지침에서부터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를 포괄하되, 고쳐 쓰도록 대원칙에 규정되어 있다. 이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시하여 동일하게 인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 1) 북한어의 뜻풀이가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호응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지나치게 장황할 경우에는 의미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한다. 다만 반드시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를 확인한 후 수정한다.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를 인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우리말샘》 북한어 관리 지침 中

셋째, 북한어 용례의 경우 역시 《표준국어대사전》 지침에서부터 《조선말대사전》의 예문만을 인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편집 저작물을 구성하는 재료에 해당하는 ‘용례’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적의 방법이다. 무엇보다 《우리말샘》 북한어 정보에 공표된 저작물인 《조선말대사전》 용례를 인용하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바, 저작권 침해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용례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북한어 관리 지침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 모든 표제어에는 용례를 보이는 것이 원칙이나, 북한어의 경우에는 《조선말대사전》에 실린 용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용례가 없을 경우 임의로 작성하지 않는다.
2. 모든 용례는 《조선말대사전》의 용례와 연구원에서 확보한 문헌에서 나오는 용례로 국한한다. 연구원에서 확보한 용례는 인용문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국한한다.

《우리말샘》 북한어 관리 지침 中

4) 지침 수정 불가 사항

전체적으로 《조선말대사전》(2017)의 개신 정도가 상당히 커서 기존 지침에서 근거로 삼은 내용이 삭제되었거나 대폭 수정된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또한 《우리말샘》의 내용이 기존 지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서 지침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말대사전》(2017)에서 확인 불가능한 항목의 경우

지명, 고유명 등이 《조선말대사전》에서 대폭 삭제되었다. 지명의 경우 ‘평양’을 제외하고는 기존 지침에 제시된 지명을 찾을 수 없었다. 지명 관련 지침을 수정해야 하는데, 북한의 지명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차후에 공신력 높은 정보에 기대어 이 부분의 지침을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조선말대사전》의 경우 품사 통용어를 없애고 하나의 품사 아래 ‘부사적으로 쓰여’, ‘관형사적으로 쓰여’ 등으로 다의어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른 지침의 내용이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침은 그대로 두되, 메모란을 통해 관련 사항을 기록하였다.

셋째, 지침과 《우리말샘》 정보 간 차이가 있을 때 지침과 《우리말샘》의 내용 중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아래 ‘견인비행’의 경우, 전문어의 영역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인데, ‘견인비행’을 ‘항공’으로 고치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말샘》에는 ‘항공’ 분야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예 수정이 불가능하다. ‘선박 톤수’는 ‘해양’으로 수정하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말샘》에는 ‘교통’으로 되어 있으며 선박과 관련된 ‘X+톤수’ 대부분이 ‘교통’으로 되어 있어 이 지침의 유효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모두 메모란에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상당수 확인되는바, 차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9) 영역 조정 : 『교통』 영역에는 육상 교통만 포함되기 때문에 해상 교통이나 항공로 관련 표제어들은 해당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

나) 항공, 선박, 해상 교통에 관련된 표제어

견인비행 「명」「복」 『교통』 비행기가 글라이더 따위를 이끌며 날아감. 또는 비행기가 글라이더

따위를 끄는 일.

⇒ 『명』 『북』 『항』

선박^톤수 #5『교통』 배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배 안의 용적으로 표시하는 용적 톤수와 배의 무게, 또는 배 안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으로 표시하는 중량 톤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5『해』

5) 관리 지침 정비를 통한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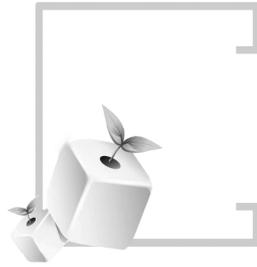
첫째, 《우리말샘》 북한어 정보의 정확도 제고

지침의 모든 북한어 정보에 대해 《조선말대사전》(2017)과 비교, 확인함으로써 지침의 질적 신뢰도를 높였다.

둘째, 북한어 추가 집필 지침과의 통합을 통해 지침의 완성도 향상
《표준국어대사전》편찬 지침(2000)과 《표준국어대사전》개정 지침(2008) 지침에서 다루지 못한 북한어 집필의 문제를 올해 집필 팀에서 구체적으로 지침화하였다. 이를 통합 과정에서 수렴함으로써 《우리말샘》의 북한어 추가, 수정, 삭제 등 전 범위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강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말샘》 북한어 지침 자체의 완성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었다.

셋째, 《우리말샘》의 타 부류 지침 정비에 기여

《우리말샘》의 성격에 맞는 지침 체제를 갖추므로써 《우리말샘》의 타 분야 지침 개정 및 정비 시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제 3 장

집필 팀 작업 결과



Ⅲ. 집필 팀 작업 결과

- 본 연구에서는 지침 팀에서 작성된 ‘『우리말샘』 북한어 등록 및 정비 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말샘』에 등재된 북한어를 정비하고, 또한 향후 『우리말샘』에 등재할 북한어를 집필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세부 작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우리말샘』에 기등재된 북한어의 사전 정보 검토 및 보완(2,102개)
 - “북한어성 검토 결과 ‘보류’로 분류된 용어” 2,102개에 대한 재검토 이후 북한어성 여부 확정

- 『우리말샘』에 미등재된 북한어의 사전 정보 집필(1,716개)
 - “남북 전문용어 대응쌍 상이형(Aa형, AB형)” (1,457개)
 - “남북 정보통신기술 용어 대응쌍 상이형” (150개)
 - “사전 미등재 북한어” (109개)

- 『조선말대사전』(2017) 표제어 중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등재할 가치가 있는 어휘 2,000여 개 선정 후 집필

- 집필 및 정비 결과물 오류 수정 후 『우리말샘』 시스템 입력

1. 북한어 정비 사업에서 ‘보류’로 분류된 어휘 재검토

-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에 등재된 북한어의 총개수는 69,273개 (2023년 6월 기준)이다. 2023년도에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들 북한어에 대한 북한어성을 검토하여, ‘명복(명백한 북한어)’, ‘보류(북한어 판단 보류)’, ‘삭제(『우리말샘』 북한어 등재 불필요)’로 분류하였다. 그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우리말샘』의 ‘북한어’에 대한 북한어성 판단 결과

총 개수	<명복>	<삭제>	<보류>
46,001	42,515	1,384	2,102

표 1 <북한어에 대한 북한어성 판단 결과>

- 본 연구진에서는 이 중 북한어성 검토 결과 ‘보류’로 분류한 용어 총 2,102개를 재검토하였고, 『우리말샘』에 북한어 표제어로 등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백한 북한어(명복)’와 『우리말샘』의 북한어 표제어로 등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삭제’로 유형을 나누어 확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보류 총 개수	보류 중 명복으로 판단한 개수	보류 중 삭제로 판단한 개수
2,102	1,129	973
	53.7%	46.3%

표 2 <‘보류’로 분류한 용어 재검토>

① ‘명복(명백한 북한어)’ 예시

표제어	처리 결과	원어	뜻풀이	비고
-----	-------	----	-----	----

가독나무	명복	가독나무	참나뭇과에 속하는 떡갈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잎은 집짐승의 먹이와 거름으로 쓰고 도토리는 식용 및 돼지 먹이로 이용된다.	남한의 비표준어
각주	명복	脚蛀	발에 무좀이 생겨 늘 진물이 나는 병.	북한 전문 용어
가슴옷자락	명복	가슴옷자락	가슴 부분에 닿는 옷자락.	북한 고유의 조어
간닥	명복	간닥	작은 물체가 조금 깜빡하게 한 번 흔들리거나 고개를 한 번 순간적으로 작게 숙였다가 드는 모양.	남한의 어근 / 북한의 부사
교육계획	명복	教育計劃	교육 사업의 발전 방향과 규모를 규정한 국가의 법적 과제.	체제의 차이를 반영한 어휘

표 3 <‘명복’ 예시>

○ 위 예시 중 ‘교육계획’ 같은 용어는 그대로 구로 쓰면 남한어로 보이고 뜻풀이 역시 남한의 뜻풀이와 그리 다르지 않아 남한어로 보아야 한다는 이견도 있었으나, 뜻풀이 내 북한 체제의 특성을 일부 담고 있고 북한 고유의 조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명복’으로 일단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은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② ‘삭제’ 예시

표제어	처리 결과	원어	뜻풀이	비고
곤충유인제	삭제	昆蟲誘引劑	곤충을 일정한 곳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쓰는 약제.	전문어 구
골갱이	삭제	골갱이	밭에서 쓰는 살씨레의 하나. 크기	전통 농경사회

			가 작고 살이 세 개 달렸다.	반영 어휘
공후지락	삭제	公侯之樂	높은 관직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리 는 즐거움.	예전 한자어
덧그물	삭제	덧그물	쳐 놓은 그물 옆에 덧치는 그물.	남한에서도 쓰 이는 어휘

표 4 <‘삭제’ 예시>

2. 북한어 정비 사업에서 ‘명복’으로 분류된 어휘 집필

1) <남북 전문용어 대응쌍 상이형(Aa형, AB형)> 집필

- “북한어 정비를 위한 대상 선별(2023)” 결과 선정된 <남북 전문용어 대응쌍 상이형(Aa형, AB형)>을 집필하였다. 전체 1,457개의 대상 어휘에서 누락된 어휘를 추가해 총 1,461개의 어휘를 집필하고자 했으나 중복 표제어 107개를 제외하고 총 1,354개의 어휘를 집필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총 개수	중복 삭제	실개수	‘대응어’의 북한어	자체 뜻풀이	기등재 어휘(북한어)	기등재 어휘(남한어)	국어원 사전팀 보류
1,461	107	1,354	549	6	638	138	23
		100.0%	40.5%	0.4%	47.1%	10.2%	1.7%

표 5 <남북 전문용어>

표제어	원어	뜻풀이	비고
고체레이저	固體laser	‘고체 레이저’의 북한어.	‘대응어’의 북한어
육상서	六尙書	고려 시대 이, 병, 호, 형, 예, 공의 6부 장관인 여섯 상서를 통틀어 이르는 말. ⇒규범 표기는 ‘육상서’이다.	단독 뜻풀이
류랑민	流浪民		기등재 어휘(북한어)

간섭성	干涉性		기등재 어휘(남한어)
핵소체	核小體	‘뉴클레오솜’의 북한어.	보류(*‘기등재어(남한어)’로 볼 만함)

표 6 <남북 전문용어 집필 예시>

- 위의 ‘고체레이저’처럼 남한 대응어 ‘고체 레이저’가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체 레이저’의 북한어.”와 같이 “남한 대응어의 북한어.” 형식으로 집필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집필 대상 어휘의 40.5%인 549개 어휘였다.
- 다음으로 ‘륙상서’처럼 남한 대응어가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북한 사전의 뜻풀이를 참조하여 『우리말샘』의 집필 지침에 맞게 새로 집필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집필 대상 어휘의 0.4%인 6개 어휘였다.
- 다음으로 ‘류량민’처럼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기등재된 어휘와 ‘간섭성’처럼 『우리말샘』에 남한어로 기등재된 어휘가 있었는데 이들은 현행 『우리말샘』의 뜻풀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기등재된 어휘는 집필 대상 어휘의 47.1%인 638개 어휘였고, 『우리말샘』에 남한어로 기등재된 어휘는 집필 대상 어휘의 10.2%인 138개 어휘였다.
- 마지막으로 ‘핵소체’ 등의 경우에는 남한 대응어 ‘뉴클레오솜’이 있어 “‘뉴클레오솜’의 북한어.”로 집필하였는데, 남한어로 볼 여지가 있다는 국립국어원 사전팀의 판단에 따라 ‘보류’로 분류하여 시간을 가지고 북한어성을 다시 판단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집필 대상 어휘의 1.7%인 23개 어휘였다.

2) <남북 정보통신기술 용어 대응쌍 상이형> 집필

- “북한어 정비를 위한 대상 선별(2023)” 결과 선정된 <남북 정보통신 기술(ICT) 용어 대응쌍 상이형>을 집필하였다. 전체 150개의 대상 어휘에서 누락된 어휘를 추가해 총 152개의 어휘를 집필하고자 했으나 중복 표제어 8개를 제외하고 총 144개의 어휘를 집필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총 개수	중복 삭제	실개수	‘대응어’의 북한어	자체 뜻풀이	기등재 어휘(북한어)	기등재 어휘(남한어)	국어원 사전팀 보류
152	8	144	112	0	9	20	3
		100.0%	77.8%	0.0%	6.3%	13.9%	2.1%

표 7 <남북 정보통신기술 용어>

표제어	원어	뜻풀이	비고
데타	data	‘데이터’의 북한어.	‘대응어’의 북한어
론리연산	論理演算		기등재 어휘(북한어)
알고리즘	algorithm		기등재 어휘(남한어)
정보가공	情報加工	‘정보 처리’의 북한어.	보류(*식품과학사전에 ‘정보가공’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남한어로 불만함.)

표 8 <남북 정보통신기술 용어 집필 사례>

- 위의 ‘데타’처럼 남한 대응어 ‘데이터’가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북한어.”와 같이 “남한 대응어의 북한어.” 형식으로 집필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집필 대상 어휘의 77.8%인 112

개 어휘였다.

- 다음으로 ‘론리연산’처럼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기등재된 어휘와 ‘알고리즘’처럼 『우리말샘』에 남한어로 기등재된 어휘가 있었는데 이들은 현행 『우리말샘』의 뜻풀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기등재된 어휘는 집필 대상 어휘의 6.3%인 9개 어휘였고, 『우리말샘』에 남한어로 기등재된 어휘는 집필 대상 어휘의 13.9%인 20개 어휘였다.
- 마지막으로 ‘정보가공’ 등의 경우에는 남한 대응어 ‘정보 처리’가 있어 “‘정보 처리’의 북한어.”로 집필하였는데, 남한어로 볼 여지가 있다는 국립국어원 사전팀의 판단에 따라 ‘보류’로 분류하여 시간을 가지고 북한어성을 다시 판단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집필 대상 어휘의 2.1%인 3개 어휘였다.

3) <사전 미등재 북한어> 집필

- “북한어 정비를 위한 대상 선별(2023)” 결과 선정된 <사전 미등재 북한어>를 집필하였다. 전체 109개의 대상 어휘에서 누락된 어휘를 추가해 총 116개의 어휘를 집필하고자 했으나 중복 표제어 2개를 제외하고 총 114개의 어휘를 집필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총 개수	중복 삭제	실개수	‘대응어’의 북한어	자체 뜻풀이	기등재 어휘(북한어)	기등재 어휘(남한어)	국어원 사전팀 보류
116	2	114	34	62	2	3	13
		100.0%	29.8%	54.4%	1.83%	2.6%	11.4%

표 9 <사전 미등재 북한어>

표제어	원어	뜻풀이	비고
몸질량	몸質量	‘체중’의 북한어.	‘대응어’의 북한어
벼가을	벼가을	익은 벼를 베거나 베어서 거두어들이는 일.	단독 뜻풀이
물압력	물壓力		기등재 어휘(북한어)
곤포	昆布		기등재 어휘(남한어)
겨울내의	겨울內衣	‘동내의’의 북한어.	보류(남한에서도 쓰임이 많음)

표 10 <사전 미등재 북한어 집필 예시>

- 위의 ‘몸질량’처럼 남한 대응어 ‘체중’이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체중’의 북한어.”와 같이 “남한 대응어의 북한어.” 형식으로 집필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집필 대상 어휘의 29.8%인 34개 어휘였다.
- 다음으로 ‘벼가을’처럼 남한 대응어가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북한 사전의 뜻풀이를 참조하여 『우리말샘』의 집필 지침에 맞게 새로 집필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집필 대상 어휘의 54.4%인 62개 어휘였다.
- 다음으로 ‘물압력’처럼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기등재된 어휘와 ‘곤포’처럼 『우리말샘』에 남한어로 기등재된 어휘가 있었는데 이들은 현행 『우리말샘』의 뜻풀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기등재된 어휘는 집필 대상 어휘의 1.83%인 2개 어휘였고, 『우리말샘』에 남한어로 기등재된 어휘는 집필 대상 어휘의 2.6%인 3개 어휘였다.

- 마지막으로 ‘겨울내의’ 등의 경우에는 남한 대응어 ‘동내의’가 있어 “‘동내의’의 북한어.”로 집필하였는데, 남한어로 볼 여지가 있다는 국립국어원 사전팀의 판단에 따라 ‘보류’로 분류하여 시간을 가지고 북한어성을 다시 판단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집필 대상 어휘의 11.4%인 13개 어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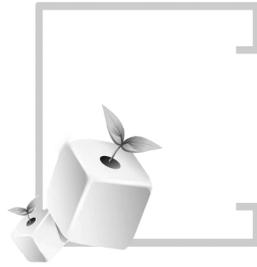
3. 《조선말대사전》(2017)에서 북한어 선정 및 집필

- 공동연구원 1인이 《조선말대사전》(2017)에서 《우리말샘》에 등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북한 표제어 2,104개를 선정하고, 연구원 1인이 《조선말대사전》(2017)을 검색하여 이들 표제어에 붙어 있는 북한 뜻풀이를 그대로 엑셀파일에 옮겨 선정 작업을 마쳤다.
- 이와 같이 선정된 《조선말대사전》(2017) 북한 표제어 2,104개를 집필팀의 공동연구원과 연구원 각 1인이 『우리말샘』의 집필 지침에 맞게 집필하였다. 집필을 모두 마친 후 2인의 공동연구원은 1,052개씩의 용어들을 서로 교차 검토하여 2,104개의 용어 뜻풀이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최종 확인하였다. 그 집필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제어	원어	뜻풀이	비고
대악한	大惡漢	극히 흉악한 사람.	
맨흙	맨흙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흙.	
목인사	목人事	목을 숙여 하는 인사.	
밀땀	밀땀	밀가루로 꿰지거나 터진 곳을 땀하는 일. 또는 그런 땀질.	
보통생	普通生	‘최우등, 우등, 보통, 낙제’의 구분으로 성적이나 등급을 매길 때의 셋째 등급의	

4. 정비 및 집필 결과물 『우리말샘』 시스템 입력

- 북한어 정비 사업에서 ‘보류’로 분류된 어휘를 재검토한 최종 엑셀파일은 국립국어원 의견에 따라 『우리말샘』의 시스템에 바로 입력하지 않고 사전팀에서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 차차 진행하기로 하였다.
- 북한어 정비 사업에서 ‘명백한 북한어’로 분류되어 집필을 마친 남북 전문용어(1,354개), 남북 정보통신기술 용어(144개), 사전 미등재 북한어(144개) 등 총 1,612개의 용어는 입력팀이 『우리말샘』의 시스템에 모두 입력을 마쳤다.
- 《조선말대사전》(2017)에서 선별해 『우리말샘』에 등재할 북한어로 선정되어 집필을 마친 총 2,104개의 용어는 입력팀이 『우리말샘』의 시스템에 모두 입력을 마쳤다.



제 4 장

향후 과제 전망



IV. 향후 과제 전망

1. 2021년 5개년 계획에서 제안한 과제

“탈북민의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1.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남한 기초 어휘 교육 강의안 개발(남북 어휘 대응쌍 및 동영상 교육 자료 포함) -경제 용어, 사회 용어, 법률 용어를 중심으로
2. 남북한의 화법 대조 교육 자료 개발: 대면 수업 자료 & 동영상 강의 자료
-남북 발음 차이, 문법 차이, 담화 화용 차이 등에 대한 대조 자료 개발
3. 탈북민을 위한 ‘남한 언어문화와 언어생활’
- 대면 수업 자료 & 동영상 강의 자료
- 탈북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비대면 동영상’ 교육 자료 요청이 많음.

모든 언어적 행동은 사회문화적 배경하에 이루어진다. 같은 언어권이라도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말하기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탈북민과 남한 사람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어쩌면 예상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탈북민은 직설적 화법을 구사한다. 매사 정확하게 말하기를 요구하는 북한 사회의 요구에서 비롯된 언어 습관이다. 그런데 탈북민의 직설적 화법은 무례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상대방의 감성을 고려하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말하기로 평가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탈북민들은 남한 사람들을 앞뒤가 다른,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한다. 그 근거로 남한 사람들의 완곡어법, 간접화행, 이중부정 등의 말하기를 사례로 제시한다.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에둘러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좋지도 싫지도 않은 중간에 걸쳐 놓았다가 필요에 따라 때로는 좋은 쪽에 때로는 싫은 쪽에 가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도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려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슴없이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의 삶의 방식이

서로 다른 언어 감성을 만든 것이다.

상호 익숙하지 않은 소통 방식은 불통의 원인이 되고, 오해의 원인이 된다. 그런가 하면 남한식 말하기에 대한 오해는 탈북민의 말하기 연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결과 탈북민과 남한 사람들 간의 소통의 간극을 쉽게 좁히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탈북민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사회심리, 진로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공감을 강조한 의사소통, 직장인 맞춤형 의사소통 등 탈북민에게 필요한 작업이고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제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현장 상황에 맞게 활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탈북민에게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말하기,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말하기, 공손한 말하기 등 남한식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나원에서 ‘언어문화와 언어생활’ 시간을 통해 일부 다루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 시수의 문제로 이론적 접근으로 만족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여 개념을 세우고, 말하기의 실재를 구현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탈북민을 위한 의사 소통 프로그램’은 대면 혹은 비대면 교육용으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이 선호하는 방식이 ‘강의 수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면 교육은 교육 장소로의 접근이 어렵고 시간 할애도 쉽지 않기 때문에 대면 교육보다는 비대면 교육이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하나원에서 2020년~2023년에 하나원 수료 탈북민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았다.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어서’ 비대면 교육을 선택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2023년 사업 연계 과제

“《우리말샘》 북한어 정보 정비”

1. 목적과 필요성

- 북한어의 변화에 따른 《우리말샘》 북한어 정비 개선
- 《조선말대사전》(2017), 거울2.0 등 북측 최신 자료 확인
- 《우리말샘》 북한어 표제어 수정보완 즉시 웹 서비스

2. 기대 효과

- 북측 언어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

현재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 북한어 정보는 우리 국민이 북한어 정보를 확인하는 유일한 참조 자원이다. 남한어의 일반어와 전문어, 신어 등은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등의 사전과 여타의 어휘 데이터베이스가 상당수 구축되어 웹 서비스 중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궁금함을 해소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어의 경우 《우리말샘》만큼의 규모, 사용의 편의성을 확보한 사전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황이다. 남북 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이슈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탈북민과의 소통 개선을 위한 자료는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올해 사업을 통해 《우리말샘》의 북한어 정보가 《조선말대사전》(2017)의 내용과 상당수 차이가 남을 확인한바, 《우리말샘》의 북한어에 대한 내용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우리말샘》의 이용자가 현재 북한에서 규범적으로 기술한 어휘 정보를 잘못 인용하거나 잘못 이해함으로써 또 다른 이슈가 발생할 경우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미 연구진과 국립국어원은 북한에서 최근 발간한 사전류를 상당히 확보하고 있어 북한어의 일반어와 전문어에 대한 규범적 정보를 수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차년도 사업에서는 《우리말샘》의 북한어 정보를 《조선말대사전》(2017)과 기타 학술용어사전을 검토하여 수정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록 1] 2023년 북한어 지침 정비 작업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지침 ‘북한어’ 정비 원칙

첫째, 2008년 개정 당시 지침의 구조와 내용을 유지하되,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수정한다.

둘째, 현재 《우리말샘》에서 북한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기존 사전을 《우리말샘》으로 한다. 지침의 정보가 《우리말샘》과 다를 경우 ‘ㄹ’ 다음에 제시한다.

셋째,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수정한다.

넷째, 북한 사전은 《조선말대사전》(2017)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말샘》 수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ㄹ’ 다음에 제시한다.

1. 표제어

1.1. 원칙

3.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올라 있으나 남한어 쓰임이 발견되는 표제어는 남한어로 처리한다.

1.2. 세칙

아래와 같은 경우 《우리말샘》의 표제어 정보를 수정한다.

1) 북한어 수정 원칙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등재되어 있는 표제어가 말뭉치나 인터넷 등에서 남한어 쓰임이 발견되면 ‘북남’, ‘북남검’, ‘표삭검’의 방법을 통해 남한어로 처리한다.

(1) 아래와 같은 경우 ‘북남’으로 집필한다. ‘북남’으로 분류하였을 때는 #3에 정보 없음 표시(%)를, #4에 표제어(IC 분석 포함), 원어, 발음, 활용, 품사, 문형 정보, 문법 정보, 전문어 영역, 뜻풀이, 용례, 관련 어휘, 참고 어휘를 모두 순서대로 집필한다.

① 북한어로 분류된 표제어 중, 인용 말뭉치에서 남한어 쓰임이 보이고 집필자도 남한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북남’으로 분류하여 남한어로 집필한다.(그러나 인용 말뭉치에서 그 예가 보이더라도 특정한 작가의 작품에서만 나타날 경우에는 ‘북남’으로 바로 집필하지 않고 ‘북남검’으로 하여 검토 사항으로 남긴다.)

#1가동음#2복남#3#4가동-음(稼動音)「명」기계나 공장 설비들이 작동할 때 나는 소리. 『점심 시간이 되자 공장 {가동음}이 멈췄다./문득 주차장 쪽에서 엔진 {가동음들이} 요란하게 들려온다.<NKVAA480,401,홍성원,육이오>§#5남한 용례 있음.

#1거짓스럽다#2복남#3#4거짓-스럽다[거:진쓰-따](-스러워, -스러우니)「형」보기에 거짓을 부리는 태도가 있다. 『너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단순한 욕망 때문에 {거짓스러운} 몸짓을 한 적이 있다./말이란 소란스럽고 {거짓스러운} 것이라 믿었던 그녀는 말 대신 침묵이 있는 글쓰기를 택했다. §#5남한어 용례 확인되고 실제로 쓰이므로 남한어로 집필함. ‘거짓스레’도 남한어로 바꿈.

#1거짓스레#2복남#3#4거짓스레[거:진쓰-「부」⇒거짓스럽다.#5‘거짓스럽다’를 남한어로 수정한 것에 따름. ‘*스레’는 표제어 분석하지 않음.

○ 《우리말샘》 뜻풀이가 위와 다름.

거짓스레 「001」 「부사」보기에 거짓을 부리는 태도가 있게.

- ② 《우리말샘》에 주표제어와 부표제어가 모두 북한어로 분류되어 있는 표제어 중에서, 주표제어의 남한어 쓰임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부표제어가 인용 말뭉치의 다양한 작품에서 나타나고 집필자도 남한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부표제어를 ‘남한어’로 집필하고 이에 대응하는 주표제어도 ‘남한어’로 분류하여 집필한다.

#1길쭈길쭈하다#2복남#3#4길쭈길쭈-하다[--길---]「형」⇒길쭈길쭈. 『염색한 작업복 소매를 건어붙이고 있었으나 {길쭈길쭈한} 사나이의 육체는 매력적이었다.<netc3703,062,강신재,해방촌 가는 길>§#5%

#1길쭈길쭈#2복남#3#4길쭈-길쭈[--길-「부」여럿이 다 시원스레 조금 기름한 모양.#5부표제어 ‘길쭈길쭈하다’를 남한어로 수정함에 따름.

※ 길쭈길쭈「부」『복』 여럿이 다 시원스레 조금 기름한 모양. 『얘기는 뼈마디가 모두 {길쭈길쭈} 뿔혀서 키가 상당히 커질 듯싶다.<<선대>>§ 길쭈길쭈하다「형」『복』⇒길쭈길쭈.

- ③ 《우리말샘》에 ‘-하다’, ‘-되다’ 등이 결합한 형태가 북한어 주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말뭉치에서 해당 어휘의 남한어 쓰임이 나타날 때, 남한어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복남’으로 분류하여 집필하고, 이에 대응하는 주표제어를 ‘표추검’ 항목으로 분류하여 집필한다.

#1길쭈하다#2복남#3#4길쭈-하다「형」⇒길쭈. 『광채가 번쩍이는 두 눈에다 얼굴이 {길쭈한} 이 사나이는, 말에 상당한 자신을 가진 듯해 보였다.<NBNA000,007,김동리,사반의 십자가>§#5‘길쭈’의 부표제어로 수정되므로 표제어 재배열할 것.

#1길쭈#2표추검#5‘길쭈하다’가 남한어로 수정되었으므로 ‘길쭈하다’의 어근으로 추가할 것.

※ 길쭉하다「형」『복』 시원스레 조금 기름하다. 『{길쭉한} 말상을 한 사나이<<선대>>/성이라도 난 듯 썰쭉한 표정을 지으며 따지고 드는 국화의 {길쭉한} 얼굴과 짙은 눈섭은 바라볼수록 귀엽고 사랑스러웠다.<<잊지 못할 겨울, 선대>>』

#1감송하다#2복남#3#4감송-하다「형」1잔털 따위가 드물게 나서 까무스름하다. ‘감송하다’보다 센 느낌을 준다.『아궁이에 왕겨를 한 줍씩 던지느라 주름살 많은 {감송한} 얼굴을 옥 오그린다.<NKTAA000,57,현덕,남생이>』2『복』~.#5말뭉치에 예들이 있어 남한어 뜻풀이를 추가하고 ‘감송하다’, ‘검송하다’에 맞춰 뜻풀이함. 어근 ‘감송’도 반드시 추가해야 함.

#1감송#2표추검#5‘감송하다’를 남한어로 고쳤으므로 ‘감송하다’의 어근으로 추가해야 함.

※ 감송하다「형」『복』좀 까무스름하다. 『강아지의 {감송한} 몸뚱이/얼굴이 {감송해지다}』

★④ 식물인 ‘○○’이 식물과 식물의 일부(열매나 꽃 등)를 모두 뜻하는 다의어로 풀이되어 있고 ‘○○나무(꽃)’는 북한어로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말뭉치에서 ‘○○나무(꽃)’의 남한어 용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나무(꽃)’를 ‘복남’으로 분류하여 남한어로 바꾸고 ‘○○’의 뜻풀이를 수정한다.

☞ 식물과 식물의 일부에 대한 뜻풀이와 전문어 영역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북한어를 남한어로 바꿀 때에도 이에 맞추어야 한다.

‘○○’을 「1」『식』~식물.「2」「1」의 꽃.’과 같은 형식의 다의어로 뜻풀이한다. 이때 「1」은 식물 전문어로, 「2」는 일반어로 분류한다.

‘○○꽃’은 ‘=○○「2」.’와 같은 형식으로 뜻풀이한다.

#1머루나무#2복남#3#4머루-나무「명」『식』「1」=머루01「1」.「2」=머루01「2」.#5남한어 쓰임이 발견되어 남한어로 집필함.

#1머루01#2뜻수#3「명」『식』「1」포도과의~. 「2」포도과의~분포한다.≒목롱. 「4」=왕머루.#4「명」「1」『식』포도과의~.≒머루나무「1」. 「2」『식』포도과의~분포한다.≒머루나무「2」.목롱.산머루. 「4」『식』=왕머루.#5‘머루나무’를 남한어로 집필한 것에 따라 뜻풀이 수정함. 「3」은 식물 전문가가 아니므로 「3」을 제외한 뜻풀이 번호 각각에 전문어 영역을 넣어줌. 「3」에는 동의어 ‘산머루’도 추가함.

※ 머루나무「명」『복』『식』 ‘머루01’의 북한어.

머루01「명」『식』 「1」포도과의 왕머루, 까마귀머루, 새머루, 개머루, 털개머루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산머루.「2」포도과의 낙엽 덩굴나무. 왕머루와 비슷하나 잎 뒷면에 붉은색을 띤 갈색 털이 있으며, 흑자색 열매가 달린다. 울릉도에 분포한다. ≒목롱. (Vitis coignetiae)「3」머루의 열매. ≒산포도01「1」. 야포도「2」.「4」=왕머루.

○ 현재 《우리말샘》 뜻풀이는 아래와 같이 두 개의 다의만 있음.

머루-나무 「001」 「명사」 『식물』 포도과의 왕머루, 까마귀머루, 새머루, 개머루, 털개머루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머루-나무 「002」 「명사」 『식물』 포도과의 낙엽 덩굴나무. 왕머루와 비슷하나 잎 뒷면에 붉은색을 띤 갈색 털이 있으며, 흑자색 열매가 달린다. 울릉도에 분포한다.

- ⑤ 북한어로 등재된 표제어 중에서 북한어 뜻풀이와는 다른 의미의 남한어 쓰임이 발견되면 ‘뜻추’나 ‘뜻추검’으로 분류하지 않고 ‘북남’ 또는 ‘북남검’으로 하여 남한어로 돌리고 뜻풀이를 추가한다.

#1보호막#2북남검#5보호-막(保護膜)[보:--][보호막만[보:-망-]]「명」 「1」사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표면을 덮고 있는 막.새끼는 연약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든든한 {보호막으로} 싸여 있./자외선 코팅으로 CD에 {보호막을} 씌운다.§2『북』~. 기타 말뭉치.

※ 보호막(保護膜)「명」 『북』 『의』 ‘점막02(粘膜)’의 북한어.

- (2) 아래와 같은 경우 ‘북남검’으로 분류하여 집필한다. ‘북남검’으로 집필할 때에는 #1에 표제어, #2에 ‘북남검’, #5에는 메모를 남긴다.(검토 사항으로 집필할 때는 #3과 #4 항목은 삭제한다. 이에 따라 파일에는 ‘#1#2#5’만 입력해야 한다.) 이때 참고가 될 만한 말뭉치나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5에 복사하여 남긴다.

- ① 말뭉치에서 남한어 용례가 보이나 특정한 작가의 작품에만 나와서 표준성이 의심스러운 것은 ‘북남검’으로 분류하여 집필하고 해당 표제어의 표준성을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이때 ‘표사검’ 항목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

#1개물01#2북남검#5‘개물’이 남한어로도 쓰이나 이것이 표준어인지, 방언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음. 검토 바람.

※ 개물01「명」 『북』 「1」 ‘개밥’의 북한어. 『개물』 주다.§2『개죽(-粥)’의 북한어.

#1계질계질#2북남검#5기타 말뭉치에 ‘계질계질하다’가 나옴. 『밥상을 앞에 놓고 {계질계질하면서} 하도 분통을 돋우기에, “너 자꾸 그러면 아빠, 터져”라고 위협하면, 밥을 문 이쪽을 쏘아...§ ‘계질계질, 계질거리다, 계질대다’의 두 번째 뜻은 남한어로 보아야 할 듯하다. 남한어 표준어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 계질계질「부」 『북』 「1」 질깃한 물건을 보기 흉하게 입을 놀리며 자꾸 씹는 모양. 「2」 내키지 않는 음식을 자꾸 억지로 먹듯 하는 모양.

- ②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등재된 의성 의태어 중에서 말뭉치에는 용례가 나타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표제어는 ‘북남검’으로 분류하여 #5에 쓰임이 보이지는 않으나 남한에서도 파생이 가능한 단어라는 메모를 남긴다.

다.

- ③ 옛말 투의 한자어나, ‘예전에, ~’로 풀이된 북한어는 그 쓰임이 말뭉치에서 발견되지 않더라도 ‘북남검’으로 분류하고 #5에 남한어로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1노비윤삭공#2북남검#5정치색과 무관한 역사 전문어인데 북한어로 되어 있음. 남한에서도 쓰일 법한 용어.

※ 노비윤삭공(奴婢潤朔貢)「명」『북』『역』 노예살이를 하지 않는 노비들이 윤달에 공물로 바치던 쌀이나 천.

#1금삼01#2북남검#5옛 제도와 관련된 한자어.

※ 금삼01(禁蔘)「명」『북』 예전에, 인삼의 수출을 금지하던 일. 또는 그 인삼.

- ④ 북한 전문어 중에서 남한어 쓰임이 보이지만 전문가 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북남검’으로 분류하여 집필하고 #5에 전문가 감수가 필요하다는 메모를 남긴다.(그러나 북한 전문어라고 하더라도 각 전문어 사전을 통해 남한어임이 확실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남한어로 집필할 수 있다.)

#1발성기관#2북남검#5발성^기관(發聲器官)「1」『동』=발음 기관「1」,「2」『어』=발음 기관「2」.『위로라면 그저 보통의 병어리처럼 귀머거리로 겸한 것이 아니라, {발성 기관의} 이상으로 말을 못할 뿐이라는 정도일까.<NADAD001,156.이문열.황제를 위하여>§남한에서도 쓰임이 발견되거나 표준성 검토, 전문어 감수 필요함. 또는 구 구성으로 보아 삭제할 수도 있음.

※ 발성기관(發聲器官)「명」『북』『동』 ‘발음 기관「1」’의 북한어.

○ 현재 《우리말샘》 뜻풀이는 아래와 같음.

발성^기관 「001」 『동물』 동물체의 소리를 내는 기관.

발성^기관 「002」 『언어』 음성을 내는 데 쓰는 신체의 각 부분. 성대, 목젓, 구개, 이, 잇몸, 혀 따위가 있다.

- (3) 《우리말샘》의 북한 표제어 중에서 남한어가 확실한 듯하나 단순 구여서 표제어로 등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표삭검’으로 분류하여 집필한다. 이때 해당 표제어와 관련된 어휘가 있으면 관련된 어휘도 함께 검토하라는 메모를 #5에 남긴다.

#1녹두깍지#2표삭검#5북한어인데 남한어의 구 ‘녹두 깍지’와 같은 뜻임. ‘녹두깍지’를 삭제할 경우 동의어 ‘녹두깍대기’도 같이 삭제할 것. 『벗집이나 가랑잎을 태운다 여린 불빛이 노르스

름하다 콩깍지 {녹두깍지} 솔가래를 태운다./식은땀은 메밀가루 한 줌을 노랗게 볶아 물에 달여 마시면 즉시 회복된다. 또 {녹두깍지를} 진하게 달여 마셔도 잘 듣는다.§

※ 녹두깍지(綠豆--)「명」『복』 녹두알을 털어 낸 깍지. ≡ 녹두깍대기.

○《조대》(2017)에 ‘녹두깍지’가 없음.

(4)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북한어에 대응하는 남한 표제어를 추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① 한글 맞춤법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북한어는 반드시 말뭉치와 인터넷 등에서 대응 남한어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대응 남한어가 발견되면 한글맞춤법 정보에 제시된 형태를 ‘표추검’으로 남기고, 남한어를 추가할 경우 북한어의 뜻풀이를 수정하라는 메모를 남긴다.(예1) 그러나 만약 대응 남한어가 단순한 구 구성으로 판단되면 ‘표삭검’ 메모로 남긴다.(예2)

#1뒷박쌀#2표추검#5현재 ‘뒷박쌀’만 북한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기타 말뭉치에 쓰임이 발견됨. ‘뒷박쌀’을 표제어로 추가할 경우 ‘뒷박쌀’의 뜻풀이를 ‘뒷박쌀’의 북한어로 수정해야 함.
¶농민들의 먹고 살 곡식마저 반나마 빼앗아 가고 나니 혹 암거래되는 말쌀이나 {뒷박쌀}이 있다 해도 그건 너무나 비싸서…§

※ 뒷박쌀「명」『복』 뒷박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양의 쌀. ¶강화도의 주민들은 세상에 이름난 돛자리와 초물 제품을 가지고 왔고 연백 사람들은 쌀 고장에서 사는 것만큼 가난한 살림에도 {뒷박쌀을} 꿈쩍 들고 장으로 갔었다.《우리 마을, 선대》§ ♣ 뒷박쌀.

#1련결동작#2표삭검#5대응하는 남한어 ‘연결 동작’ 말뭉치에 다수 나타남. ¶주서봉의 {연결 동작} 얼마나 빨랐는지 마유신과 검진이 부딪친 순간에 그의 목운신검은 그의 손을 떠나 검진에 이 <D96ADA23,금 강,절대지존(중)>/가장 급진적이었고, 활동적이었던 이본 레이너(Yvonne Rainer)에 의해, 기존 현대춤에서 발견되어지는 춤의 {연결동작이나} 그것의 전개와 클라이맥스, 리듬, 형내, 다이내믹 같은 변형의 요소들, 인물, 공연서…<D950908,김태원,후기현대춤의 미학과 동향>§ 구 구성으로 보아 ‘련결동작’을 삭제하거나, ‘연결 동작’을 표제어로 추가한 다음, ‘련결동작’의 뜻풀이를 ‘연결 동작’의 북한어로 수정해야 함.

※ 련결동작(連結動作)「명」『복』『예』 춤의 토막과 마디 사이를 이어 주거나, 기교 동작을 수행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동작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연결 동작.

○《조대》(2017)에 ‘련결동작’이 등재되어 있고 북한의 학술사전, 영조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음. 《우리말샘》의 뜻풀이 중에도 3번 수록되어 있음. 춤 및 동작에서 용어로 쓰인다고 볼 수 있음. 위의 의견처럼 남한어 표제어로 추가하고 ‘련결동작’을 ‘연결 동작’의 북한어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② 직접 뜻풀이가 되어 있는 북한어 중에서 대응 남한어가 있는 경우에는 ‘표추검’으로 분류하여 대응 남한 표제어 추가를 검토한다. 이때 #5에 해당 표제어가 추가될 경우 관련된 북한어의 뜻풀이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메모를 남긴다. 또한 해당 북한어는 ‘뜻수검’ 항목을 남겨 대응 남한어가 추가될 경우 뜻풀이를 수정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1씻가락#2표추검#5씻가락(詩--). 기타 말뭉치에 자주 나옴.▶첫 시집 「자작나무 내 인생」이 적요롭고 농밀한 내면의 산책길을 열어 보이며 전통적인 {씻가락의} 현대적 변용을 시도했다면 이 시집에서는 시인의 고통스런 자기 부정 그리고 새로운 출발에...<4BJ01001,bookoo.com,서평>/글 솜씨가 뛰어나고 시적인 감흥이 남달랐다면 한 구절의 아름다운 {씻가락이} 흐를 만도 한데 그쪽으론 영 솜씨가 없는지라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단지 환상적이다...<4BJ01001,bookoo.com,신불평원의 가을 단상>§ ‘씻가락’을 추가할 경우 북한어 ‘씻가락’의 뜻풀이를 “‘씻가락’의 북한어”로 수정해야 함.

#1씻가락#2뜻수검#5‘씻가락’이 표제어로 추가될 경우 “‘씻가락’의 북한어”로 풀이 수정해야 함.

※ 시가락(詩--)-「명」『북』「1」시를 읊을 때의 곡조. 「2」저속한 시를 낚잡아 이르는 말.

○《우리말샘》에 남한어 다의어로 수록되어 있음.

- ③ 운동 경기나 동식물 명칭 같은 표제어 중에서 《우리말샘》에는 북한어로만 등재되어 있으나 남한에서도 같은 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표제어는 ‘뜻수검’으로 분류하여 대응 남한어가 있는지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1로라호케이경기#2뜻수검#5내용상으로 볼 때 남한에서도 하는 경기로 보임. 대응 남한어가 있는지 전문가 감수 필요.

※ 로라호케이경기(roller hockey競技)-「명」『북』『운』롤러스케이트를 신고 하는 하키 경기. 슝롤러 하키 경기.

○《우리말샘》에 ‘롤러 하키 경기’의 북한어로 등재되어 있음.

(5) 북한어 관련 기타 사항

- ★① 다의어의 뜻풀이 중 일부가 북한어로 되어 있는 것을 남한어 쓰임이 확인되어 남한어로 바꿀 때에는 ‘북남’이 아니라 ‘뜻수’로 분류하여 수정한다.

☞ 이와 같은 경우 표제어는 남한어이고 뜻풀이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북남’ 또는 ‘북남검’이 아니라 ‘뜻수’, ‘뜻수검’ 항목으로 구분한다.

#1몽두리#2뜻수#3「2」『복』여자가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쓰던 것.#4「2」여자가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쓰던 것.#5남한 쓰임이 확인되어 남한 뜻풀이로 수정함.

#1몽두리#2용수#3「2」『머리에 뒤집어썼던 {몽두리를} 벗어제끼고 우증이 쪽으로 몸을 돌렸다.<늦새바람, 선대>§#4「2」『왕자 부인과 나인에게는 얼굴에 {몽두리를} 씌우게 하여 일본 군사들에게 여자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NDPAC031.304,박종화,임진왜란>§#5남한어 뜻풀이로 바꾸고 용례를 남한 용례로 수정함.

※ 몽두리(蒙頭里)「명」「1」『예』조선 시대에, 궁중에서 기녀가 춤출 때에 입던 옷. 보통 초록색 두루마기와 비슷한데, 어깨와 가슴에 수를 놓고 붉은 띠를 매었다. ≡몽두의. 「2」『복』여자가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쓰던 것. 『머리에 뒤집어썼던 {몽두리를} 벗어제끼고 우증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늦새바람, 선대>§「3」『복』‘몽두01(蒙頭)’의 북한어. 『{몽두리를} 쓰다.』§

○ 《조대》(2017)에는 1번 뜻풀이가 전날에 여자가 나들이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는 머리쓰개를 뜻하는 ‘몽도리의 비표준어’로 되어 있음. 《우리말샘》에 ‘몽도리’를 ‘몽두리002’의 북한어로 추가해야 함.

★② 다의어 중에는 ‘○○의 잘못’이면서 동시에 ‘○○’의 북한어로 뜻풀이가 올라 있는 표제어가 있다. 이 중에서 남한어 쓰임이 보이는 것은 표제어를 ‘표사검’으로 분류하여 표준어 사정을 검토하고 표준어로 바꿀 경우 동일한 북한어 뜻풀이를 삭제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③ 북한어를 남한어로 수정할 때에는 #4에 표제어(IC 분석 포함), 원어, 발음, 활용, 품사, 문형 정보, 문법 정보, 전문어 영역, 뜻풀이, 용례, 관련 어휘, 참고 어휘 등을 사전의 형식에 맞게 입력한다. 특히 뜻풀이는 유형별 뜻풀이 형식에 맞게 제시해야 하고, 북한어에서의 뜻풀이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를 살펴 만약 남한어에서의 쓰임과 차이가 있다면 뜻풀이를 조정하여 제시한다. 다만 뜻풀이를 조정할 때 집필자가 확신할 수 없어 전문가의 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5에 전문가 감수가 필요하다는 메모를 남긴다.

#1단선04#2북남#3%#4단선04(單選)「명」『정』‘단독 선거’를 줄여 이르는 말.『드디어 5.10 단독 선거는 강행되고 {단선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조리 경을 쳐야만 했다.<netc3108.296,김정한,슬픈 해후>/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밤잠 안 자고 {단선} 반대 운동을 한 일을 생각하니 얼굴이 뜨거워질 판이다.<NGYAA052.315,이병주,지리산>§#5말뭉치에 여러 예가 있어 남한어로 수정.

#1단독선거#2북남#3%#4단독^선거(單獨選舉)『정』일부 지역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선거.『마침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 일 년을 바라볼 무렵이었다.<NDNAA002.232,박완서,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5말뭉치에 여러 예가 보여 남한어 구로 수정함. 북한에서 ‘단독 선거’를 부정적으로 보아 풀이를 수정함.

※단선04(單選)「명」『복』『정』 =단독선거.

단독선거(單獨選舉)「명」『복』『정』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부 지역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선거. ≡단선04(單選).

○《우리말샘》에 남한어로 ‘단독 선거를 줄여 이르는 말로 등재되어 있음.

★④ 북한어의 뜻풀이에 한글 맞춤법 정보가 빠져 있을 때에는 ‘뜻수’로 분류하고 ‘㉠(문자표-347f)’ 표시를 한 후에 한글 맞춤법 정보를 넣어 준다.

#1다듬량#2뜻수#3%#4㉠다듬양.#5한글 맞춤법 정보 추가함.

★⑤ 같은 언어로 제시된 표제어이면서 남북한의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에 따라 표기가 다른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 정보를 넣어 주고 원어 자체가 달라서 표기가 다른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 정보를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어긋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뜻수검’으로 분류하여 내용과 해당 단어가 결합한 표제어들을 일괄적으로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1분콧스#2뜻수검#5‘㉠분콧스’가 현재 한글 맞춤법 정보가 들어 있으나 북한어 ‘콧스’는 독일어이고 남한어 ‘콧스’는 영어로, 언어가 다르므로 한글 맞춤법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없음. ‘콧스’가 결합한 표제어들 일괄적으로 검토하여 한글 맞춤법 정보 삭제.

○《우리말샘》에 ‘분콧스’의 북한어로 처리되어 있음.

#1분배플라로그라프법#2뜻수검#5현재 한글 맞춤법 정보가 없으나 ‘그래프’와 ‘그래프’는 원어는 같고 표기만 다른 것이므로 한글 맞춤법 정보를 넣어야 함. ‘그래프’가 결합한 표제어들 모두 한글 맞춤법 정보를 추가해야 함.

2. 원어

2.1. 원칙

1. 원어의 제시 범위, 제시 방법 등은 《우리말샘》의 원칙을 그대로 따른다.
2. 《우리말샘》에 제시된 원어 정보 중 명백한 오류는 수정하고 오류로 보이나 집필자가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토 사항으로 분류하여 메모를 남긴다.
3. 원어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도 수정 사항으로 분류하여 집필한다.(‘원추’, ‘원추검’으로 분류하지 않고 ‘원수’ 또는 ‘원검’으로 분류한다.)

2.2. 세칙

- ★3. 북한 한자어의 원어가 대응 남한어와 다른 경우 북한어의 한자는《조선말대사전》에 따른다.

○《조선말대사전》(2017)을 기준으로 함.

9. 뜻풀이

9.1. 원칙

1. 《우리말샘》의 모든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우리말샘》의 뜻풀이에 북한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뜻수’로 분류하여 뜻풀이를 남한어로 수정한다. 북한어 중에서 직접 뜻풀이가 되어 있는 표제어의 뜻풀이에도 원칙적으로 북한어를 쓸 수 없다.

#1도화돈#2뜻수#3떠돈의 하나.#4땃돈의 하나.#5‘떠돈’은 북한어임.

※ 도화-돈「명」「옛」떠돈의 하나.

- (16) ‘○○’의 잘못, ‘○○’의 옛말, ‘○○’의 북한어, ‘○○’의 방언과 같은 뜻풀이에서 ‘○○’은 형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에 형태가 아닌 기본 표제어가 쓰였을 경우에는 ‘뜻수’로 분류하여 수정한다.

2. 다의어의 뜻풀이

- ◆3) 다의어의 뜻풀이는 ‘표준어(일반어→전문어)→비표준어→방언→북한어→옛말’ 순으로 배열한다. 남한어끼리 묶어서 풀이해 주는 것이 층위에 맞기 때문에 배열을 ‘비표준어→방언→북한어’로 수정.결정하였다. 또한 옛말을 맨 뒤에 둔 것은 공시어→통시어로의 풀이 대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는 편찬지침Ⅱ p68-4-2. “2)고어의 뜻풀이를 북한어 뜻풀이보다 먼저 배열한다.”를 수정한 것이다.

7. 북한어의 뜻풀이

- 1) 북한어의 뜻풀이가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호응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지나치게 장황할 경우에는 의미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한다. 다만 반드시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를 확인한 후 수정한다.

#1간접도급지불제#2뜻수#3직접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 결과를 간접적 방법으로 도급 생활비를 계산하는 도급 지불 제도.#4직접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 결과에 대해, 간접적 방법으로 도급 생활비를 계산하는 도급 지불 제도.#5《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도 이와 같지만, 통사적으로 호응이 되지 않는 문장이므로 뜻풀이를 수정함.

※ 간접도급지불제(間接都給支拂制)「명」 『복』『경』직접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 결과를 간접적 방법으로 도급 생활비를 계산하는 도급 지불 제도.

○ 《우리말샘》에 ‘간접도급지불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되어 있음.

「명사」 「북한어」 『경제』 직접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 결과에 대해, 간접적 방법으로 도급 생활비를 계산하는 도급 지불 제도.

2) 북한어 표제어에 대해 똑같은 뜻풀이를 지닌 남한어가 있을 경우에는 ‘뜻수’로 분류하고 ‘○○의 북한어’와 같은 형식으로 뜻풀이를 수정한다. 이때 관련된 단어가 있을 경우, 모두 수정한다.

#1말림터#2뜻수#3무엇을 말리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춘 곳.#4‘건조장01’의 북한어.#5회의 결정 사항. 동일한 의미임.

※ 말림터「명」 『복』 무엇을 말리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춘 곳.
건조-장01(乾燥場)「명」 물건을 건조하기 위하여 특별한 장치를 한 곳.◻김 {건조장}/오징어 {건조장}.§

○ 《우리말샘》에 ‘말림터’는 ‘건조장’의 북한어로 처리되어 있음.

3) ‘북남검’으로 분류하여 남긴 표제어 중에서 표준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표제어는 ‘표사검’ 항목을 따로 만들지 않고 #5에 표준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메모를 남긴다.

★4) 독자적으로 뜻풀이되어 있는 북한 전문어의 경우, 유사한 뜻풀이를 지닌 남한어가 있을 때, 직접 자료를 확인하여 ‘○○의 북한어’로 수정하거나 ‘뜻수검’으로 분류하여 ‘○○의 북한어’로 뜻풀이 수정 검토 바란다는 메모를 남긴다.

#1롯데마광기#2뜻수검#5남한어 ‘로드 밀’과 동일한 의미로 보임. 전문어 감수 후 “로드 밀”의 북한어로 뜻풀이 수정 검토 바람.

#1롯데분쇄기#2뜻수검#5남한어 ‘로드 밀’과 동일한 의미로 보임. 전문어 감수 후 “로드 밀”의 북한어로 뜻풀이 수정 검토 바람.

※ 롯데마광기(rod磨鑢機)「명」 『복』『공』=롯데분쇄기. ⚙로드 마광기.

롯데분쇄기(rod粉碎機)「명」『복』『공』여러 개의 로드가 들어 있는
원통이 돌아가면서 광석을 필요한 크기대로 잘게 부수는 기계. 선광장(選鑛場)의 일차 분
쇄에 주로 쓴다. ≡롯데마광기. ≡롯데 분쇄기.

○《우리말샘》에 ‘롯데마광기’와 ‘롯데분쇄기’ 모두 ‘로드 밀’의 북한어로 처리되어
있음.

[부록 2] 우리말샘 북한어 관리 지침

0. 지침 개요

1) 목적

이 지침은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의 북한어를 등록하거나 기구축한 북한어를 정비할 때 기준이 되는 원칙과 세칙을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기본 원칙

첫째,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의 체계에 따른다.

둘째, 《우리말샘》의 성격과 목적에 합당하게 작성한다.

셋째, 《조선말대사전》(2017)을 북한어 기술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넷째, 남북한 언어의 변화에 따라 북한어 지침을 수정한다.

3) 2023년 지침 정비

① 정비 대상

2012년 《우리말샘》 북한어 관리 지침

2008년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지침

2023년 ‘북한어 집필 세부 지침’

② 정비 방법

세 지침을 통합하여 체계를 맞추고 예시를 수정한다.

단, 개정 지침에 제시된 북한어의 남한어 처리 부분은 통합하지 않고 부록으로 둔다.

4) 목차

I. 표제어

II. 원어

III. 발음 . 활용

IV. 품사

V. 문형 정보

VI. 뜻풀이

VII. 용례

VIII. 관련 어휘

IX. 어원

X. 관용구/속담

부록

띄어쓰기

북한어의 남한어 처리

5) 정비 이력

2023년 7월~12월 북한어의 사전 정보 집필 및 지침 정비 사업(연구 책임자: 이선
웅)

I. 표제어

1. 선정

1. 남한 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고 《조선말대사전》에만 실려 있는 표제어를 북한어로 간주한다. 선정된 북한어의 하위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남한 표제어와 표기법이 다른 어휘

남·북한 표기법의 차이에 따라 뜻은 같으나 표기가 달라진 어형

규률 「명」『북』 ‘규율’의 북한어.

녀성01 「명」『북』 「1」 ‘여성01(1)’의 북한어. 『녀성들은 사회 발전에서 수레의 한쪽 바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논다.《선대》/방 안에서는 젊은 녀성의 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고병삼, 평양은 노래한다>> §「2」『어』 ‘여성01(2)’의 북한어.

2) 남한 표제어와 형태가 다른 어휘

남한 대응어와 뜻은 같으나 형태가 다른 어형

단목 「명」『북』 ‘젤리’의 북한어.

3) 남한 표제어와 형태와 뜻이 다른 어휘

남한 대응어가 없는 어휘

가름떠보다 「동」『북』 미운듯 가로 칩떠보다. …

밥공장 「명」『북』 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식물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서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는 공장.

4) 다듬은 말

북한의 말다듬기 사업의 결과인 다듬은 말 중에 《조선말 대사전》(2017)에서 다루고 있는 예를 기준으로 한다.

마다라스(matras) 「명」『북』 ‘매트리스’의 북한어. ‘침대깔개’로 다듬음.

침대깔개 「명」『북』 ‘매트리스’의 북한어.

☞ 《조선말대사전》(2017)에서 ‘=>’로 표시된 것 중에 기존에 다듬은 말 정보가 있는 것만 인정한다.

5) 형태는 같으나 뜻풀이의 일부가 다른 어휘

대응되는 남한어와 형태가 같으나 뜻풀이의 일부가 남한 사전에는 없는 어휘

파악 「명」 「1」손으로 잡아 줌. 「2」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앎. 『인원 파악/ ... 「3」『복』어떤 일이 현실적 의의도 있고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그 일을 할 자신을 가짐. 『관리 위원장은 이제는 우리 농장에서도 양과 염소가 파악이 있다고 하면서 대대적인 집단 사육을 발전시킬 전망 계획을 내놓았다.』 『선대』 § 「4」『복』어떤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임무나 책임을 맡길 수 있는 준비된 일꾼으로 믿음을 가지게 됨. 『그는 수많은 어렵고 복잡한 대상 설계를 책임적으로 훌륭히 수행한 파악이 있는 설계 기사였다.』 『선대』

☞ 이 경우 다의어로 처리한다.

6) 형태와 의미가 같으나 사용역이 다른 어휘 남한어는 전문어인 반면 북한어는 일반어로 쓰인 어휘

목^ㅅ굽이 『의학』척추에서 목뼈 부위가 앞으로 불룩하게 굽은 부분. 『우리말샘』
목굽이 「명」 『복』 목에서 턱까지 올라오는 부분.

7) 북한어에만 있는 어근적 단어

신기무쌍 『복』 '신기무쌍하다'의 어근.
※ 신기무쌍하다: ㉿ 신기스러운것이 비길데 없다.

8) 관용구와 속담은 단독 표제어로 한다.

먼지벼락 「명」 『복』 “뜻풀이.” 『앞쪽에서는 ~ 그녀석 심술에 {먼지벼락}을 맞았군.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 ▼먼지벼락(을) 맞다 ▼ 뜻밖에 갑자기 많은 먼지를 뒤집어 쓰다.
=>

먼지벼락 「명」 『복』 “뜻풀이.” 『앞쪽에서는 ~ 그녀석 심술에 {먼지벼락}을 맞았군.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

먼지벼락(을) 맞다 뜻밖에 갑자기 많은 먼지를 뒤집어 쓰다.

2. 북한어 말뭉치와 최신 주요 사전에서 북한어의 쓰임이 확인되는 말도 선정한다.

1)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말은 우선 선정한다.

고기접뽕 「명」 『복』 '햄버거'의 북한어.

왕다래 「명」 『복』 '키위'의 북한어.

혈분이 「명」 『복』 '피붙이'의 북한어.

☞ 북한의 신문말뭉치, 학술사전, <조대>(2017) 등에 등재된 말.

2) 전문어, 속어 등도 그 쓰임이 명확하면 선정한다.

결치기 「명」 『북』 『체육』 바둑에서, 구석에 있는 상대방의 돌이 굳히기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

☞ 북한의 신문말뭉치와 <조대>(2017)에 등재된 말.

통보문 「명」 『북』 『정보.통신』 ‘문자007’의 북한어.

☞ <조대>(2017)에 등재된 말.

3. 북한 사전에만 올라 있는 말이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표제어로 올리지 않는다.

1) 실제 내용이 북한 특유의 것이 아닌 경우

칠척장검, 칠칠야밤

☞ ‘칠척장검’은 북한 사전에만 있지만 구구성에 해당하므로 삭제. ‘칠칠야밤’은 ‘칠칠’과 ‘야밤’ 모두 남한 사전의 표제어이고 ‘칠칠야밤’에 북한 특유의 뜻이 없으므로 삭제.

2)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

전기절 김일성이 전기 노동자를 방문한 것을 기념하는 날.

3) 확인이 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 김일성이 주도했다는 항일 투쟁 따위

간삼봉전투: 1937년 김일성의 지휘로 일본군과 벌인 전투.

흥기하전투: 1940년에 북한군이 일본군과 벌인 전투

4) 북한어 전문어로 내용의 이해가 어렵거나 구일 가능성이 높은 것

2. 표기

2-1. 일반 원칙

4. 북한어는 《조선말대사전》의 표기대로 기호를 쓰지 않는다.³⁾

1) 《표준》에서 북한어와 남한어가 다의어로 처리된 경우일지라도, 《우리말샘》은 각각의 의미 단위가 하나의 표제어를 이루므로, 북한어는 표제어를 분석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따라, 표제어에서 ‘-’을 삭제하고 붙여서 반영한다. 예) 정예롭다002, 맨송맨송하다005 등.

2) 《표준》에서 북한어와 남한어가 다의어로 처리된 ‘ㅅ’의 경우 북한어는 ‘ㅅ’을 삭제하여 붙이고 품사는 ‘품사 없음’에서 ‘명사’로 수정하여 반영한다. 예) 원료ㅅ

3) 장절 구분과 그 순서는 《우리말샘》 북한어 관리지침(2012/2023)에 따른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2000)의 구조와 체계를 준용한 것으로, 지침 간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번호를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어 지침만 발췌하여 제시되었으므로 항목의 번호가 순서대로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추가된 내용은 기존의 지침에 이어 배열하였다.

기지001/원료^기지002, 원료^기지003 등.

2-1. ‘-’

2. 북한어는 붙임표를 이용하여 표제어를 분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여 분석을 유지한다.

- 1) 어미·조사 등과 같은 북한어의 개별 문법 형태소의 경우 표제어에서 ‘-’을 유지한다. 예)-기요007.
- 2) 《우리말샘》에서 남한어와 북한어가 다의어인 경우에 문법 형태소를 일관되게 보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을 삭제하지 않는다. 예)-르가001/-르가002
- 3) ‘~줄어든 말.’로 풀이된 북한어의 경우, ‘-’의 분석은 유지하고, 품사는 ‘품사 없음’을 따른다. 예)-계022.

3. 배열

3-1. 일반 원칙

《표준국어대사전》 집필 지침에 따른다.

3-2.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3) 표준어와 북한어는 동음이의어로 처리하여 분할 배열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는 다의어로 처리한다.

가두다01 「동」【…을 …에】 「1」사람이나 동물을 벽으로 둘러싸거나 울타리가 있는 일정한 장소에 넣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다. 『송아지를 우리에 {가두다}/죄인을 옥에 {가두다}』 § 「2」물 따위를 일정한 곳에 괴어 있게 하다. 『논에 물을 {가두다}』 §

가두다02 「동」『북』「1」펼었던 팔다리를 오그리다. 『다리를 {가두고} 앉다. <<선대>> § 「2」날짐승이 펼었던 날개를 접어 붙이다. 『한번 대공에 솟은 어린 소리개더러 풀섶에 앉아 있으라 하여 어찌 펼쳤던 나래를 {가두랴!} <<조기천 선집, 선대>> § 「3」흐리멍덩해졌거나 풀렸던 정신이나 마음을 다잡다. 『정신을 {가두고} 살피다. <<선대>> §

가까이-하다 「동」 「1」【(…과)】 【…을】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가까이『I』(3). 『그는 새로 이사 와 이웃과 {가까이하려고} 노력했다./그는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결코 {가까이한} 적이 없다./그 두 사람이 서로 {가까이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 … 「3」『북』어느 지점에 접근하다. 『차가 평양을 {가까이하면서} 속도를 늦추었다. §

동지05 同志 「1」목적이나 뜻이 서로 같음. 또는 그런 사람. ≍사우06(社友)(3). 『{동지가} 되다/{동지를} 만나다/자네의 {동지가} 몇 사람이나 되는가?/과거에는 적이었던 포로들이 지금은 자기편을 등지고 우리의 {동지로} 변해 버렸다. <<홍성원, 옥이오>> § 「2」『북』이름 아래 쓰여 존경과 흠모의 정을 나타내는 말.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다의어로 처리한다.

흐늘 「1」‘흐늘거리다’의 어근. 「11」 「부」 『복』 「1」 힘없이 늘어서 느리게 한 번 흔들리는 모양. 「2」 김, 연기, 아지랑이 따위가 피어오르는 모양. 「3」 물결 따위가 흥겹게 한 번 굽실하는 모양.

☞ ‘흐늘’의 부사적 용법은 북한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아 ‘흐늘거리다’의 어근인 ‘흐늘’을 추가한다. 만약 ‘흐늘’의 부사적 용법이 남한에서도 가능하다면 부사 ‘흐늘’이 어근이 되므로 ‘~의 어근’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4. 단어별 등재 원칙

4-9. 계열 어휘

63. 시, 군, 읍 표제어

3) 북한의 행정 구역명

가) 현존하는 군과 시

평양특별시: 강남군, 중화군, 상원군, 강동군

남포직할시: 용강군

개성직할시: 개성시, 개풍군, 판문군, 장풍군

평안남도: 평성, 순천, 안주, 개천, 덕천, 대동군, 온천군, 증산군, 평원군, 문덕군, 성천군, 숙천군, 영원군, 북창군, 맹산군, 양덕군, 회창군, 신양군, 대흥군

평안북도: 신의주, 구성, 피현군, 용천군, 럽주군, 철산군, 동림군, 선천군, 광산군, 정주군, 운전군, 박천군, 영변군, 구장군, 향산군, 운산군, 태천군, 천마군, 의주군, 삭주군, 대관군, 창성군, 동창군, 벽동군, 신도군

자강도: 강계, 만포, 희천, 장강군, 화평군, 낭림군, 시종군, 자성군, 중강군, 위원군, 초산군, 우시군, 고평군, 송원군, 성간군, 전천군, 동신군, 룡림군

량강도: 해산, 김정숙군, 보천군, 삼지연군, 백암군, 갑산군, 풍서군, 김형권군, 김형직군, 삼수군, 운흥군, 대흥단군

황해남도: 해주, 벽성군, 강령군, 용진군, 태탄군, 장연군, 룡연군, 삼천군, 송화군, 과일군, 은률군, 은천군, 안악군, 신천군, 재령군, 신원군, 봉천군, 배천군, 연안군, 청단군

황해북도: 사리원, 송림, 황주군, 연탄군, 봉산군, 은파군, 린산군, 서흥군, 수안군, 연산군, 신평군, 곡산군, 신계군, 평산군, 금천군, 토산군

함경남도: 함흥, 신포, 단천, 함주군, 낙원군, 정평군, 금야군, 고원군, 요덕군, 장진군, 부전군, 영광군, 신흥군, 흥원군, 북청군, 덕성군, 이원군, 허천군

함경북도: 청진, 김책, 나진, 회령, 무산군, 경성군, 길주군, 화대군, 명천군, 화성군, 어랑군, 연사군, 온성군, 새별군, 은덕군, 선봉군, 부령군

강원도: 원산, 문천, 천내군, 안변군, 고산군, 통천군, 고성군, 금강군, 창도군, 김화군, 회양군, 세포군, 평강군, 철원군, 이천군, 판교군, 법동군

나) 광복 이전에 존재했던 북한 행정 구역명: 군의 경우 그의 군청 소재지도 등재.

4) 뜻풀이 유형

나) 북한 행정 구역명의 경우, 모든 표제어에 있는 「북한어」표지를 떼어 남한어로 처리한다.(20190306 제1차 국어사전 정보보완토론회). 그리고 광복 이전의 행정 구역명이나 광복 이후에 신설된 행정 구역명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서술 방식으

로 뜻풀이하되 뜻풀이 맨 앞에 ‘광복 이후 북한이 신설한 도(군/시)의 하나.’로 뜻풀이를 시작한다.

(1) 광복 이전에 존재하던 행정 구역

연백-군 延白郡 『명』 『지명』 황해도 동남쪽에 있는 군. 전형적인 북고남저(北高南低)의 배치를 이루고, 쌀·보리·콩 따위의 농산물과 수산물, 광산물이 풍부하다. 명승지로 남대지(南大地), 연성 대첩비(延城大捷碑), 기운정(起雲亭), 탁영대(濯纓臺) 따위가 있다. 군청 소재지는 연안(延安), 면적은 935.61km².

(2) 광복 이전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행정 구역

운산-군 『명』 『지명』 평안북도 중앙에 있는 군. 잡곡이 주로 나며, 광산물이 풍부한데 특히 금이 유명하다. 백골산(白骨山), 동림산(東林山), 반야사(般若寺) 따위의 명승지가 있다. 군청 소재지는 운산, 면적은 819.67km².

(3) 광복 이전부터 북한의 행정 구역명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나 분단 이후, 북한에서 폐지, 신설, 재편성된 구역명 등에 대해서는 뜻풀이에 ‘…(상위 행정 구역명) 소재지, 면적은 ….’ 등에 대한 정보를 보여 주고, ‘북한에서는 ○○○○년(광복 이후) 행정 구역 개편 때…’의 부가 설명을 덧붙인다.

개성007 『명』 『지명』 경기도 서북부에 있는 시. 인삼의 명산지이며, 예로부터 보부상이 유명하다. 남대문, 만월대, 선죽교, 송양 서원 따위의 명승지가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크낙새가 서식한다. 면적은 50.366km². 북한에서는 1955년 행정 구역 개편 때 개풍군의 영남면과 영북면을 흡수하여 개성직할시의 중심 도시로 재편성하였다.

희천-시002 『명』 『지명』 평안북도의 자강도 남쪽에 있는 시. 면적은 998km². 북한에서는 1967년 행정 구역 개편 때 희천읍에서 시로 승격되었다.

(4) 광복 이후에 신설된 행정 구역

자강-도 慈江道 『명』 『지명』 광복 이후 북한이 신설한 도의 하나. 1949년 1월 평안북도의 강계군·자성군·후창군·위원군·초산군·회전군과 함경남도의 장진군 일부를 합하여 신설하였다. 북부 내륙 산간 지대로서 대부분의 지역이 산림고원으로 임업과 공업이 발달하였다. 현재 3개 시와 15개 군으로 되어 있다. 도청 소재지는 강계.

성간-군 成干郡 『명』 『지명』 광복 이후 북한이 신설한 군의 하나. 자강도에 속하여 있으며 1952년 12월 행정 구역 개편 때 전천군의 성간면·간북면의 전체 이(里)와 장강군 공북면의 1개 이를 합쳐서 신설하였다.

창도-군 昌道郡 『명』 『지명』 광복 이후 북한이 신설한 군의 하나. 강원도에 속하여 있으며 1952년 12월 행정 구역 개편 때 김화군 창도면·원북면·금성면·통구면·임남면·금북면, 양구군의 수입면, 회양군의 사동면 일부를 합하여 신설하였다.

단천-시 端川市 『명』 『지명』 광복 이후 북한이 신설한 시의 하나. 함경남도에 속하여 있으며 1952년 일부 지역을 광천군과 허천군에 넘겨주었으나, 그 후 광천군이 폐지되자 이 지역을 다시 통합하였다. 1982년 8월 군(郡)에서 승격되었다. (동의어)단천003.

☞ 다만1 북한의 행정 구역명이 두음법칙 등이 적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남한의 어문 규범 표기 방식과 다른 경우에는 그 표제어의 뜻풀이 맨 뒤에 부가 풀이로 ‘⇒ 규범 표기는 ‘OOO’이다.’를 제시한다(20190821 제11차 국어사전 정보보완토론회).

라선-특별시 羅先特別市「명」「지명」광복 이후 북한이 신설한 시의 하나. 북한의 동북부에 있으며, 도(道)급인 직할시에서, 2010년 1월에 특별시로 승격한 곳이다. 1945년 광복 당시의 나진시와, 아오지읍을 제외한 경흥군을 합친 지역이다. ⇒ 규범 표기는 ‘나선특별시’이다.

☞ 다만2 두음법칙 등이 반영되지 않은 북한의 지명이라고 하더라도 남한에서 두음법칙 등이 반영된 표기로 쓰임이 확인되면 이를 별도의 표제어로 등록하되 뜻풀이는 북한에 있는 지명의 뜻풀이와 똑같이 풀이하기로 한다. 과거의 뜻풀이 형식의 하나였던 ‘~의 북한어’란 뜻풀이 방식으로 제시하지 않는다.(20191106 제14차 국어사전 정보보완토론회)

나선-특별시 羅先特別市「명」「지명」광복 이후 북한이 신설한 시의 하나. 북한의 동북부에 있으며, 도(道)급인 직할시에서, 2010년 1월에 특별시로 승격한 곳이다. 1945년 광복 당시의 나진시와, 아오지읍을 제외한 경흥군을 합친 지역이다.

(5) 명칭은 동일하지만 지칭 지역은 다른 행정 구역

북청002 「명」「지명」함경남도 동북부에 있는 읍. 남대천 유역에 있어서 쌀, 콩, 보리 따위 농산물의 집산지이다. 북청군의 군청 소재지이다.

북청-군001 「명」「지명」함경남도 동북부에 있는 군. 농업과 수산업, 임업 따위가 발달하였다. 명승 고적으로 동정 약수(東井藥水), 한무탑(漢武塔) 따위가 있다. 군청 소재지는 북청, 면적은 2,385km².

북청-읍001 함경남도 동북부에 있는 읍. 남대천 유역에 있어서 쌀, 콩, 보리 따위 농산물의 집산지이다. 북청군의 군청 소재지이다.

☞ 행정 구역의 단위를 떼 ‘북청’은 ‘북청군’을 지칭할 수도 있고 ‘북청읍’을 지칭할 수도 있다. 지칭하는 행정 구역에 맞게 동의어를 맺고 뜻풀이를 제시해야 한다. 위의 예시에서 ‘북청002’은 ‘북청읍001’과 동의 관계가 된다.

(6) 참고로 북한에 있는 구체 지명의 뜻풀이에는 광복 이전의 지명을 따르도록 한다.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봉-산004 「명」「지명」함경북도 회령군 보을면과 창두면 사이에 있는 산. 높이는 1,330미터.

☞ ‘회령군’은 지금 ‘회령시’로 바뀌었으나 과거의 지명대로 그냥 ‘회령군’으로 둔다.

5. 전문어

5-1. 일반 원칙

5-1-1. 일반어에 대한 전문어의 정의

5. 어떤 표제어를 북한 사전에서만 전문어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표제어의 뜻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일반어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남한에서 쓰는 의미와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의어로 처리한다.

망레절 「명」 ‘인터넷 예절’의 북한어. ⇒규범 표기는 ‘망예절’이다.

☞ 망레절:《정보》컴퓨터망에서 사용자들이 지켜야할 레절. <조대>(2017)

5-1-2. 전문어의 영역 구분

3. 북한어의 전문어는 우리 사전에서 설정한 전문어의 범주에 영역별로 포함시킨다.

※ 전문 분야는 아래와 같다.

가톨릭, 건설, 경영, 경제, 고유명 일반, 공업, 공예, 공학 일반, 광업, 교육, 교통, 군사, 기계, 기독교, 농업, 동물, 매체, 무용, 문학, 물리, 미술, 민속, 법률, 보건 일반, 복식, 복지, 불교, 사회 일반, 산업 일반, 생명, 서비스업, 수산업, 수의, 수학, 식물, 식품, 심리, 약학, 언어, 역사, 연기, 영상, 예체능 일반, 음악, 의학, 인명, 인문 일반, 임업, 자연 일반,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치, 종교 일반, 지구, 지리, 지명, 책명, 천문, 천연자원, 철학, 체육, 한의, 해양, 행정, 화학, 환경

4. 전문어 영역은 남한 대응어에 따른다.

1) 남한 대응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응어의 전문어 영역대로 집필한다.

한계양수량 (수리 → 건설)

2) 북한어 표제어가 일반어이더라도 남한의 관련 어휘가 전문어이면 전문어로 집필한다.

방어대: 일정한 지역이나 대상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부대.

→ 방어대: 『북』《군사》일정한 지역이나 대상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부대.

※ <조대>(2017)에 ‘방어대’는 일반어로 처리되어 있으나, 《우리말샘》에 ‘공격대’, ‘공격대원’, ‘공격^대형’이 모두《군사》전문어로 제시되어 있음에 따라 군사 전문어로 봄.

5-2. 영역별 어휘 선정 기준

5-2-7. 교통

1. 표제어의 범위

3) 터널

넓은철길차굴 「명」 「북」 『교통』 넓은 철길이 지나가는 곳에 건설한 굴.

4) 교통 신호

갈길표식 「명」 『북』 『교통』 열차가 지나는 선로와 방향을 알리는 표시.

6) 역. 특히 여러 가지 유형의 역을 가리키는 북한어 표제어

중간역 「명」 「북」 『교통』 기술역과 기술역 사이에 있는 역. 곧 열차들이 어김과 바뀔 따위의 열차 작업, 화물 작업, 여객 봉사를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가진 역을 이르는데, 직렬식 중간역과 병렬식 중간역이 있다.

☞ 구체적인 역 이름은 수록하지 않는다.

7) 철길의 뜻으로 북한에서 쓰는 외래어 ‘레루’를 포함한 표제어

짧은레루 「명」 「북」 『교통』 구배진 철길의 안쪽에 깔기 위하여 표준길이의 레루보다 짧게 만든 레루.

레루퍼개 「명」 「북」 『교통』 레일을 퍼거나 구부리는 기구. 유압식과 나사식이 있다.

9) 영역 조정 : 『교통』 영역에는 육상 교통만 포함되기 때문에 해상 교통이나 항공로 관련 표제어들은 해당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

나) 항공, 선박, 해상 교통에 관련된 표제어

견인비행 「명」 「북」 『교통』 비행기가 글라이더 따위를 이끌며 날아감. 또는 비행기가 글라이더 따위를 끄는 일.

⇒ 「명」 「북」 『항』 …

다) 항공이나 해상 교통에 쓰이는 여러 가지 신호

뜯표식 「명」 『북』 『교통』 ‘부표05(2)’의 북한어.

⇒ 「명」 「북」 『해』 …

만재잠김선 「명」 「북」 『교통』 ‘만재 흡수선’의 북한어.

⇒ 「명」 「북」 『해』 …

5-2-8. 군사

1. 표제어의 범위

3) 북한의 군대 이름과 계급명, 편제는 등재를 원칙으로 한다.

경리군관 「명」「북」「군」 '경리 장교'의 북한어.

5-2-28. 언론

2. 표제어 삭제 기준

1) 남한의 전문어와 다만 관형격 조사의 개입 여부만 차이 나는 형태의 북한 전문어는 북한어로 인정하지 않고 삭제한다.

5-2-30. 역사

1. 표제어의 범위

1) 내용

라) 관복 및 그 장식품, 기타 공무와 관련된 물건

백라-관 「명」「역」 고구려에서, 임금이 쓰던 모자.

인-끈 「명」 1) 인폭지에 꿰 끈. 2) 「역」 병권(外殿)을 가진 무관이 발병부(發兵符) 주머니를 매어 차던, 길고 넓적한 녹비 끈.

도리-옥 「명」「역」 조선 시대에, 정일품과 종일품 벼슬아치의 관모에 붙이던 옥관자(玉貫子).

복두 「명」「역」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흥패를 받을 때 쓰던 관(冠). 사모같이 두 단(段)으로 되어 있으며, 위가 모지고 뒤쪽의 좌우에 날개가 달려 있다.

선전-표신 「명」「역」 조선시대에, 나라에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선전관청에서 발급하던 부신(符信). …

석포 「명」「역」 돌을 멀리 보내는 포.

☞ 일반 복식이나 생활 용품은 일반어로 처리

☞ 유물, 유적 및 신석기 이전의 문화 양식은 「역사」의 영역으로 처리

사아천정 四阿天井 「명」「북」「역사」 네 벽을 경사지게 좁혀 올린 무덤 천장. …

5-2-49. 화학

2. 표제어 삭제 기준

1) 남한의 전문어와 다만 관형격 조사의 개입 여부만 차이 나는 형태의 북한 전문어는 북한어로 인정하지 않고 삭제한다.

6. 주표제어.부표제어

☞ 《우리말샘》에서는 주표제어와 부표제어의 구분이 없어졌으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던 주표제어와 부표제어 정보는 《우리말샘》에도 남겨 두었지만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4. '-하다, -되다, -이/히, -적, -거리다, -대다, -이다'가 결합된 파생어의 어기가 표제어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어, 방언, 북한어는 '-하다, -되다, -이/히, -적, -거리다, -대다, -이다'가 결합된 파생어를 주표제어로 본다. 이때 외국어, 방언, 북한어의 어기를 따로 주어휘로 등재하지 않는다.

로맨틱-하다 「형」 …

로맨틱-하다 「형」 => 로맨틱.(×)

낯낯-하다03 「형」 『방』마음이 흡족하여 얼굴 표정이 환하다(전남).

낯낯-하다03 「형」 『방』 => 낯낯.(×)

II. 원어

2. 제시 방법

2-4. 언어명 제시

1. 원어의 언어명을 밝힌다. 언어명은 '<>' 안에 그 약호를 밝히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 편집시스템에 있는 언어명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과 언어명이 생성된다. 언어명은 약어로 보여 준다. 남한 표제어의 북한식 한자는 한자를 선택하고 <북>을 원어란에 넣어 보여 준다. 기타 언어일 경우 기타어를 선택하고 <> 안에 언어명의 첫 글자를 넣어서 원어란에 적는다.

언어명을 직접 적는 것은 북한어 한자, 기타어 2가지 경우이다.

	언어명	기타		언어명	기타
1	고유어		19	아랍어	
2	한자	남한 표제어의 북한식 한자는 <북>이라고 보여 준다.	20	에스파냐어	
3	안 밝힘	인.지명(한자 제외), 고유 명사	21	이탈리아어	
4	영어		22	인도네시아어	
5	그리스어		23	일본어	
6	네덜란드어		24	중국어	
7	노르웨이어		25	체코어	
8	독일어		26	타이어	
9	라틴어		27	터키어	
10	러시아어		28	페르시아어	

	언어명	기타		언어명	기타
11	루마니아어		29	포르투갈어	
12	말레이어		30	폴란드어	
13	몽골어		31	프랑스어	
14	베트남어		32	헝가리어	
15	불가리아어		33	히브리어	
16	산스크리트어		34	힌디어	
17	세르보크로아트어		35	기타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언어.
18	스웨덴어				

4. 북한어 외래어의 경우 《조선말대사전》에 수록된 대로 원어와 언어명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 표제어가 남한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고 남한 사전의 처리가 타당하다면 남한 사전의 원어 제시를 따른다.

나팜 napalm 「명」 「복」 『생』 ‘네이팜’의 북한어. ☞ 조선말 대사전에 발음이 변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어를 그대로 제시하였다.

농촌부르쥬아 農村<프>bourgeois 「명」 「복」 『사』 농촌에서 토지를 가지고 무산자를 고용하여 착취하는 계급. 부농이나 농장주를 이른다. * ‘농촌 부르주아’. ☞ 《조선말대사전》에는 원어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우리말샘》에 따라 원어를 제시함.

5.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외래어의 순화 대상어가 북한어로도 등재되어 있으면 원어 및 어원 제시 방법은 남한어에 준한다.

빠데 ←pate 「명」 『화』 「1」 표면에 생긴 흠집을 메울 때 쓰는 아교풀 같은 것. 「2」 『복』 ‘퍼티’의 북한어. [putty] ☞ [putty(영)] 《조선말대사전》처리 방식.

6. 외래어와 한자어가 포함된 북한어는 《우리말샘》의 원어 제시 방식대로 고유어를 포함하여 한자어의 어원을 제시한다.

얇은레슬링 얇은wrestling 「명」 「복」 『체』 ‘그라운드 레슬링’의 북한어. ☞ [-wrestling 《조선말대사전》 처리 방식

2-5. 한자 제시 방법

2. 주의해야 할 한자

3) 북한어 한자 원어 처리 문제

북한 한자어의 원어가 대응 남한어와 다른 경우 북한어의 한자는《조선말대사전》에 따른다.(2008년 개정 시 추가된 지침이다.)

2-6. 비표준어의 원어

1. 잘못된 한자 독음도 원어 정보를 보인다. 일부가 변한 경우에는 한자어 음이 명확한 것만 원어를 제시한다.

가자-첩 加資帖 「명」『역』 가자를 내릴 때 주는 교지(教旨)를 이르던 말. ⇒규범 표기는 ‘가자체’이다.

지이-산 智異山 「명」『지명』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걸쳐 있는 산. 소백산맥 남쪽에 있는 산으로 청학동(靑鶴洞), 칠불암(七佛菴) 따위가 유명하다. 국립 공원의 하나이다. 최고봉인 천왕봉(天王峯)의 높이는 1,915미터. ⇒규범 표기는 ‘지리산’이다.

무주002 무酒 「명」재강에 물을 타서 뿌영게 걸리낸 탁주. ⇒규범 표기는 ‘모주’이다.

짜피001 짜彼「부」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또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규범 표기는 ‘차피’이다.

☞ 비표준어와 북한어 뜻풀이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북한어의 원어를 보이는 의미에서 원어를 넣는다.

차간002 車間 「명」기차나 버스 따위에서 사람이 타는 칸. ⇒규범 표기는 ‘차간’이다.

차간003 車間 「명」『복』 차간’의 북한어.

2-8. 발음 차이

2. 한자어

3) 남한어와 북한어가 의미는 같은데 한자만 다른 표제어는 하나의 표제어로 보아 한자를 병기한다. 이는 별도의 입력 방식을 따른다.

예) 협차(夾叉/挾差)

☞ 외래어 원어의 국명 표시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기타 참고] 우리말샘 한자 음훈 정보 보완 방식(순위별 적용)

1. <존한자사전> 존말닷컴(<http://www.zonmal.com>)의 한자 음훈을 기본 적용
* <존한자사전>은 <강희사전>을 기반으로 작성됨.
2. 위의 자전에 없는 한자 음훈은 다음 자전을 순서대로 참고하여 적용
 - 1) <(敎學)大漢韓辭典> 교학사, 2004
 - 2)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1987
 - 3) <漢韓大辭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0
3. 1~2에서 음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자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적용

Ⅲ. 발음·활용

1. 발음

1-1. 발음 규범 및 표시 원칙

1-1-2. 표시 원칙

2. 발음 표시는 고어, 방언, 비표준어 및 북한어 따위를 제외한 현대 표준어에 한하여 제시한다.

3. 북한어는 《우리말샘》의 원칙에 따라 발음을 제시하지 않는다.

2. 활용 정보에서의 발음

2-2.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

2-2-1.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 적용 범위

1. 체언과의 결합형은 고어과 방언, 비표준어 및 북한어 따위를 제외한 현대 표준어(은어, 비어, 속어, 원말 따위 포함)에 한하여 제시한다. 그러나 외래어, ‘^’기호로 연결된 표준어, 문법 형태, 어근 따위는 제외한다.

	현대 표준어·원말·비어·속어·준말 (줄어든 말, 품사가 주어진 경우에 한함)	고어·외래어·방언·북한어·비표준어·^ 기호로 연결된 표준어·문법형태·어근(·인명)· 품사가 없는 줄어든 말
제시 유무	○	×

2-3. 용언의 활용형

2-3-1. 활용형의 적용 범위

7. 방언과 북한어, 비표준어는 활용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다. 체언의 경우 외래어에 활용 정보를 제시하지 않지만, 외래어와 하다/되다가 결합된 용언은 활용 정보를 제시한다.

IV. 품사

1. 품사 정보란에 제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품사는 단어의 지위를 가지는 표제어에 대해서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기서는 편의상 「어미」, 「접사」도 제시한다.

「명」(=명사), 「명」(의존)(=의존 명사), 「대」(=대명사), 「수」(=수사), 「동」(=동사), 「형」(=형용사), 「동」(보조)(=보조 동사), 「형」(보조)(=보조 형용사), 「관」(=관형사), 「부」(=부사), 「감」(=감탄사), 「조」(=조사), 「어미」, 「접사」

구관04 舊言 「명」 먼저 재임하였던 벼슬아치. …

것01 「명」의 「1」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 ◀▶ 낡은 {것}/ …

-구나03 「어미」 (‘이다’의 어간,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

☞ 최종적으로는 출판사에서 「명」(의존), 「동」(보조), 「형」(보조) 대신 「명」의, 「동」보, 「형」보를 약말로 사용하였다. 약말이 길 경우 편집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 위에서 제시하지 않은 품사에 관한 정보는 품사 정보란에 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미」(선어말), 「어근」, 「조」(격), 「대」(인칭), 「동」(자), 「동」(타) 등의 표시는 품사 정보란에서 제외된다. 「어미」(선어말), 「어근」, 「조」(격), 「대」(인칭)의 정보는 뜻풀이나 문법 정보란을 통해 제시하고, 「동」(자), 「동」(타)에 해당하는 정보는 문형 정보란을 통해 제시한다.

굴03 屈 ‘굴하다’의 어근 ☞ ‘어근’이라는 품사 정보는 제시하지 않는다.

가11 「조」&「1」(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1」어떤 상태나 상황에 놓인 대상, 또는 상태나 상황을 겪거나 일정한 동작을 하는 주체를 나타내는 격 조사. 문법적으로는 앞말이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어임을 나타낸다. ☞ 「조」(격)이라는 품사 정보는 제시하지 않는다.

그01 「1」 「대」 「1」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 「2」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

예04 「조」(체언 뒤에 붙어) & 「1」 「1」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더-02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라’, ‘-냐’, ‘-니’, ‘-구나’, ‘-구려’ 등 일부 어미 앞에 붙어)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전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 「어미」(선어말)이라는 품사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문법 형태 지침 참조.

두다01 「1」 「동」 & 「1」 【…을 …에】 「1」 일정한 곳에 놓다. ▶ 연필을 책상 위에 {두다}/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야} 한다. … ☞ 「동」(타)라는 품사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다.

3. ‘ㅅ’ 기호가 있거나 띄어쓰기를 한 구(句) 표제어에는 품사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다.

4. 북한어에도 품사 정보를 제시한다.

1) 품사 표시는 《우리말샘》에 따른다.

2) 《조선말대사전》에서 ‘성어’로 취급한 것은 ‘명사’로 처리한다.

부처오누리『명』『복』~.

☞ 《조선말대사전》에는 부처오누이를 《성어》로 처리하고 있음.

V. 문형 정보

☞ 《표준국어대사전》은 이 지침대로 하였고, 《우리말샘》은 구축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자타동사를 구분하는 【…을】、【(…을)】 정보만을 넣기로 하였으나, 2017년 8월 31일 이후에는 실제 용례에 따라 필수 논항을 문형 정보에 넣는 것으로 바뀌었다. 예) 날리다013 「동사」【…을 …에/에게】휴대 전화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 이메일, 사진, 동영상 따위를 보낸다. .

1. 문형 정보의 개념과 형식

5. 문형 정보 제시의 용언 범위와 제시 수준

3) 옛말, 방언, 북한어나 비표준어는 문형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다.

3. 기타

- 만일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가지 뜻풀이가 있고 그 뜻풀이 중에 북한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복』’은 하나의 문형 정보에 해당하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 ‘『복』’은 북한어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형 정보도 주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뜻풀이를 문형 정보에 따라 분류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독자적인 기능을 갖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복』’을 하나의 문형 정보로 보고 다른 문형 정보와 동등한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1. 뜻풀이가 둘인 경우

1) 표제어 ① 뜻풀이 ②『복』 뜻풀이

2) 표제어 ①【…을】②『복』 뜻풀이

☞ 뜻풀이가 둘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최상위 분류를 표시하는 기호는 소번호가 되기 때문에 중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2. 뜻풀이가 셋인 경우

: 이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복」을 하나의 문형 정보로 취급할 때 뜻풀이 세 개가 모두 다른 문형 정보를 갖는 경우, 나) 「복」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가 동일한 문형 정보를 갖는 경우, 다) 「복」을 갖는 뜻풀이가 둘인 경우로 구분된다.

1) 뜻풀이 세 개가 모두 다른 문형 정보일 때는 소번호만을 사용한다.

가) 표제어 ① 뜻풀이 ②【…을】뜻풀이 ③「복」 뜻풀이

나) 표제어 ①【…을】뜻풀이 ②【…에】뜻풀이 ③「복」 뜻풀이

2) 「복」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의 뜻풀이가 동일한 문형 정보를 갖는 경우에는 최상위 분류를 표시하고 기호는 중번호이다.

가) 표제어 ㉠ ①뜻풀이 ② 뜻풀이 ㉡「복」뜻풀이

나) 표제어 ㉠ 【…을】①뜻풀이 ② 뜻풀이 ㉡「복」 뜻풀이

3) 「복」의 표시를 갖는 뜻풀이가 둘인 경우에는 최상위 분류를 표시하고 기호는 중번호이다.

가) 표제어 ㉠ 뜻풀이 ㉡ ①「복」뜻풀이 ②「복」 뜻풀이

나) 표제어 ㉠【…을】뜻풀이 ㉡ ①「복」뜻풀이 ②「복」 뜻풀이

☞ 전체 뜻풀이가 셋이고 그중에 하나 이상이 북한어인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최상위 분류 아래에 다시 하위 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번호와 소번호 기호를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3. 뜻풀이가 넷 이상인 경우

: 이 경우는 경우의 수가 무척 많지만 결국 위의 두 가지 경우를 참조하여 중번호와 소번호 기호를 사용하면 된다. 몇 가지 예만을 보이기로 한다.

1) 표제어 ㉠ 뜻풀이 ㉡ ①「복」뜻풀이 ②「복」뜻풀이 ③「복」 뜻풀이

2) 표제어 ㉠【…을】①뜻풀이 ②뜻풀이 ㉡【…에】뜻풀이 ㉢「복」뜻풀이

3) 표제어 ㉠ ①뜻풀이 ②뜻풀이 ㉡【…에】뜻풀이 ㉢ ①「복」뜻풀이 ②「복」뜻풀이

☞ 전체 뜻풀이가 넷 이상이면서 북한어가 하나 이상이 포함된 경우에도 최상위분류와 하위분류의 기호 사용 방식이 뜻풀이가 셋인 경우와 동일하다.

IV. 뜻풀이

1. 일반 원칙

1-3. 북한어 뜻풀이

: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를 최대한 포괄하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고쳐 쓴다. 고쳐 쓸 때에는 다음 두 원칙을 지킨다.

1. 가치 중립성: 북한 사회 특유의 정치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뜻풀이는 가치 중립적이 되도록 객관적으로 바꾼다.

2. 간결성: 뜻풀이는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줄여 바꾼다.

가격표시 「명」「복」「통」 소포 따위의 포장에 내용물의 가격을 적어 나타냄.

← ~물품의 값을 꾸러 쓴 짐의 겉에 적어서 나타내는 ~

문화어 「명」「복」북한에서, 언어생활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규범화한 언어. 평양말을 중심으로 제정한 것이다.

←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수도를 중심지로 하고 수도의 말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로동계급의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언어. 사회주의민족어의 전형으로서 전체 인민이 규범으로 삼는 문화적인 언어이다. 우리의 문화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언어사상과 당의 올바른 언어정책에 의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문화적으로 가꾸어진 조선민족어의 본보기 ~.

- 1) 북한어의 뜻풀이가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호응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지나치게 장황할 경우에는 의미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한다. 다만 반드시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를 확인한 후 수정한다.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예) #1간접도급지불제#2뜻수#3직접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 결과를 간접적 방법으로 도급 생활비를 계산하는 도급 지불 제도.#4직접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 결과에 대해, 간접적 방법으로 도급 생활비를 계산하는 도급 지불 제도.#5《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도 이와 같지만, 통사적으로 호응이 되지 않는 문장이므로 뜻풀이를 수정함.

※ 간접도급지불제(間接都給支拂制)「명」 『복』『경』직접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 결과를 간접적 방법으로 도급 생활비를 계산하는 도급 지불 제도.

- 2) 북한어 표제어에 대해 똑같은 뜻풀이를 지닌 남한어가 있을 경우에는 ‘뜻수’로 분류하고 ‘○○의 북한어’와 같은 형식으로 뜻풀이를 수정한다. 이때 관련된 단어가 있을 경우, 모두 수정한다.

예) #1말림터#2뜻수#3무엇을 말리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춘 곳.#4‘건조장01’의 북한어.#5회의 결정 사항. 동일한 의미임.

※ 말림터「명」「복」 무엇을 말리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춘 곳.

건조-장01(乾燥場)「명」물건을 건조하기 위하여 특별한 장치를 한 곳.◀김 {건조장}/오징어 {건조장}.§

- 3) ‘북남검’으로 분류하여 남긴 표제어 중에서 표준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표제어는 ‘표사검’ 항목을 따로 만들지 않고 #5에 표준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메모를 남긴다.

★4) 독자적으로 뜻풀이되어 있는 북한 전문어의 경우, 유사한 뜻풀이를 지닌 남한어가 있을 때, 직접 자료를 확인하여 ‘○○의 북한어’로 수정하거나 ‘뜻수검’으로 분류하여 ‘○○의 북한어’로 뜻풀이 수정 검토 바란다는 메모를 남긴다.

예) #1롯데마광기#2뜻수검#5남한어 ‘로드 밀’과 동일한 의미로 보임. 전문어 감수 후 “로드 밀’의 북한어’로 뜻풀이 수정 검토 바람.

#1롯데분쇄기#2뜻수검#5남한어 ‘로드 밀’과 동일한 의미로 보임. 전문어 감수 후 “로드 밀’의 북한어’로 뜻풀이 수정 검토 바람.

※ 롯데마광기(rod磨鑛機)「명」『복』『공』=롯데분쇄기. ⚙로드 마광기.

롯데분쇄기(rod粉碎機)「명」『복』『공』여러 개의 로드가 들어 있는 원통이 돌아가면서 광석을 필요한 크기대로 잘게 부수는 기계. 선광장(選鑛場)의 일차 분쇄에 주로 쓴다. ≡롯데마광기. ⚙로드 분쇄기.

2. 뜻풀이 형식

2-1. 일반 형식

4. 다른 표제어를 참고하게 하는 정의는 아래의 형식을 따른다.

카) 북한어, 방언, 옛말 : ‘주표제어(부표제어)’의 북한어/방언/옛말.

기장 「명」 … 「2」「방」 ‘길이01’의 방언(경기, 황해).

5. 비표준어는 대응하는 표준어가 있을 경우, 표준어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역사’의 경우 “‘역사’의 북한어.”로 뜻풀이함으로써 대응하는 표준어가 ‘역사’임을 밝힌다. 대응하는 표준어가 단어가 아닌 경우에는 ‘량반인테리’와 같이 ‘⇒ 규범 표기는 양반 인텔리이다.’라고 어문 규범에 따른 표기를 보여 준다.

라) 북한에서 동의어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표제어가 남한의 비표준어에 해당될 때에는 “‘남한 대응어’의 북한어.” 형식으로 뜻풀이한다.

손쉬웁다 「형」「복」 ‘손쉽다’의 북한어.

☞ 《조선말대사전》에는 ‘손쉬웁다가 ‘손쉽다’와 동의어로 되어 있음.

2-2. 뜻풀이 용어

2-2-1. 일반 원칙

6. 뜻풀이에 사용된 표제어를 ‘ ’안에 제시할 때 ‘-, ^ ’ 따위의 기호를 쓰지 않는다.

선인자기 「명」 「북」 『컴』 ‘라인^프린터’의 북한어. (X)

⇒ 「명」 「북」 『컴』 ‘라인 프린터’의 북한어. (O)

7. 북한어

1) 뜻풀이는 일반어이든 전문어이든 남한의 어휘로 뜻풀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뜻풀이의 띄어쓰기나 맞춤법도 남한의 어문 규범에 따른다.

가) 특정 수식어 구 삭제

김일성, 김정일이나 공산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수식어 구는 가능한 삭제하며 김일성, 김정일을 뜻풀이에서 보일 필요가 있을 때는 경칭을 생략한다.

나) 전환

가치 명제는 사실 명제로 전환하여 집필하며 표제어가 지닌 고유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 가치 개념을 드러내는 어휘는 뜻풀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문화어 … 로동계급의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언어~.

⇒ 「명」 「북」 북한에서, 언어생활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규범화한 언어. 평양말을 중심으로 제정한 것이다.

다) 쉬운 남한어로 바꾸기

북한 사전의 뜻풀이에 쓰인 말이 북한 사전에만 있되 대응되는 남한어를 찾을 수 있으면 이해하기 쉬운 남한 사전의 표제어로 바꾸거나 풀어서 뜻풀이한다.

썰꺼덕썰꺼덕 「부」 「북」 큰 것들이 마디진 동작으로 쉽게 썰썰 들어가 버리거나 빠져나가는 모양.

⇒ 「부」 「북」 큰 것들이 쉽게 썩썩 들어가거나 자꾸 빠져나가는 모양.

☞ 북한어 ‘썰썰’을 대당되는 남한 어휘 ‘썩썩’으로 바꿔 준 경우.

라) 남한어 표기법으로 바꾸기

《조선말대사전》 뜻풀이에 쓰인 북한식 표기법은 남한식으로 바꿔 준다.

가늌교예 [명] 몸의 가늌힘을 리용하여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교예의 한가지. 바줄타기, 어깨재주, 사다리재주 같은것이 이에 속한다.

⇒ 「명」 「북」 몸의 평형 감각을 이용한 곡예. 바줄이나 사다리를 타거나 어깨를 이용하여 묘기를 보인다.

2-2-6. ‘예전에’

1. 기본 원칙

- 일반어 교열 지침 제한 표현 항목에는 ‘예전에’의 쓰임을 ‘최근까지 쓰였음은 분명한데 지금은 안 쓰이는 표제어’로 제한하였었다. 그러나 실제 원고에서는

현재는 쓰지 않지만 구체적인 시대를 알지 못하는 모든 경우에 ‘예전에’를 썼다. 원고의 용법을 그대로 인정하고 비슷한 유형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태도를 취한다.

- ‘예전에’ 정보와 『역사』 영역 표시는 같이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현재 같이 나온 것은 어느 한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표제어가 전문어인지 일반어인지 판단하여 수정한다.

노군02 「명」 『역사』 쇠뇌를 쓰는 일을 맡아 하던 군사.

노군03 「명」 「1」 예전에, 노를 젓는 일을 맡아 하던 군사.

⇒ 「명」 「1」 『역사』 노를 젓는 일을 맡아 하던 군사.

☞ ‘노군02’은 역사 전문어, ‘노군03’은 일반어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비슷한 유형의 표제어이므로 통일을 해 준다.

단구-창 「명」 예전에, 기병(騎兵)이 쓰던 창 의 하나. 창 의 머리 부분에 갈고리가 하나 거꾸로 붙어 있다.

⇒ 「명」 『역』 기병(騎兵)이 쓰던 창 의 하나. 창 의 머리 부분에 갈고리가 하나 거꾸로 붙어 있다.

남-치마 「명」 「2」 『역사』 예전에, 여자 예복으로 입던 남빛의 치마.

⇒ 「명」 「2」 예전에, 여자 예복으로 입던 남빛의 치마.

2. ‘예전에’가 붙는 유형

1) 일상 생활 관련

동상-전 「명」 예전에, 서울 종로의 종각 뒤에서 재래식 잡화를 팔던 가게.

늘-배 「명」 예전에, 강에서 짐을 나르는 데 쓰던 돛단배.

난전-질 「명」 예전에,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낮잡는 뜻으로 이르던 말.

납시다 「동」 「…」 『역』 「…」 예전에, ‘나가시다’·‘나오시다’의 뜻으로 지위가 매우 높은 사람에게 쓰던 말.

노04 「명」 예전에, 남자 종을 이르던 말.

냥 「의존 명사」 「1」 예전에, 엽전을 세던 단위.

북한어 가운데 ‘예전에’가 들어간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문장이 이상해진다면 ‘…함을 이르던 말.’과 같이 고친다. 크게 이상하지 않다면 굳이 수정하지는 않는다. 수정해야 한다면 이 방향으로 하라는 뜻이다.

가마팔이 「명사」 『북』 예전에, 가마나 솔을 팔던 장사. 또는 그 장사를 하던 사람.

갱지갱(更之更) 「명사」 『북』 예전에, 시문을 평가할 때 등수에 들지 못하는 꼴찌를 이르던 말.

2) 『역사』 이외의 영역

노예시대 「명」 「복」 『사회』 예전에, 인류 사회가 노예 소유자 사회의 단계에 있었던 시대.

2-3. 기타 형식과 용어

32. 덩이/덩어리

비유적인 의미로 쓰인 덩이/덩어리의 뜻풀이 형식은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 5) 북한어의 경우도 뜻풀이 수정함. 남한어의 대응어가 있을 경우에는 표기를 남한어로 고쳐서 표제어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에 해당하는 뜻풀이가 남한어에는 없고 북한어에서만 보이는 쓰임이라면 '~의 북한어'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이때 뜻풀이 형식은 '~속되게'나 '~비유적으로'로 통일한다.

3. 뜻풀이부의 원어 표기

3-2. 세부 원칙

7. 뜻풀이가 다른 표제어를 참조하는 것이고, 표제부의 원어 표기와 뜻풀이에 나오는 원어 표기가 동일하면 뜻풀이에서는 원어를 제시하지 않는다.

예) '~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넌강(嫩江) 「명」 『지명』 '넌장(嫩江)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 '넌장'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예) '~의 북한어'

렴장 (殮葬) 「명」 「복」 '염장(殮葬)'의 북한어. => '염장'의 북한어.

암버(umber) 「명」 『복』 『화』 '엄버(umber)'의 북한어. => '엄버'의 북한어.

4. 다의어

4-1. 뜻풀이 배열

4. 어떤 표제어가 동시에 북한어 부사이면서 남한어 어근이라면 다의어로 처리한다.

합죽001 「품사 없음」 '합죽거리다001'의 어근.

합죽002 「부사」 「복」 이가 빠져 입술과 볼이 오므라져 있는 모양.

합죽003 「부사」 「복」 이가 빠져 입술과 볼이 오므라진 사람이 입을 한 번 움직이는 모양.

4-2. 기본 표제어로 뜻풀이를 돌릴 경우의 처리 원칙

1. 기본 원칙

- : 비표준어, 북한어, 원말·변한말, 준말·본말, 방언, 옛말 따위의 뜻풀이에서 다의어인 기본 표제어의 뜻풀이를 반영하는 방법이 문제이다. 이에는 기본 원칙이 있

다.

- 1) 기본 표제어와 해당 표제어 사이에 조금이라도 의미의 차이가 있으면 구분하여 보인다. 이 경우 품사 정보나 문형 정보에 따른 구분도 반영된다.
- 2) 반드시 각각의 뜻풀이마다 용례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

2. 세부 원칙

- 2) 북한어: 모두 구분하여 대응 뜻풀이를 보인다. 용례를 확인하여 뜻풀이에 맞게 연결한다.

5. 제한 표현

☞ 일반어·전문어·북한어·옛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1. 표제어의 시대적 특성을 나타낼 때: ‘…때/시대(에), …던 말’

- 고조선 때에,
- 삼국 시대에(삼국을 통칭할 때만),
- 고구려 때, 신라 때, 가야 때, 발해 때,
- 후삼국 시대에,
- 통일 신라 시대에,
- 고려 시대에,
- 조선 시대에,
- 고려·조선 시대에,
- 일제 강점기에,
- 대한 제국 때에,
- 구한말에,
- 예전에,

☞ 단, ‘조선 시대에, 관청의 하나.’와 같이 어색한 문장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선 시대 관청의 하나.’ 또는 ‘조선 시대에 설치하였던 관청의 하나.’와 같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고치고 ‘;’는 생략할 수 있다.

당파 「명」 「1」 주의, 주장,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뭉쳐 이룬 단체나 모임. ≡ 파당(派黨). \= 「당파를」 만들다 / 권력을 추구하는 한 모든 「당파는」 절대주의의 한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NADAA012:223>. \ \$ 「2」 조선 시대에, 정치세력 결집 단체였던 봉당(朋黨) 안에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다시 나뉜 파벌을 이르던 말. ≡ 파당(派黨). \= 「당파를」 가리지 않다 / 「당파를」 초월하다 / 「당파와」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다 / 조선 시대 당파 싸움을 「당파의」 이익만 앞세웠던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 \$

☞ 실제 작업 결과 기계적으로 ‘-에’를 붙인 나머지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조선 시대에, …의 관청’과 같이 오히려 더 어색한 문장으로 고친 예가 있었다.

☞ 2008년 개정 시 ‘대한 제국 때’와 ‘구한말 때’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①[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 (koreanhistory)]과 ②[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③[고려출판사, 한국사대사전], ④[조선왕조실록], ⑤[세광

음악출판사, 국악대사전], ⑥[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사전], ⑦[고려출판사, 세계인명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한 제국(1897~1910) 때의 것이 확실한 제도, 책명, 인명, 고적 등은 '대한 제국' 쪽으로 수정하고 연도가 불분명한 경우는 '조선 후기' 쪽으로 둬. (2) 뜻풀이에 '구한말'이 쓰인 표제어라도 해당 제도, 책명 등의 연도가 대한 제국 시기(1897~1910)에 설치·편찬된 것이라면 '대한 제국' 쪽으로 수정함. 또한 '조선 후기'라고 뜻풀이되어 있는 인명이라도, 그 주요 활동 시기가 구한말(조선 말기~1910)에 속한다면 '구한말' 쪽으로 수정함.

2. 전문어의 세부 분야나 일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표제어의 분야를 나타낼 때

: …에서, (…를 이르는 말).

- 점술에서,
- 풍수 지리에서,
- 토속 신앙에서,
- 화학 반응에서,
- 형사 소송에서,
- 화투 따위의 노름에서,
- 농구(야구, 축구 따위)에서,
- 회의에서,
- 편지글에서,
- 가위바위보에서,
- 제기차기에서,
- 윷놀이에서,
- 학교에서,
- 논문이나 저술 따위에서,
-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서,
- 서양의 지명에서,
- 전통 혼례에서,
- 농악대에서,
- …

곤마 「명」 「1」 사람이 오래 타서 지친 말. 「2」 바둑에서, 살아나기 어려운 돌을 이르는 말.
 \= 「곤마를」 살리다 \\$

☞ ‘…를 이르는 말’에서 ‘…’부분이 너무 길거나 ‘…를 이르는 말’ 유형으로 뜻풀이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를 이르는 말’을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략했을 때 어색한 문장이 되기 쉬우니 가능한 한 완전한 형태로 써 주는 것이 좋다.

면소01 「명」 『법률』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公訴權)이 없어져 기소(起訴)를 면함.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赦免)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刑)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公訴時效)가 지났을 때 이루어진다.

<『운동』에 『오락』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명」 『운동』 바둑에서, …

<『연영』에 『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영』 사진에서, …

3. 특수어의 사용 집단을 나타낼 때 : …로, …를 이르는 말.

- 죄수들의 은어로,
- 심마니들의 은어로,

- 걸인들의 은어로,
- 범죄 집단의 은어로,
- 군인들의 은어로,
- ...

강아지 「명」 …「3」 죄수들의 은어로, ‘담배’를 이르는 말.
 디디개 「명」 심마니들의 은어로, ‘다리’나 ‘신’을 이르는 말.
 왕초 「명」 거지들의 은어로, 무리의 두목을 이르는 말.
 풀마니 「명」 범죄 집단의 은어로, ‘부하’를 이르는 말.
 건-빵 「명」 「2」 군인들의 은어로, ‘육군’을 이르는 말.

※ <2008>년 이후 은어 처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 1) 대응 표제어가 있고 집단이 있으면 용언이든 체언이든 ‘~의 은어로, ‘OO’를 이르는 말.’로 뜻풀이한다.
- 2) 대응 표제어가 있고 집단이 없으면 용언일 경우 ‘(은어로) ‘OO’를 이르는 말’로 뜻풀이하고, 체언일 경우 ‘은어로, -를 이르는 말’로 뜻풀이한다.
- 3) 대응 표제어가 없고 집단이 있으면 용언일 경우 ‘~의 은어로, -하다.’로 뜻풀이한다.
- 4) 대응 표제어도 없고 집단도 없으면 용언일 경우 ‘(은어로) -하다.’로 뜻풀이한다.
- 5) 심마니들의 말로는 심마니들의 은어로 고친다. 표준지침에 이렇게 고쳐야 하는데 기존 사전 외에 근거가 없어서 심마니들의 말로 형태로 남겼다고 했으나 기존 사전을 보면 그 차이가 없으므로 심마니들의 은어로 고친다.
- 6) 은어이면서 북한어인 것은 표제어 삭제한다. 아래 예의 ‘빨래주인’ 한 단어밖에 없고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어 보인다.

빨래주인--主人「명」『북』중들의 은어로, 아내1 를 이르는 말.

- 7) 은어의 뜻풀이를 ‘은어로 ~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는 것은 ‘~을 이르는 말’로 고친다. 은어 자체가 속어이므로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넣어줄 필요가 없어 보인다.

칼-창「명」은어로, 유리10(琉璃) 를 속되게 이르는 말. => 은어로, ‘유리10(琉璃)’를 이르는 말.

- 8) ‘~을 이르던 말’과 ‘~을 이르는 말’이 섞여 있는데, 이는 우리말 사전을 기준으로 고친다. 우리말 사전에 ‘전날에’라는 뜻풀이가 들어가 있으면 이르던 말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르는 말로 한다. (소 장수의 은어에 이런 뜻풀이가 섞여 있음)

9) 전문어 영역이 있는 은어는 전문어 영역을 삭제한다. 대부분의 은어는 전문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며 해당하는 같은 뜻인데도 어떤 것은 전문어가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일관성이 없다. 전부 빼는 것으로 한다.

4. 특수한 사용 계층을 나타낼 때: …에서/로, …던(는) 말.

- 궁중에서,
- 어린아이의 말로,

거래 「명」 … 「3」 예전에, 하인배가 웃어른 또는 관전(官前)에 가서 말로 통지하는 일을 이르던 말.

수건 「명」 궁중에서, '수건'을 이르던 말.

쉬-하다 「동」 어린아이의 말로, 오줌을 누는 것을 이르는 말.

☞ 제한 표현이 겹치는 경우에는 특수한 정보만 남겨 둔다.

5. 문체적 의미나 뜻풀이의 전반적 성격을 기술하고자 할 때

1) 표제어가 체언인 경우: …을 (….) 이르는 말.

가) (….) 안에는 다음과 같은 부사어가 올 수 있다.

비유적으로, 구어적으로, 낮잡는 뜻으로, 속되게, 놀림조로, 구별하여, 상대하여, 빗대어, 강조하여, 과장하여, 구체적으로, 높여, 일상적으로, 전문적으로, 아름답게, 겸손하게, 달리, 예스럽게, 익살스럽게, 과장하여, 무섭게, 부드럽게, 아름답게, 완곡하게, 귀엽게, 친근하게, 정답게, 통틀어, 멋스럽게, 비난조로, 비속하게, …

언년 「명」 손아래의 계집아이를 귀엽게 부르는 말.

아형 「명」 주로 글에서, 형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

언니 「명」 손위인 여자를 높여 정답게 부르는 말.

계집-년 「명」 '계집'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 이 못된 「계집년」 / 그러한 음란한 「계집년은」 이제라도 곧 쫓아내면 그만이지 아니냐? <<NBSAB000:140>> \ \$

싸움-닭 「명」 쉽게 남과 다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비유적으로) 쉽게 남과 다투는 사람을 이르는 말.'식의 뜻풀이는 잘못이다.

바지-저고리 「명」 … 「2」 주견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나) <가> 유형의 표현들은 <나>로 통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나>

…을 낮추어 이르는 말 → …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을 비겨 이르는 말 → …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을 대비하여(대하여) 이르는 말 → …을 상대하여 이르는 말

⋮

그림-쟁이 「명」 '화가'를 낮추어 이르는 말.

→ 「명」 '화가'를 낮잡아 이르는 말.

☞ '낮추어'는 겸양의 표현이고 '낮잡아'는 멸시의 표현이다.

☞ '진지, 탕'처럼 '...을 높여 이르는 말'이 어색할 경우에는 '...의 높임말'을 인정한다.

2) 표제어가 용언인 경우 : ()안에 제한 표현을 제시하고 '-하다'로 끝맺는다.

- (비유적으로)
- (낮잡는 뜻으로)
- (속되게)
- (놀림조로)
- (구어체로)
- (완곡한 표현으로)
- (부드러운 표현으로)
- (예스러운 표현으로)
- (겸손한 표현으로)
- ∴

감다 「동」 … 「3」 (놀림조로) 옷 따위를 호사스럽게 입다. \= 비싼 옷만 몸에 「감고」 다닌다고 멋이 있는 것은 아니다. \ \$

없다 I 「형」 … 「9」 (구어체로) 상대를 위압하려는 뜻으로, 바랄 것이나 남는 것이 없다. \= 한 번만 더 내 동생을 건드리면 그때 국물도 「없는」 줄 알아 / 만약 일이 잘못되면 그때 가선 「없어」! \ \$ …

단, 뜻풀이를 다른 표제어로 돌릴 경우에는 '해당 단어'를 '비유적으로/낮잡는 뜻으로/속되게/강조하여/구어적으로/놀림조로/완곡하게/부드럽게/예스럽게/강조하여...' 이르는 말의 유형으로 뜻풀이한다.

각불-때다 「동」 '각살림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 각불불다. \= 부모 자식이 한집에 살면서 「각불때다」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될 법한 소리냐? \ \$

☞ '각살림하다'가 하나의 단어이면서 표제어인 경우.

뜻풀이에서 '비유적으로'와 같은 표현을 쓸 때 원칙은 체언일 경우 '...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용언일 경우 '(비유적으로) ...다.'로 뜻풀이하는 것이다.

중-머리 「명」 「2」(비유적으로) 뽀뽀 깎은 머리. 또는 그렇게 머리를 깎은 사람.

⇒ 「명」 「2」 뽀뽀 깎은 머리 또는 그렇게 머리를 깎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이 경우에 '또는' 앞에 문장 부호를 찍지 않는다.

☞ '낮잡는 뜻으로'를 '낮잡아'가 쓰일 곳에 쓰는 경우가 있다. 주로 정의항 앞에 제한 표현이 있을 때 쓴다.

6. 품사별 뜻풀이 형식

6-1. 의존 명사

3. 수량 단위 의존 명사

아) 넓이의 단위

(1) '(땅, 논밭 따위) 넓이의 단위.'를 제시하고 단위의 크기를 제시한다.

☞ '면적'은 '넓이'로 순화.

(가) 단위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보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우리나라 단위인 평(坪)으로 환산한 다음, 추가적으로 미터법에 의한 환산치도 제시해 준다.

평03 「의존 명사」 「1」 땅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의 하나. 여섯 자 평방으로, 3,3058㎡이다.

→ 땅 넓이의 단위. 한 평은 여섯 자 제곱으로 3.3058㎡에 해당한다.

단06 … Ⅱ 「의존 명사」… 「4」 땅의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 한 정(町)의 10분의 1, 곧 30평(坪)을 말한다.

→ 「1」땅 넓이의 단위. 한 단은 한 정(町)의 10분의 1, 한 무(畝)의 열 배, 곧 300평으로 약 991.74㎡에 해당한다.

반보01 「의존 명사」 「복」 땅의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 한 정보의 십분의 1 곧 300평.미터법으로 나타내면 991.736㎡이다.

→ 땅 넓이의 단위. 1반보는 1정보의 10분의 1, 곧 300평으로 991.74㎡에 해당한다.

단보01 「의존 명사」 논이나 밭 따위의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의 한 가지. 단(段)으로 끝나고 우수리가 없을 때 쓰인다. 1단보는 300평(坪)이다.

→ 땅 넓이의 단위. 단(段)으로 끝나고 우수리가 없을 때 쓴다. 1단보는 남한에서는 300평으로 991.74㎡에 해당하나 북한에서는 30평으로 99.174㎡에 해당한다.

정보05 「의존 명사」 땅 넓이의 단위를 이르는 말. 넓이가 정으로 끝나고 끝수가 덧붙지 않을 때 쓴다.

→ 땅 넓이의 단위. 정(町)으로 끝나고 우수리가 없을 때 쓴다. 1정보는 3,000평으로 약 9,917.4㎡에 해당한다.

☞ '반보01, 단보01, 정보05'는 '땅 넓이의 단위.'로 통일한다.

6-3. 수사

2. 수 표현의 계열 구분과 등재 범위.

5) 고유어 부정수(不定數)

「수」 「관」으로 처리한다.

'-남은'이 결합된 단어들과 이들의 북한어, 옛말.

3. 뜻풀이 형식

- 모든 기수사는 ‘… 수.’로 끝나게 뜻풀이한다.
- 모든 서수사는 ‘… 차례.’로 끝나게 뜻풀이한다.
- 수사와 관형사의 용법을 모두 가진 표제어의 경우, 두 의미가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품사 정보를 ‘[수][관]’으로 주고, 함께 뜻풀이한다.

5) 고유어 부정수(不定數)

‘-남/남은/나쁜/나쁜’계 어림수를 일컫는다.

가) 기수

‘[해당하는 수의 고유어 기수 정수 표제어]가 조금 넘는 수. 또는 그런 수의.’

여남은 [관][명] 열 가량으로부터 열 조금 넘는. 또는 그런 수. =십여(十餘).

→ [수][관] 열이 조금 넘는 수. 또는 그런 수의.

서르나문 [수][복] 서른 남짓한 수.

→ [수][관][복] 서른이 조금 넘는 수. 또는 그런 수의.

설흔라문 [수][관][옛]서른이 조금 넘는 수. 또는 그런 수의.

6-5. 명사·부사 통용어

1. 대원칙

4) 북한어에, 남한어 명사에는 없는 다른 부사적 쓰임이 있을 때

근본 [1] [명] [1] 초목의 뿌리. [2]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 [3] 자라 온 환경이나 혈통. [11] [부][복] 처음부터 애당초. 『그는 「근본」 주력이 모자랐다. <<선대>>』

곤두 [1] [명] =곤두박질(1). [11] [부][복] ‘거꾸로’의 북한어. 『말잔등에서 「곤두」 떨어지다.』

매나니 [1] [명] [1] 무슨 일을 할 때 아무 도구도 가지지 아니하고 맨손뿐인 것. [2] 반찬 없는 맨밥. [11] [부][복]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또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멍하니. 『「매나니」 기다리다/「매나니」 근심만 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지. <<선대>>』

6-6. 관형사

1. 품사 지정 기준

3) 세부 규정

바) 숫자를 가리키는 표제어 가운데 고유어 기수(基數) 정수(定數)의 일부와 고유어 기수 어림수의 일부, 한자어 어림수는 관형사만 인정하고 고유어 기수 정수의 일부, 고유어 기수 어림수의 일부, 고유어 서수의 정수, 고유어 서수 어림수, 고유어 부정수(不定數), 한자어 정수, 한자어 부정수, 한자어 큰수·작은수 들은 관형사·수사 다품사 단어로 처리한다.

(2) 수사, 관형사 둘 다 인정하는 표제어

고유어 기수 정수의 일부 : ‘다섯~열’, ‘서른, 마흔, 쉰, 예순, 여든, 아흔’, ‘온, 즘’과 이들의 잘못, 방언, 옛말 따위.

고유어 기수 어림수의 일부 : '네다섯 ~ 열아홉', '댓, 열댓'과 이들의 잘못, 방언, 옛말 따위.
 고유어 서수의 정수 : '첫째', '열한째'와 이들의 잘못, 방언 따위.
 고유어 서수 어림수 : '한두째 ~ 열아홉째'와 이들의 준말. '댓째', '열댓째'.
 고유어 부정수 : '-남은'이 결합된 단어와 이들의 북한어, 옛말.
 한자어 정수 : '일 ~ 십', '이십, 삼십, 사십, 오십, 육십, 칠십, 팔십, 구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조'.
 한자어 부정수 : '기십 ~ 기천', '수십 ~ 수억만'.
 한자어 큰수·작은수 : '경(京) ~ 무량수(無量數)', '분(分) ~ 정(淨)'.

2. 뜻풀이 형식

2) 'X-的' 파생어.

☞ 'X-的' 파생어 가운데 '가급적'은 「명」 「부」의 쓰임이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뜻풀이할 때 주의 사항.

(가) 품사 제시는 「관」 「명」으로 하고 뜻풀이도 그 순서대로 한다.

☞ 품사가 「명」 「관」으로 제시되었지만 뜻풀이는 관형사, 명사 순으로 제시된 경우로, 품사 정보만 「관」 「명」으로 바꾸어 준다.

개조적 「명」 「관」 「북」 하나하나의 조항을 따르는 것. 또는 그런.

→ 「관」 「명」 「북」 하나하나의 조항을 따르는. 또는 그런 것.

☞ 품사가 「명」 「관」으로 제시되었고 뜻풀이도 명사, 관형사 순으로 제시된 경우로, 품사 정보와 뜻풀이 순서 모두 조정한다.

(다) 명사에 대한 뜻풀이는 '그런 것.'으로 통일한다.

- 앞 문장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그런' 대신에 '그렇게 하는', '그렇게 되는', '그러한' 따위를 쓰지 않는다.

본음계적 「관」 「명」 「북」 『음』 본음계에 속하거나 관계되는. 또는 본음계와 관련된 것.

→ 온음계에 속하거나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

6-7. 감탄사

1. 품사 지정 기준

3) 세부 규정

가) 부사와 감탄사의 구별

(1) 의성어와 감탄사: 두 어휘 부류가 모두 소리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의성어는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인 반면 감탄사는 어떠한 의도나 느낌 등을 가지고 있는 소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예취 「부」 재채기할 때 나는 소리.

예이01 「감」 「1」 실망하여 단념할 때 내는 소리. 「2」 속이 상하거나 마음에 달갑지 아닐 때 내는 소리. ... 「4」 『북』 너무 엄청나고 심할 때 내는 소리. 「5」 『북』 상쾌할 때 내는 소리.

나) 구령어

(1) 표제어

(가) ‘섯’과 같이 ‘ㅅ’이 붙은 것들은 ‘ㅅ’이 떨어진 형태를 표제어로 한다. 이는 ‘ㅅ’이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일어-서’ 등과 형태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섯 「감」구령의 하나. 동작을 그치고 멈춰설 것을 명령한다.

→ 서04 「감·명」『군』동작을 그치고 멈춰 서라는 구령. 또는 그 구령에 따라 행하는 동작.

(나) ‘ㅅ’이 더해진 형식과 더해지지 않은 형식의 의미 차가 분명한 경우, 둘 다 등재한다.

차려 「감·명」『군』 제식 훈련에서, 몸과 정신을 바로 차리어 부동자세를 취하라는 구령. 또는 그 구령에 따라 행하는 동작. 양 다리는 곧게 펴고 무릎은 붙인다.

차렸 「감·명」『군』 ‘차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차렸’이 ‘차려’에 비해 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판단되고, ‘차렸하다’와 같은 부표제어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인정한다.

☞ 이는 구령어가 아닌 감탄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쉬04 「감」 떠들거나 큰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할 때 내는 소리.

섯 「감」 소리를 내지 말라는 뜻으로 급하게 내는 소리.

(다) 남한어에 ‘ㅅ’이 더해진 형식으로 북한어가 따로 등재된 경우, 북한어를 삭제한다.

모여 「감·명」『군』 제식 훈련에서, 흩어진 대원에게 모이라는 구령. 또는 그 구령에 따라 행하는 동작.

모엿 『북』『군』 구령의 한 가지. 헤쳐 있는 사람들에게 대열을 지어 모이라고 명령할 때 쓰는 구령.

☞ ‘모여’는 인정하고 ‘모엿’은 삭제한다.

(라) 북한어는 (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선말대사전》에서 행한 단어 분석 및 품사 지정을 그대로 인정한다.

사) 북한어

(1) 《조선말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 가운데 남한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은 남한어로 인정한다.

애개

애개001「감탄사」뉘우치거나 탄식할 때 아주 가볍게 내는 소리.

애개002「감탄사」대단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업신여기어 내는 소리.

(2) 하나의 표제어가 남한어와 북한어에서 뜻이 다른 경우 차례로 제시한다.

에이

에이001「감탄사」실망하여 단념할 때 내는 소리.

에이002「감탄사」속이 상하거나 마음에 달갑지 아니할 때 내는 소리.

에이003「감탄사」아랫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겨 꾸짖거나 속이 상할 때 내는 소리.

에이004 『북한어』「감탄사」너무 엄청나고 심할 때 내는 소리.

에이005 『북한어』「감탄사」상쾌할 때 내는 소리.

(3) 남한어에서는 비표준어나 《조선말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애개개

애개개001「감탄사」‘애개001’를 잇따라 내는 소리. ⇒규범 표기는 ‘애개개001’이다.

애개개002 『북한어』「감탄사」‘애개개001’의 북한어.

애개개003 『북한어』「감탄사」‘애개개002’의 북한어.

2. 뜻풀이 형식

7) 북한어

남한어에 준하여 뜻풀이한다.

데루화 「감」「복」 노래를 부르며 즐거울 때 나타내는 소리.

→ 노래를 부르며 즐거울 때 내는 소리.

7. 유형별 뜻풀이 형식

7-6. 순화어

6. 순화어가 북한어, 방언, 비규범 표기여도 고시 상태를 유지한다. 임의로 어문 규정에 따라 교열하거나 삭제하지 않는다. 다만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의 의미가 다른 경우에는 삭제한다.

히요쿠 hiyoku[比翼] 「명」 코트나 바지 앞쪽에 단추나 지퍼를 가리게 만든 가늘고 긴 단.
'<sense_no>1254490</sense_no>히요쿠' 대신 순화한 용어
'<sense_no>122218</sense_no>단추집'만 쓰라고 되어 있다.

나오시 naoshi 「명」 옷을 바로 잡거나 고치는 일. '<sense_no>1254323</sense_no>나오시' 대신 순화한 용어 '<sense_no>744948</sense_no>고침질'만 쓰라고 되어 있다.

시보리002 shibori 「명」 소매나 깃 또는 밑단에 사용되는 신축성 있는 편성물.

‘<sense_no>1254497</sense_no>시보리’ 대신 순화한 용어 ‘고무뜨개’, ‘뜨개 조리개’만 쓰라고 되어 있다. ㉞ 고시 자료집에 있던 ‘물수건’, ‘홀치기’, ‘물레질’을 삭제함.

8. 고시 자료에 복수로 표기된 순화 대상어가 모두 《우리말샘》에 등재돼 있고 그것들이 북한어, 방언이 아니라면 복수 표기 각각에 별도로 순화 대상어를 제시한다.

네트워크004 network 「명」 어떠한 일이나 문제점을 처리하는 데 각 기관 따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체계. ‘<sense_no>1280894</sense_no>네트워크’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sense_no>633877</sense_no>관계망’, ‘<sense_no>792593</sense_no>연결망’, ‘연계망’을 쓰라고 되어 있다. 다만,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네트워킹001 networking 「명」 어떠한 일이나 문제점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개인이나 기관 따위가 서로 연결망을 형성하는 일.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sense_no>633877</sense_no>관계망’, ‘<sense_no>792593</sense_no>연결망’, ‘연계망’을 쓰라고 되어 있다. 다만,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7-7. 계열 어휘

12. 색채어

2. 계통색 이름

- 1) 계통 색 이름 중 기본색 이름의 앞에 수식어(명도(밝은/어두운), 채도(선명함/탁한), 색상(빨간/파란)을 나타내는)를 넣어 표현하는 경우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므로 표제어로 올리지 않으나(빨간 주황, 노란 하양, 진한 연두 등) 하나의 단어인 경우는 표제어로 올림(황회색, 회보라, 회적색, 회록색, 회청록, 회자주, 회분홍, 적회색, 갈회색)
- 2) 계통 색 이름 중 북한어로 된 것은 남한어로 돌림(회황색).

7-8. -치않다, -찮다

1. 기본 원칙

: ‘-치 않다/-치않다/-찮다’를 모두 고려하여 이 가운데 표제어로 등재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치않다’가 등재되지 않았으면 ‘-찮다’에서 독자 뜻풀이를 해야 하고, ‘-치않다’가 구가 아닌 단어로 등재되면 여기서 독자 뜻풀이한다. 이 경우 ‘-찮다’는 의미의 변화가 없으면 “‘-치않다’의 준말.”로 뜻풀이하고 의미의 변화가 있으면 독자 뜻풀이해야 한다. ‘-찮다’에서 “‘-하지 아니하다’가 줄어든 말.”로 뜻풀이하지는 않는다. 단순히 구가 줄어든 말이라면 등재 여부 자체를 판단해야 한다. 규정에서는 ‘-치않다’를 구로 보고 있다.

2. '-치않다/-찮다'의 뜻풀이 방식

1) '-치않다'가 등재된 경우

가) '-치않다'가 등재된 경우는 단순한 구가 아니고 새로운 의미가 생겨 하나의 형용사 단어가 된 경우이다. 간혹 북한어나 비표준어로 올라 있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독자 뜻풀이를 하지 않는다. '-찮다'가 훨씬 일반적이지만 '-치않다'도 어느 정도 쓰인다고 판단되면 '-치않다'는 '잘못'으로 뜻풀이한다. 북한어는 “'-찮다'의 북한어.”로 뜻풀이 한다.

괜찮다 「형」【…이】「1」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 되다. \=초보자치고는 「괜찮은」 솜씨 데? / 얼굴은 「괜찮게」 생겼는데 마음씨는 모르겠어! … \ \$ 「2」탈이나 문제, 걱정되거나 꺼릴 것이 없다. \=창문 좀 열어도 「괜찮겠습니까?」 / 아무 음식이나 「괜찮으니」 신경쓰지 마세요 … 「비」무방하다(無妨--)(<2>).

괜-하다 「형」 = 공연하다04.

괜치않다 「형」 「복」 '괜찮다'의 북한어.

☞ '괜하다'의 의미로는 '괜찮다'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독자 뜻풀이한다. 그리고 '괜치않다'는 북한어로 처리되므로 본말 관계 따위를 보이지 않는다.

귀찮다 「형」 마음에 들지 않고 괴롭거나 성가시다. \=「귀찮게」 굴다 / 그 애는 나에게 「귀찮은」 존재다. / 부식들을 치는 게 담배 피우는 사람의 멋이었다. 성냥을 굿기도 부식들을 치기도 「귀찮아」 촛불에다 담배불을 붙였다. <<NGBAB170:349>> \ \$

귀치-않다 「형」 '귀찮다'의 잘못.

귀-하다 「형」 「1」 신분, 지위 따위가 높다. 「2」 구하거나 연기가 아주 힘들 만큼 드물다. 「3」 사랑스러워 귀움을 받을 만하다. 「4」 아주 보배롭고 소중한하다.

☞ '귀하다'의 의미로는 '귀찮다'의 의미를 나타내기 어렵다. '귀치않다'는 '귀하다'의 단순 부정으로 보기 어렵고 독자 뜻풀이를 하기에는 일반적인 어형이 아니므로 '잘못'으로 처리한다.

나) 북한어 내에서는 그 체제를 따라 '-치않다'에서 독자 뜻풀이를 한다.

별치않다 「형」 「복」 특별한 것이 없고 하찮거나 대수롭지 않다. \= 「별치않은」 일 같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었다. <<4nuaa002:253>> /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다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별치않게」 여겨도 될 일이 있소. <<백두산기슭, 선대>> \ \$ 「준」 별찮다(別--).

별찮다 「형」 「복」 '별치않다'의 준말. \= 저도 모르게 편지를 읽고 또 읽었지요. 잘 쓴 것 같기도 하고 「별찮게」 쓴 것 같기도 해요. <<일곱명의 사수, 선대>> \ \$

별-하다 「형」 「1」 보통 것과 이상스럽게 다르다. 「2」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게 좀 어색하다.

☞ '별치않다'는 북한어로, 남한어의 '별하다'에 준하여 뜻풀이하기 어렵다. '별치않다'에서 독자 뜻풀이를 한다. 이때 '별찮다'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치않다'의 준말로 처리한다.

7-9. 이/그/저

2. 기타 문제

2) 기타 뜻풀이와 관련된 문제

다) 이러이러다, 그러그러다, 저러저러다, 요러요러다, 고러고러다, 조러조러다: 북한어로 뜻풀이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남한에서도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남한어로 뜻풀이 하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통일한다.

그러그러다 「동」(북) 다 그러거나 또는 자꾸 그러다.

-> 그러그러-다 「동」 「1」 다 그렇게 하거나 잇따라 그렇게 하다. 「2」 잇따라 그렇게 말한다.

=> 이와 관련하여 ‘이러저러다, 그러저러다’도 북한어로 뜻풀이되어 있으나 ‘요러조러다’, ‘고러조러다’와 평행하게 남한어로 뜻풀이한다.

8. 부표제어

8-1. 일반 원칙

1. ‘-하다’, ‘-되다’, ‘-이/히’, ‘-적(的)’, ‘-거리다’, ‘-대다’, ‘-이다’가 결합한 파생어는 주표제어가 되는 선행 성분의 부표제어로 처리한다. ‘-롭다’, ‘-스럽다’, ‘-답다’, ‘-장이’, ‘-질’, ‘-보’, 피·사동 접미사 따위가 결합한 파생어는 그 파생어를 주표제어로 처리한다.
2. 주표제어가 되는 선행 성분이 표제어에 없을 때는 표제어로 추가하고 “‘부표제어’의 어근” 형식으로 뜻풀이한다. 다만, 외래어·방언·북한어·옛말·비표준어의 경우는 선행 성분을 표제어로 추가하지 않고 파생어를 주표제어로 삼는다. 옛말은 선행 성분이 표제어로 있더라도 선행 성분이 옛말이 아닌 경우에는 파생어를 주표제어로 삼는다.

8-3. 세부 지침

1. 뜻풀이

6) ‘-의 잘못’은 주표제어에서만 인정한다. 주표제어에서 ‘「1」 -의 잘못. 「2」 -의 북한어’로 한 경우 부표제어에서는 ‘-의 북한어’만 제시한다.

예) 거북상스럽다 「형」 「1」 ‘거북살스럽다’의 잘못. 「2」 「북」 어쩐지 거북한 느낌이 있다.

거북상스레 「부」 『북』 => 거북상스럽다.

3. 유형별 제시 형식

1) 북한어의 경우

가) 대응 남한어가 있는 경우 : “남한어’의 북한어” 유형으로 뜻풀이한다.

가나 「북」 ‘다라’의 북한어

가나-하다 「북」 ‘다라하다’의 북한어

쟁가당 「명」 ‘쟁강’의 북한어.
 쟁가당거리다 「동」 ‘쟁강거리다’의 북한어.
 쟁가당하다 「동」 ‘쟁강하다’의 북한어.

☞ ‘쟁가당하다’를 ‘쟁가당’으로 보내지 않는다.

나) 대응 남한어가 없는 경우: 주표제어의 뜻풀이에 맞게 직접 풀이한다.

가나 「복」 뜻풀이
 가나-하다 「복」 뜻풀이

격석격석하다#2격석격석#3『북한어』긴 다리를 크게 옮겨 디디며 계속 걷는 모양.#4『북한어』
 긴 다리를 크게 옮겨 디디면서 계속 걷다.#5‘하다’ 풀이 수정.

4. 기타 사항

1) 주표제어와 부표제어는 국어 순화 자료집에서 명시적으로 순화한 경우에만 순화한 말을 제시한다. 주표제어와 부표제어를 모두 순화한 경우에는 양쪽에서 다 순화한 말을 제시한다.

☞ 순화어 지침 참고

2) 주표제어가 모두 남한어일 경우, 북한 사전에만 있는 ‘-이/히-, -하다, -되다’ 파생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주표제어가 남한 사전에서 비동작성 명사로 뜻풀이되어 있는 경우: 북한어 부표제어 ‘-하다’, ‘-되다’를 모두 삭제한다.

나) 부표제어 ‘-되다’만 북한 사전에 있는 경우: 남한어 ‘-하다’가 타동사이고 그에 대한 ‘-되다’가 남한어에서도 많이 쓰인다고 판단되면 남한어로 돌려준다. 단, 남한어 ‘-하다’가 자동사이거나 자·타동으로 쓰이면 북한어 ‘-되다’는 삭제한다.

퇴축 退縮 「명」 화살이 과녁에 닿았다가 꽂히지 않고 튀어서 떨어짐. 또는 그런 화살.

퇴축-하다 「동」 => 퇴축. 퇴축.

퇴축-되다 「동」「복」 => 퇴축. 퇴축. --> 삭제

☞ 남한어 ‘퇴축하다’가 자동사이므로 북한어 ‘퇴축되다’는 삭제한다.

다) ‘-이/-히/-스레’만 북한 사전에 있는 경우: 해당 부표제어가 남한어에서 명백하게 쓰인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삭제한다. 단, 주표제어가 북한어인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는다.

홀하다 「형」 뜻풀이. 홀.

홀히 「부」「복」 => 홀하다. --> 삭제

☞ ‘홀하다’가 남한어이고 ‘홀히’는 용례가 보이지 않으므로 삭제.

8-4. 부표제어 뜻풀이 입력 작업 지침

※ 2009년에 주표제어로 돌려져 있던 부표제어를 직접 뜻풀이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부표제어 작업 지침

20) 'OO의 하나' 식으로 풀이된 계열어휘들에서, 'OO의 하나'라는 정보는 부표제어 풀이에 실지 않는다.

예)

#1각타하다#2각타#3삼각(三覺) 하나. 스스로 깨달은 바를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여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각(覺)을 이른다.#4스스로 깨달은 바를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여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다. 삼각(三覺)의 하나이다.#5'하다' 뜻풀이 수정. 『순』이 '삼각의 하나'를 풀이에서 보일 필요 없다. '각타하다'를 '삼각하다'의 하위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삼각의 하위 부류 부표제어끼리 짝이 맞지 않기도 하다.(각타하다(O)/자각하다(O)/각행하다(X)).

가) 주표제어가 '씨름 기술의 하나. ~하다'로 풀이된 경우는 '씨름에서, ~하는 기술을 부린다.'와 같이 풀이한다.

예)

<집필자>

#1깍지걸이하다#2깍지걸이#3「1」양손의 손가락을 서로 어긋나게 바짝 끼는 일.「2」『북한어』『운동』씨름 기술의 하나. 두 팔로 상대방의 허리를 안아 깍지를 끼고 넘어뜨린다.#4「1」양손의 손가락을 서로 어긋나게 바짝 끼다.「2」『북한어』『운동』씨름 기술의 하나인 깍지걸이를 하다. 두 팔로 상대방의 허리를 안아 깍지를 끼고 넘어뜨린다.#5'하다' 풀이 수정.

<검토자>

#1깍지걸이하다#2깍지걸이#3「1」양손의 손가락을 서로 어긋나게 바짝 끼는 일.「2」『북한어』『운동』씨름 기술의 하나. 두 팔로 상대방의 허리를 안아 깍지를 끼고 넘어뜨린다.#4「1」양손의 손가락을 서로 어긋나게 바짝 끼다.「2」『북한어』『운동』씨름에서, 두 팔로 상대방의 허리를 안아 깍지를 끼고 넘어뜨리는 기술을 부린다.#5'하다' 풀이 수정.#6'깍지걸이' 풀이 수정은 co 파일에 작성할 것.

나) '놀이의 하나'로 풀이돼 있는 경우, 뜻풀이 형식에 일관성이 없는데, 현재까지 풀이한 것에 비추어 '~하는 놀이를 하다.'로 기본 형식을 통일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더 자연스러운 경우는 달리할 수 있다.

23) 북한어 부표제어의 한글맞춤법 정보는, 대응 남한어가 없으면 '❧남한 표기'를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다의어면서 하나의 풀이라도 남한 대응어가

있으면, ‘❧남한 표기’를 넣지 않도록 한다.

예)

료결(了結) 「명사」『복』 ‘료결01’의 북한어.

료결되다(了結--) 「동사」『복』⇒ 료결.

료결하다(了結--) 「동사」『복』 ‘료결하다’의 북한어.

❧#1료결되다#2료결#3료결01’의 북한어.#4끝이 막히다.❧료결되다.#5’되다’ 풀이 수정.#6남한 대응어인 ‘료결 01’에 ‘-되다’가 빈칸이어서 독자 풀이하고, 한글맞춤법 정보 추가함.

2. 뜻풀이 유형별 세부 지침

14) 첩어의 경우 부표제어 집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첩어 의성의태어에 붙은 ‘-하다’ 풀이

(1) 기본적으로 ‘OO거리다’가 표제어로 있는지 한 번씩 쳐보고, 최대한 그것과 다르게 풀이한다.(문법 형태소 수정(예3>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

예3)

<집필자>

#1격석격석하다#2격석격석#3『북한어』긴 다리를 크게 옮겨 디디며 계속 걷는 모양.#4『북』긴 다리를 크게 옮겨 디디며 계속 걷다.#5‘하다’ 풀이 수정.

<검토자>

#1격석격석하다#2격석격석#3『북한어』긴 다리를 크게 옮겨 디디며 계속 걷는 모양.#4『북한어』긴 다리를 크게 옮겨 디디면서 계속 걷다.#5‘하다’ 풀이 수정.#6 ‘격석거리다’와 다르게 풀이해야 하는데, 부사 위치 이동 및 부사 추가가 어려워 문법 형태소를 바꿔서 집필함. sh001_sub(최종)의 ‘각삭각삭하다’의 풀이 형식도 이쪽으로 통일해야 함.

10. 전문어 세부 지침

10-1. 일반 원칙

3. 뜻풀이 세부 지침(어휘 부류별)

3) 북한어

가)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에 쓰인 용어 중에, 《조선말대사전》에 있는 그 용어의 뜻이 남한 용어와 다르고 그에 대응하는 남한 용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조선말대사전》의 용어를 이용하여 뜻풀이한다.

가는흔들말 [명] 흔들말과에 속하는 민물남색마름류의 하나. (중략) 고인물이나 온천 등에서 산다.

⇒ 「명」『북』『식』 흔들말과의 조류(藻類). 밝은 남빛 풀색을 띤 세포들이 한 줄로 길게 이어져 몸을 이루며 끝이 굽어 있다. 민물이나 고인 물, 온천 따위에서 산다.

❧ ‘흔들말과’는 북한 사전에만 표제어로 오른 용어이다.

나)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에 쓰인 용어 중에 남한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고 《조선말대사전》에도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을 때는 《조선말대사전》의 용어를 그대로 이용하여 뜻풀이하는 것을 허용한다.

가는풀색깡충이 [명] 깡충과에 속하는 해로운 곤충의 하나. (중략) 밀, 보리 그 밖의 벼과잡
풀에 해를 준다.

⇒ 「명」『복』『동』 깡충과의 해충. 몸의 길이는 6~10mm이며 몸체는 풀색이고 검은색의 겹눈
과 흡눈이 있다. 밀, 보리, 벼 따위의 곡식에 해를 준다.

가는흔들말 [명] 흔들말과에 속하는 민물남색마름류의 하나. 몸은 세포들이 한줄로 길게 잇달
려 이루어진 외오리세포실인데 곧고 밝은남빛 풀색을 띠며 끝부분은 좀 구불다. 세포들이
잇달리는 가름벽의 양옆에는 흔히 알갱이들이 있다. 고인물이나 온천 등에서 산다.

→ 「명」『복』『식』 흔들말과의 조류(藻類). 밝은 남빛 풀색을 띤 세포들이 한 줄로 길게 이어져
몸을 이루며 끝이 굽어 있다. 민물이나 고인 물, 온천 따위에서 산다.

☞ ‘민물남색마름류’는 《조선말대사전》에 표제어로 오르지 않은 말이나 ‘남빛 풀색을 띤 민물에 사는 조류’라
는 개념이 드러나도록 풀어서 뜻풀이한다.

남색 → 밝은 남빛 풀색.

마름류 → 조류.

구불다 → 굽어 있다.

다) 남한 대응어가 있는 표제어는 뜻풀이하지 않고 “‘남한 대응어’의 북한어.”로 처리한다.

고개길 [명]『복』『고갯길』의 북한어.

라) 《조선말대사전》에는 전문어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남한어가 일반어인 경우
에는 남한 사전을 따라 일반어로 처리한다.

마)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일반어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남한어가 전문어인 경
우에는 남한 사전을 따라 전문어로 표시한다.

바) 《조선말대사전》에서 다듬기 전의 말에는 전문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조선말대사전》의 다듬은 말에는 전문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듬은 말
에도 전문어 표시를 해 준다. 이 경우 뜻풀이는 다듬기 전의 말에 나와 있어야 한다.

10-2. 영역별 뜻풀이 세부 지침

☞ 이 부분은 오래전에 마련되었던 지침이다. 분야별로 앞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10-2-1. 건설

1. 뜻풀이 형식

1) 높이에 대한 뜻풀이 : “...에서부터 ...까지의 거리.”로 뜻풀이한다.

홍예^높이 『건』 홍예밑과 홍예머리와의 거리.

⇒ 『건』 흉예밑에서부터 흉예머리까지의 거리.

- 2) 특히 북한어의 뜻풀이에서 하위 분야를 밝히는 데 쓰이는 “(…따위의) 구조물에서, 건축물에서”와 같은 표현은 쓰지 않는다.

유리근02 「명」 「북」 『건설』 건설 구조물에서 유리 섬유로 타래를 지어 철근 대신에 쓰는 물건.

⇒ 「명」 『북』 『건』 유리 섬유로 타래를 지어 철근 대신에 쓰는 물건.

2. 하위 유형 형식

- 3) 집의 모양과 구조에 관한 뜻풀이

마) 들보

(3) 재료에 따른 뜻풀이 : “…으로 만든 들보.”

나무보 「명」 「북」 『건』 각목, 판자, 합판, 통나무 따위로 만든 보.

10-2-4. 공업

1. 뜻풀이 형식

- 1) 뜻풀이에서 하위 영역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는 “… 공업에서,”와 같이 한다.

테일러^도표 「공업」 조선(造船)에서, …

⇒ 『공업』 조선 공업에서, …

- 2) “… 공업에서,”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쓴다.

회전-로 「명」 『공업』 … 「2」 철이나 구리 따위의 제련에서, …

⇒ 「명」 『공업』 … 「2」 철이나 구리 따위를 제련할 때 …

흑액 「명」 『공업』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펄프재(pulp材)를 찌거나 삶았을 때 남는 액체.

⇒ 「명」 『공업』 제지 공업에서, 펄프재를 찌거나 삶았을 때 남는 액체.

☞ 북한어의 뜻풀이에서 자주 보이는 “자동화에서,”나 “자동 조종 체계에서,” 따위는 『공업』 영역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영역으로 돌린다.

10-2-6. 교육

2. 뜻풀이 형식

- 8) 북한은 교육 체계나 이념이 우리와 다르므로 남한어와 대응 관계에 있는 북한어 표제어는 개별 뜻풀이를 한다.

인민학교 「명」 「북」 『교육』 ‘초등학교’의 북한어.

⇒ 「명」 『교육』 북한에서 초등 교육을 베푸는 학교. 수업 연한은 4년이다.

10-2-7. 교통

2. 뜻풀이 용어

1) 뜻풀이에 쓰이는 ‘철길, 선로(線路)’는 ‘선로’로 일치시킨다.

결선 「명」 「북」 『교통』 철길의 본선, 복선, 지선이 아닌 나머지 선. ≙ 측선(側線).

⇒ 「명」 「북」 『교통』 선로의 본선, 복선, 지선이 아닌 나머지 선. ≙ 측선(側線).

10-2-15. 물리

2. 하위 유형 형식

식을 이용한다. 그러나 빛이나 파동의 여부나 움직임 따위를 측정하는 기구는 ‘…을 측정하는 데 쓰는 기구’의 형식을 이용한다.

육분-의 六分儀 「명」 『물리』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각도나 해·달·별 따위의 높이를 재는 데 쓰는 기계. 항해술·측량술 따위에 쓰인다.

⇒ 「명」 『물리』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각도나 해, 달, 별 따위의 높이를 재는 데 쓰는 기구. 항해, 측량 따위에 쓴다.

3. 뜻풀이 용어

2) 뜻풀이에서 ‘에네르기’와 ‘에너지’는 ‘에너지’로 통일하여 쓴다.

일당량 「명」 「북」 『물리』 역학적 에네르기의 값과 열에네르기의 값이 서로 같음을 표시하는 양.

⇒ 「명」 「북」 『물리』 역학적 에너지의 값과 열 에너지의 값이 서로 같음을 표시하는 양.

3)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 들은 단어로써 ‘어는점, 녹는점, 끓는점’ 으로 붙여 쓴다. ‘빙점, 융해점, 비등점’은 각각 ‘어는점, 녹는점, 끓는점’으로 통일하여 쓴다.

열씨척도 「명」 「북」 『물리』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수은 온도계를 이용하여 이등분하는 온도 척도.

⇒ 「명」 「북」 『물리』 물의 어는점과 끓는점을 수은 온도계를 이용하여 이등분하는 온도 척도.

공비-점 「명」 『물리』 외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액체 혼합물을 증류할 때 어떤 일정한 온도에서 액화(液化)와 기화(氣化)가 동시에 일어나는 비등점(沸騰點).

⇒ 「명」 『물리』 외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액체 혼합물을 증류할 때, 액화와 기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

4) 북한어의 뜻풀이에서 ‘레이자’는 ‘레이저’로 바꾸어 쓴다.

레이자자기공명 「명」 「북」 『물리』 전자 자기 모멘트를 가진 분자에 공명 주파수와 레이저 주파수를 동조시킬 때 일어나는 공명 현상.

⇒ 「명」 「북」 『물리』 전자 자기 모멘트를 가진 분자에 공명 주파수와 레이저 주파수를 동조시킬 때 일어나는 공명 현상.

10-2-16. 미술

1. 하위 유형 형식

1) 미술 기법의 뜻풀이는 ‘…에서, 어떻게 하는 기법.’ 형식으로 정의한다.

준06 皴 「명」 「북」 『미술』 조선휘 기법의 하나. 일반적으로 굴곡진 산골짜기, 험악한 절벽, 언덕 따위의 명암·입체감을 표현하며, 조형 처리와 붓다름새는 표시 대상과 화가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

⇒ **준010** 「명」 『미술』 동양화에서, 산악·암석 따위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쓰는 기법.

☞ '화론 육법'의 '기운생동[기운법용필(氣法用筆)]응물상형(應物象形)[추류부채[경영위치[전이모사]'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정한다. -동양화에서 육법의 하나로, ~하는 것을 말한다.

'화론 육법'은 구체적인 미술 기법이라기보다는 회화에서 중요시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한 것이어서 '어떠한 느낌이 나게', 또는 '어떠하게 그려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므로 '~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으로 뜻풀이를 맞추었다.

10-2-22. 수공

1. 뜻풀이 하위 형식

1) 옷감 : 정의항에는 원사(原絲), 직조 방법 따위를, 부가 설명에는 특징, 용도 따위를 쓴다.

방모기 「명」 「북」 『수공』 방모 공정에 사용하는 기계.

3) 수공예품: 공예 기법, 재료 따위를 정의항에 쓰고 실용성이 있는 공예품일 경우 쓰임을 정의항에 함께 쓴다.

두겹-색유리 「명」 「북」 『수공』 안쪽은 투명하고 바깥면은 여러 가지 색깔을 넣은 공예.

⇒ 「명」 「북」 『수공』 안쪽은 투명하고 바깥면은 여러 가지 색깔을 넣은 공예 유리..

☞ 공예품과 공예 형식을 엄격히 구분할 것.

5) 제조 공정에 쓰이는 기계 및 도구 : 기계의 쓰임을 정의항에 나타낸다. 제조 대상물, 단계 따위는 부가 설명에서 나타낸다.

2. 뜻풀이 용어

1) ‘천’, ‘피륙’ 따위는 ‘천’으로 통일한다.

정경기 「명」 「북」 『수공』 피륙을 짜기 위하여 날실을 필요한 올의 수 만큼 두루마리에 감는 기계.

⇒ 「명」 『공예』 천을 짜기 위하여 날실을 필요한 올의 수만큼 가지런히 퍼서 베를 짜기 위해 날실을 감아 놓은 틀에 감는 기계.

2) 표제어가 한 부분을 뜻할 때 ‘…의 한 부분’으로 뜻풀이한다.

무늬굴개 「명」 「북」 『수공』 롤러(roller)로 무늬를 찍는 설비의 하나. 롤러에 슝을 무늬가 새겨져 있다.

⇒ 「명」 「북」 『공업』 롤러(roller)로 무늬를 찍는 기계의 한 부분. 롤러에 찍을 무늬가 새겨져 있다.

10-2-23. 수산

1. 하위 유형 형식

1) ‘어로 도구’는 정의항에 상황에 따른 도구의 쓰임이나 특징적인 모양을 중심으로 나타낸다.

2. 뜻풀이 용어

1) 고유어로 다듬은 말을 주로 쓴 북한어와 감수자가 선택한 한자어 중심의 말이 대립할 때는, 남한에서 널리 쓰이는 쉬운 말을 선택한다.

10-2-25. 식물

2. 기타

2) 북한어: 북한어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순서: 길이(크기) + 모양 + 색깔 + 특징 + 분포 지역

나) 용어:

실모양체 → 사상체, 바다마름 → 해조류(海藻類), 잎아귀 → 잎겨드랑이, 마름류 → 조류(藻類)

송이꽃차례 → 총상(總狀) 꽃차례, 우산모양꽃차례 → 산형(繖形) 꽃차례, 초리털 → 편모

홀세포 → 단세포, 홀세포 민물 조류 → 단세포 담수 조류(潭水藻類)

10-2-30. 역사

1. 뜻풀이 형식

2) 한 뜻풀이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경우에는 나누어 뜻풀이 번호를 달리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도-만호 都萬戶「1」고려 시대에 둔, 순군만호부의 으뜸 벼슬. 「2」고려 말기·조선 초기에, 각 도(道)의 수군을 거느리던 종삼품의 무관 벼슬.

☞ 관직과 그 관리, 행정 구역과 그 관청을 같이 이르는 말인 경우에는 하나로 뜻풀이한다.

승발 承發 「명」『역사』 지방 관아의 이서 밑에서 잡무를 맡아 하던 구실. 또는 그러한 일을 하던 구실아치.

서부 西部 「명」『역사』 「2」 조선 시대에, 서울 안의 행정 단위인 오부(五部)의 하나. 이전의 소노부를 고친 것이다.

2. 하위 유형 형식

9) 관직명의 뜻풀이

가) 기본적으로 ‘무슨 시대[때]에, 어디에 속하여 무슨 일을 맡아 하던 벼슬.’ 형식으로 정의하고 설명에서 품계와 기타 정보를 밝힌다.

☞ 갑오경장 이전은 ‘벼슬’, 그 이후는 ‘관직’으로 통일한다. 단, 외국의 것은 시기와 상관 없이 ‘관직’으로 통일한다.

보양-관 補養官 「명」『역사』 조선 시대에, 세자(世子)와 세손(世孫)을 교육시키던 보양청(輔養廳)에 딸린 벼슬의 하나. 세자 보양관(世子輔養官)은 정1품에서 종2품, 세손 보양관(世孫輔養官)은 종2품에서 정3품이었다.

⇒ 「명」『역사』 조선 시대에, 보양청에 속하여 세자와 세손의 교육을 맡아 하던 벼슬. 품계는 세자 보양관이 정1품에서 종1품, 세손 보양관은 종1품에서 정1품이었다.

☞ 소속 관아와 근무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에서 ...을 맡아 하던 벼슬.’ 형식으로 정의한다.

☞ ‘겸-’ 형태의 관직명은 그 기능보다는 겸직이라는 정보를 중심으로 정의한다.

겸-교수 「명」『역사』 조선 시대, 호조, 형조, 관상감, 사역원, 헤민서 따위에 두었던 종6품 벼슬. 산술, 법률 따위에 관한 기술을 가르쳤다.

⇒ 「명」『역사』 조선 시대에, 문관들이 겸임하여 실용 기술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 보던 종육품 벼슬.

☞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무슨 시대에, 어디에 속한 (몇품) 벼슬.’ 또는 ‘무슨 시대[때]의 벼슬.’ 형식으로 정의한다.

복10 僕 「명」『역사』 고려 시대 문종 22년(1068)의 동궁(東宮)의 종5품 벼슬.

⇒ 「명」『역사』 고려 시대에, 동궁에 속한 종오품 벼슬. 문종 22년(1068)에 두었다.

사자금당주 獅子衿幢主 「명」 「북」 『역사』 신라 후기, 무관(武官)의 하나. 사지(舍知)에서 일길찬(一吉滄)까지로, 경주와 구주(九州)에 각각 세 명씩 두었다.

⇒ 「명」 『역사』 통일 신라 시대의 무관 벼슬. 사지(舍知)에서 일길찬(一吉滄)까지의 관등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였는데, 경주와 구주(九州)에 각각 세 명씩 두었다.

☞ 특정 시기(-왕 -년)에 설치했거나 여러 관아에 설치한 벼슬의 뜻풀이는 ‘언제(어디어디에) 둔 (몇 품) 벼슬.’

☞ 관청이나 행정 구역의 장.차관은 ‘무슨 시대에, 어디의 으뜸(버금) 벼슬.’ 형식으로 정의하고 설명에서 기타 정보를 준다.

☞ 으뜸 벼슬의 뜻풀이에 벼슬 부류가 오는 경우에는 ‘(벼슬 부류)의 우두머리’ 형식으로 정의한다.

☞ 버금 벼슬의 뜻풀이에 상위 벼슬이 오는 경우에는 ‘상위 벼슬에 버금가는 벼슬.’ 형식으로 정의한다.

총융-사 摠戎使 「명」 『역사』 조선 시대, 총융청의 우두머리로, 종2품의 무관 벼슬.

⇒ 「명」 『역사』 조선 시대에, 총융청의 으뜸 벼슬. 종이품의 무관 벼슬이다.

☞ 관등은 높은 것부터 첫째 등급, 둘째 등급 따위로 헤아린다.

☞ 사신의 종류를 뜻풀이할 때, 고정된 목적과 직능을 가진 경우에는 ‘-하던 사신.’ 형식으로 정의하고, 비정규적인 목적과 직능을 가질 경우에는 ‘-하던 사절.’ 형식으로 정의한다.

- 나) 비교적 고대의 관직명으로 소속이나 직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무슨 시대[무슨 나라]의 벼슬.’ 형식으로 정의하고 설명에서 기타 정보를 준다.
- 다) 표제어가 우리나라의 관직, 품계이면서 중국의 관직, 품계일 경우 다른 표제어의 뜻풀이를 참조하여 중국 관직, 품계의 뜻풀이를 추가한다.(가능한 경우만 추가함) 이때 중국의 관직명과 품계명은 뜻풀이 형식과 체계를 맞출 수 있는 데까지만 수정한다.

3. 뜻풀이 용어

1) 표제어의 시대적·지역적 배경 제시

☞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제시한다.

- 가) ‘고조선 때, 삼국 시대, 통일 신라 시대, 후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일제 때,’ 따위보다 더 구체적인 시기를 꼭 밝혀 주어야 할 경우에는 ‘조선 말기에, 대한 제국 때에, 구한말에,’ 따위로 제시한다.

삼군진무 三軍鎭撫 「명」 『역사』 「명」 「북」 『역사』 조선 전기에, 중앙 군부대인 삼군부에 속한 무관 벼슬.

승02 丞 「명」 『역사』 「1」 고구려 초기에, 일곱째 등급의 벼슬. 평양 천도 후 없어졌다.

☞ 별칭 따위의 상위 언어적 뜻풀이에서는 시대를 따로 밝히지 않는다.

5. 기타

- 1) 남북한이 역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표기법 차이를 보이거나 서로 다른 정치적 관점이 반영되는 경우가 아니면 북한어로 보지 않는다.

10-2-38. 종교

1. 뜻풀이 형식

- 2)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가운데, 천도교와 같이 남한에서도 존재하는 종교의 용어(특히 한자로 이루어진)는 감수자에게 확인하여 북한어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종교의 용어라 할지라도 남북 간에 서로 다르게 쓴다면 북한어를 구분한다.

경천-순천 敬天順天 「명」 『종교』 천도교에서, 하늘을 공경하고 한울의 이치에 순종하는 일.

☞ 북한어 표시인 「북」을 제시하지 않는다.

10-2-44. 컴퓨터

3. 뜻풀이 용어

- 1) 북한 사전에서의 ‘전자계산기’는 순수한 계산기의 개념이 아닌 한, ‘컴퓨터’로 바꾸어 뜻풀이한다.

10-2-45. 통신

1. 뜻풀이 용어

- 1) ‘취급편, 취급하는 편’은 ‘취급편’으로 통일한다.

결편 「명」 「북」 『체신』 우편물과 출판물을 돌려 주거나 거두어 모으는 일에서 취급하는 편을 놓치거나 직접 취급하는 편이 없어진 것. 체송 결편, 집배 결편 따위가 있다.

⇒ 「명」 「북」 『서비스업』 우편물과 출판물을 돌려 주거나 거두어 모으는 일에서 취급편이 없어지거나 취급편을 놓치는 일. 체송 결편, 집배 결편 따위가 있다.

- 2) 뜻풀이에 북한어나 북한 특유의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한다.

가) 보장하다 : 문맥에 적합한 다른 단어로 교체한다.

고성기유지 「북」 『체신』 유선 방송 청취의 질(質)을 보장하도록 확성기(擴聲器)의 운영을 특징지은 것. 유선 방송 사업의 가장 중요한 지표의 하나이다.

⇒ 「북」 『정보·통신』 확성기가 고르게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일. 유선 방송 사업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방송을 잘 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특징짓다 : ‘나타내다’ 따위로 고쳐 쓴다.

상호정보량 「북」 『체신』 두 사건 사이로 서로 옮겨가는 정보량. 곧 연관이 있는 두 사건 가

운에서 한 사건을 통하여 다른 사건에 대하여 알아내는 정보의 크기를 특징짓는다.

⇒ 상호^정보량 『정보·통신』 두 사건 사이로 서로 옮겨가는 정보량. 곧 연관이 있는 두 사건 가운데서 한 사건을 통하여 다른 사건에 대하여 알아내는 정보의 크기를 나타낸다.

10-2-46. 한의

3. 기타

3) 북한 사전에만 실려 있는 대부분의 어휘가 남한에서도 사용된다는 감수자의 의견을 따라 이들을 남한어로 처리한다.

☞ 다음 법칙이나 한자음 차이로 표기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남한 표기 형태를 추가하고, “ ‘남한 표기 형태’의 북한어.”로 뜻풀이를 한다.

10-2-48. 해양

2. 뜻풀이 용어

2) 북한어 표제어의 경우 뜻풀이에 북한어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그것에 대응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남한어로 교체하여 뜻풀이한다.

북한어	대응 남한어
강바닥물매	강 바닥의 경사
굽이울	굽은 정도
물표	부표
미세기높이	조수에 따른 해면의 높이
미세기물결	조수에 의한 물결
재기	측정
침로각	침로
표식판	표지판

10-2-51. 지명

1. 뜻풀이 형식

5) 북한 지명 가운데 분단 이후, 북한에서 폐지, 신설, 재편성된 행정 구역명은 위의 형식과 달리한다. 즉, 뜻풀이 다음 ‘…(상위 행정 구역명) 소재지, 면적은 ….’에 대한 정보를 보여 주고, ‘북한에서는 199?년(광복 이후) 행정 구역 개편 때…’의 부가 설명을 덧붙인다.

개성06 開城 「명」 『지명』 경기도 북서부에 있는 시. 인삼의 명산지(名產地)이며, 예로부터 보부상(裨負商)이 유명하다. 남대문(南大門).만월대(滿月臺).선죽교(善竹橋).송양 서원(崧陽書院) 따위의 명승지가 있으며, 천연 기념물인 크낙새가 서식한다. 면적 50.366㎢. 북한에서는 1955년 행정 구역 개편 때 개풍군의 영남면과 영북면을 흡수하여 개성직할시의 중심 도시로 재편성하였다. <참> 개주(開州)03.

개천-군 价川郡 「명」 『지명』 평안 남도의 북부에 있던 군. 룡, 조, 수수, 옥수수 따위의 밭

작물과 석탄, 사금(砂金), 철광, 흑연 따위가 난다. 초연대(超然臺), 무진대(無盡臺), 관음사(觀音寺), 부파정(浮波亭), 수선정(壽善亭), 대림산(大林山), 정통산(正通山) 따위의 명승지가 있다. **군청 소재지는 개천읍. 면적은 679km². 북한에서는 1991년 행정 구역 개편 때 개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폐지되었다.**

개풍-군 開豐郡 「명」 『지명』 경기도 북서쪽에 있는 군. 쌀, 콩, 보리, 조 따위가 많이 난다. 고려 태조의 무덤인 현릉(顯陵), 박연 폭포(朴淵瀑布), 관음사(觀音寺) 따위의 명승 고적이 있다. **면적은 744km². 북한에서는 광복 이후 행정 구역 개편 때 북면, 서면, 남면, 청교면, 광덕면, 대성면 등 6개 면 지역만을 남기고 그외 면은 다른 군으로 넘겨 주면서 개성직할시의 한 군으로 재편성하였다.**

10-2-53. 비전문 고유 명사

3. 기타

- 2) 북한 사전의 표제어는 남한의 전문 용어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형태가 남한의 전문어 사전에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표제어에서 북한어라는 표시를 삭제하고, 표제어를 남한의 맞춤법에 맞게 분석하고 뜻풀이한다. 만일 분석 결과가 句로 나타난다면 당연히 품사 표시도 삭제한다.

10-3. 북한어 전문어

☞ 일반적인 사항은 북한어 지침 참고

1. 북한 사전의 표제어에 대응하는 전문 용어가 남한의 전문 용어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 북한 사전의 표제어는 “ ‘...’의 북한어.” 식으로 뜻풀이한다.

감압이극소자 「명」 「북」 『전기』 압력에 따라 전압-전류 특성이 변화되는 성질을 가진 다이오드.

⇒ 「명」 「북」 『물리』 ‘감압 다이오드’의 북한어.

2. 북한 사전의 표제어는 남한의 전문 용어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표제어에서는 ‘북」’이라는 표시를 삭제하고, 표제어를 남한의 맞춤법에 맞게 분석한다. 만일 분석 결과가 구로 나타난다면 당연히 품사 표시도 삭제한다.

이체문제 「명」 「북」 『물리』 두 물체 사이에 만유인력, 정전기적인 힘, 핵력과 같은 힘이 상호작용(相互作用)할 때, 그 운동을 살피는 역학의 문제. 태양의 주위를 도는 행성의 운동, 수소 원자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 **이체^문제 「화학」** 두 물체 사이에 만유인력, 정전기력, 핵력과 같은 힘이 상호 작용을 할 때 그 운동을 살피는 역학의 문제. 태양의 주위를 도는 행성의 운동, 수소 원자 따위가 이에 속한다.

오쿠 「명」 「북」 『수산』 ‘채그물’의 북한어.

가능출력 「명」 「북」 『전기』 뜻풀이. ⇒ **가능^출력 「전기-전자」** 뜻풀이.

가속축전기 「명」 「북」 『전기』 뜻풀이. ⇒ **가속^축전기 「전기-전자」** 뜻풀이.

3. '-하는 것.'으로 된 것은 '-하는 일.'로 바꾼다.
4. '보장하다'는 남한어 '위하다'로 교체하여 쓴다.

구간전화통신 「복」 『정보·통신』 철도국이나 분국 안의 요원(要員)들이 사업상 연계를 보장하는 전화 통신. ⇒ …위한 전화 통신.

기관차대 「복」 『교통』 철도 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차를 관리 운영하는 경영 단위. ⇒ 철도 수송을 위하여 기관차를…

11. 북한어 특기 사항

1. 다듬은 말

- 1) 《조선말대사전》 뜻풀이 끝에 [×다듬기 전의 말] 표시가 있고 대응하는 '다듬기 전의 말'에는 '(다듬은 말로)…'라고 표시되어 있는 어형만 여기에 해당한다.

☞ 만일 《조선말대사전》 표제어 'A'의 뜻풀이 끝에 [X]로 표시되어 있는데, 'B'라는 표제어가 《조선말대사전》에 없거나 혹은 '(다듬은 말로) A'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다듬은 말로 볼 수 없다.

- 2) 《조선말대사전》의 다듬은 말은 독자적으로 뜻풀이하지 않고 “…”를 다듬은 말”로 처리하고 다듬기 전의 말에 뜻풀이 해 준다. 예를 들어 《조선말대사전》의 '침대깔개-마다라스'는 《우리말샘》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마다라스(matras) 「명」 『복』 '매트리스'의 북한어. '침대깔개'로 다듬음.

침대깔개 「명」 『복』 '매트리스'의 북한어.

- 3) 《조선말대사전》에서 'A'는 'B'를 다듬은 말로 뜻풀이 했더라도, 'B'에 대응하는 남한어가 있으면 'A'는 “'B'의 북한어”로 뜻풀이한다.

2. 다듬기 전의 말

- 1) 《조선말대사전》에 '×'로 표시되고 대응하는 '다듬은 말'이 있는 어형만이 여기에 해당한다.
- 2) 대응하는(형태는 다르더라도 뜻이 같은) 남한 말이 있는 경우: 독자적인 뜻풀이를 하지 않고 “…”의 북한어”로 뜻풀이한다. 뜻풀이 끝에는 “…”으로 다듬음”이라고 밝힌다.

가법기호 [-뺨-][명] (다듬은 말로) 더하기기호. [加法記號]

⇒ 「명」 『복』 『수학』 '덧셈표'의 북한어. '더하기기호'로 다듬음.

- 3) 대응하는 남한어가 없는 경우: 《조선말대사전》에 따라 뜻풀이하고 뜻풀이 끝에 다듬은 말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기 위해 “…”으로 다듬음”이라고 밝힌다.

가계포 [명]《농학》(다듬은 말로) 씨앗갈래밭. [家系圃]

⇒ 「명」 「복」 『농업』 다른 계통을 지닌 종자(種子)들 사이의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계통의 종자만으로 조성한 밭. 동일한 계통의 종자들의 변이와 균일성을 측정하고 씨앗을 늘리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씨앗갈래밭'으로 다듬음.

기초심도 [명]《건설》(다듬은 말로) 기초깊이.

⇒ 「명」 「복」 『건설』 구조물이 세워지는 지표에서부터 보강해 놓은 지반(地盤)까지의 거리. 보강재의 압력에 지반이 견딜 수 있고 땅이 열지 않도록 깊어야 한다. '기초깊이'로 다듬음.

4) 다듬기 전의 말이 남한 사전 표제어와 일치하는 경우: 다듬기 전의 말이 남한 사전 표제어와 형태와 뜻이 같아서 북한어 표제어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어 혹은 전문어로서 뜻풀이하고 뜻풀이 다음에 “‘…’으로 다듬음.”이라는 정보는 주지 않는다.

평순모음 [명] (다듬은 말로) 가로입술모음. [平脣母音]

⇒ 「명」 『언어』 발음할 때 입술을 등글게 오므리지 않는 모음. ‘ㅣ’, ‘ㅡ’, ‘ㅣ’, ‘ㅏ’, ‘ㅑ’, ‘ㅓ’, ‘ㅕ’ 따위가 있다.

☞ “‘…’으로 다듬음”이라는 정보는 북한어 표제어들 사이에만 준다. ‘평순모음’이 남한 표제어이므로 ‘가로입술모음’으로 다듬었다는 정보는 무시한다.

3. 고유어로 돌린 말 (뜻풀이에 ⇒ 기호가 있는 말)

- 1) 돌려진 말(‘⇒’ 기호 오른쪽)이 북한의 ‘다듬은 말’이면 동의어 처리한다.
- 2) 돌려진 말이 남한 사전에도 있으면 “‘…’의 북한어”로 뜻풀이한다.

마도석 [명] ⇒숫돌. [磨刀石] (조선말대사전)

⇒ 「명」 「복」 ‘숫돌’의 북한어.《표준국어대사전》의 처리)

☞ ‘가’를 “나의 북한어.”로 처리할 때 ‘나’는 남한 사전에서 뜻풀이되어 있는 주표제어여야 한다.

4. 기타

1) 한글 자모의 이칭

《조선말대사전》에 등재된 한글 자모의 이칭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뜻풀이를 통일한다.

ㄱ [명] 글자 <<가>>의 이름.

ㄴ [명] 우리 글자 <<니은>> 자인 <<ㄴ>>의 딴 이름.

(이상 <<조선말 대사전>>의 뜻풀이)

→ 그 「명」 「복」 한글 자모 ‘가’의 다른 이름.

(《표준국어대사전》의 처리방식)

- 2) 북한어 표제어 중에서 ‘…의 겹말, …을 겹말투로 이르는 말’ 유형으로 뜻풀이된 표제어는 동의어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도 동의어로 처리한 표제어가 남한어 주표제어이면 “‘남한어’의 북한어.” 유형으로 뜻풀이한다.

깔자리 「명」 「북」 앉거나 눕거나 놀기 위하여 ‘바닥에 까는 자리’를 겹말투로 이르는 말.
(《조선말대사전》 원고)

→ 「명」 앉거나 눕거나 놀기 위하여 바닥에 까는 자리.

☞ ‘…’이 명사구일 때는 ‘겹말’이라는 표현 삭제.

- 3) 북한어 표제어 중에서 ‘…의 곁말, …를 곁말투로 이르는 말’은 ‘은어로, …를 이르는 말’ 유형으로 뜻풀이하고 이러한 형식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유형으로 뜻풀이한다.
- 4) 북한어 표제어 중에서 ‘…를 힘주어 이르는 말’ 유형으로 뜻풀이된 표제어는 ‘…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로 뜻풀이하거나 뜻풀이 안에 강조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한다.

둘쳐메다 「동」 「북」 ‘둘러메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누비치다 「동」 「북」 ‘누비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5) 북한어 표제어 중에서 ‘-거리다, -대다’ 유형은 동의어로 처리하되 해당 남한어가 있으면 “‘남한어’의 북한어.” 유형의 뜻풀이를 우선한다.

허기적거리다 「동」 「북」 ‘허덕거리다’의 북한어.

허기적대다 「동」 「북」 ‘허덕대다’의 북한어.

☞ 일반어 지침에서 ‘-대다’를 ‘-거리다’와 동의어 처리했으므로 주표제어는 ‘-거리다’가 된다. 그러나 ‘허기적대다’는 ‘허덕대다’와 형태가 가까우므로 ‘허덕대다’의 북한어로 처리한다.

- 6) 북한어 표제어 중에서 ‘…를 속되게 이르는 말’ 유형으로 뜻풀이된 표제어는 해당되는 남한어가 있더라도 ‘…의 북한어’ 유형으로 뜻풀이하지 않고 문체적 의미를 살려서 뜻풀이한다. 해당 표제어에 비속어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를 속되게 이르는 말/(속되게) 어찌어찌하다’ 유형으로 뜻풀이하고 비속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 ‘…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비유적으로) 어찌어찌하다’ 유형으로 뜻풀이한다. 속어도 아니고 비유적인 의미도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 표현을 빼고 뜻풀이한다.

병추 「명」 「복」 '병어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 / '병어리'의 북한어. (×)

☞ 문체적 의미를 살려 주기 위해서 “‘병어리’의 북한어.” 유형으로 뜻풀이하지 않는다.

7) 《조선말대사전》에 ‘…의 입음형/시킴형’으로 뜻풀이되어 있는 표제어는 다음과 같이 집필·교열한다.

가) 북한 표제어에 해당되는 남한어의 피동사, 사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남한 표제어’의 북한어.” 유형으로 뜻풀이한다.

간히우다 「동」 「복」 '간히다'의 북한어. \= 우리안에 「간히운」 짐승 / 감옥에 「간히운」 오빠 / 소솔대문과 어마어마하게 높은 토담안에 「간히운」 천쇠는 명절날에도 나오지 못했다. <<생명수, 선대>> §

☞ '간히우다'는 남한어 '간히다'에 해당되므로 뜻 같은 말이 있으면 “‘남한어’의 북한어.”로 뜻풀이한다는 원칙에 따라 “‘간히다’의 북한어.”로 뜻풀이한다.

나) 해당되는 남한어 피·사동사 표제어가 없는 경우에는 “‘…’의 피·사동사.”로 뜻풀이한다.

뛰우다 「동」 「복」 '뛰다'의 사동사. \= 말을 「뛰우다」 §

빼우다¹ # 4 「동」 「복」 '빼다'의 피동사. \= 공격수에게 기운을 「빼운」 방어수 / 그의 이야기에서 자기가 구암에서 땀을 「빼운」 민가네 연자방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어머니와 올케의 슬픈 이야기도 나왔다. <<유격구의 기수, 선대>>§

☞ 남한 사전에는 '뛰다'나 '빼다'에 대한 어휘적 피동이나 사동이 없으므로 “‘남한어’의 북한어.” 유형으로 뜻풀이할 수 없다.

8) 주표제어가 모두 남한어일 경우, 북한 사전에만 있는 ‘-이/히, -하다’ 파생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이/히’가 붙은 파생 부사에 대응하는 남한어가 있으면 “‘남한 부사어’의 북한어.”로 뜻풀이한다.

나) ‘-이/히’가 붙은 파생 부사에 대응하는 남한어가 없는 경우에는 독자 뜻풀이를 하지 않고 남한어 주표제어로 돌려 준다.

다) 주표제어는 남한어이나 ‘-하다’가 붙은 어형이 《조선말대사전》에만 있는 경우에는 독자 뜻풀이하지 않고 남한어 주표제어로 돌려 준다.

라) 주표제어가 “‘남한어’의 북한어.” 유형으로 뜻풀이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표제어도 “‘남한어 부표제어’의 북한어.” 유형으로 뜻풀이한다. 이것은 ‘준말’의 처리와 균형을 맞추기(예를 들어 ‘잘깍’은 ‘잘까닥’의 준말로, ‘잘깍거리다’는 ‘잘까닥거리다’의 준말로 뜻풀이) 위해서이다.

람상 濫賞 ‘남상’의 북한어.

람상하다 ‘남상하다’의 북한어. 람상.

남상 濳賞 뜻풀이.
남상하다 뜻풀이. 남상.

5. “‘…’의 북한어.” 정리

: #1 A #4 'B'의 북한어.

- 1) 'A'와 'B'의 뜻이 같아야 한다.
- 2) 'B'는 남한 사전의 주표제어(=뜻풀이되어 있는 표제어)라야 한다.
- 3) 남한 사전에서 'B'에 해당하는 표제어가 한 개 이상일 경우에는 형태가 가까운 표제어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조선말대사전》에 '렴창'과 '발창'이 동의어 처리되어 있고 '발창' 쪽에 뜻풀이되어 있는데, 금성판 《국어대사전》에서 '염창'과 '발창'이 각각 뜻풀이되어 있다. 이 경우 '렴창'은 “‘염창’의 북한어”로 처리한다.
- 4) ‘…’의 북한어 유형으로 뜻풀이할 때 주표제어가 ‘1’, ‘2’, ‘3’ …’으로 다의어로 처리되어 있으면 해당 북한어도 다의어로 뜻풀이한다. (부표제어의 뜻풀이와 동음이의어 처리와의 균형을 고려함)

A 「북」 'B'의 북한어.

☞ B가 남한어 다의어이면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뜻풀이한다.

- 「북」 「1」 'B「1」'의 북한어.
- 'B「2」'의 북한어.
- 'B「3」'의 북한어.

5) 북한어 'A'에 해당하는 남한어가 두 개가 있을 때, 그중 'A'와 형태가 가까운 것을 'A'의 북한어로 처리한다.

☞ 애초에는 이 경우에도 B의 북한어로 처리했으나 남한어의 비표준어를 뜻풀이할 때는 “‘형태가 가까운 쪽’으로 규범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침을 수정하였다.

롱장 「명」 「북」 '농장'의 북한어.

농장 「명」 야구 따위에서, 공을 치는 일. 또는 그 공. 비슷한말 타구

타구 「명」 야구 따위에서, 공을 치는 일. 또는 그 공. 비슷한말 농장

☞ 예를 들어 선대에 '롱장(弄杖)'이 있고 남한 사전에 '농장'과 '타구'가 있을 경우, 북한어 '롱장'은 '농장'의 북한어로 뜻풀이한다.

《조선말대사전》

렴창 [명] = 발창. [簾窓]

발창 [명] 종이나 유리로 막지 않고 발을 끼여서 만든 창문. 주로 여름에 단다. ㄹ ~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 ⊖렴창. [-窓]

《표준국어대사전》

렴창 「명」 「북」 '염창1(簾窓)'의 북한어.

6. 남한 규범 표기

1) 일반 원칙

가) 북한 표제어의 표기 규범은 남한과 다르므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에 대해 규범적인 정보를 주도록 처리되어 있다. 북한 표제어의 표기법이 한글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과 다른 경우 뜻풀이 뒤 ⇒ 규범 표기는 OO이다.’로 제시한다. 규범적인 정보를 주는 대상은 두음법칙, 한자음의 차이, 사이시옷, 경음, 격음 등이다.

(*우리의 규범에 따른 표기를 ‘남한 규범 표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규범 표기’로 수정함. 20200716)

나) 다음과 같이 뜻풀이 속에 맞춤법에 관한 정보가 나오는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녀성 「명」 「북」 ‘여성’의 북한어.

다) 《조선말대사전》에 사이시옷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남한에서 사이시옷이 나타날 환경이면 사이시옷 형태를 보여 준다. 아래 ‘4) 사이시옷’ 예 참고.

2) 세부 사항

가) 두음 법칙

단사률 斷紗率 「명」 「북」 『공예』 ‘단사율’의 북한어.

나) 모음의 차이

콩깍대기 「명」 「북」 ‘콩깍지’의 북한어.

다) 경음, 격음

세밭이군 稅--- % 「명」 「북」 예전에, 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던 말. ⇒ 규범 표기는 ‘세밭이꾼’이다.

라) 사이시옷

북한의 어문 규범에서는 사이시옷을 인정하지 않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한글 맞춤법에서 사이시옷에 관한 정보를 준다.

바다살[-쌀] [명] 뜻풀이. (선대)

⇒ 「명」 「북」 바다에서 살거나 바다에서 일하면서 오른 살. ⇒ 규범 표기는 ‘바닷살’이다..

㉠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사이시옷은 발음에 따라 표기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북한어의 경우 북한

발음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남한 발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해당 단어를 남한에서 발음했을 때를 가정하여, 즉 남한 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마) 띄어쓰기

표기 자체는 다른 것이 없고 띄어쓰기만 다른 경우에는 보이지 않았고 다른 표기의 차이 때문에 밝힐 때만 남한의 띄어쓰기를 적용하였다.

레스천 lace천 「명」『복』『공예』 ‘레이스 천’의 북한어.

※ 처음에는 모두 밝혔으나 처리 대상이 너무 많아 띄어쓰기 차이는 밝히지 않기로 하였다.

바) 외래어

(1) 러시아 어에서 온 외래어의 경우 러시아어에 대한 우리 표기법에 맞춰 적는다. 예를 들어 ‘트락토르’의 경우 ‘트랙터’로 밝히지 않고 러시아어 표기법에 따라 ‘트락토르’로 밝힌다.

※ 초기에는 남한에서 사용하는 말을 제시하였다. 즉, ‘트락토르’에 ‘트랙터’가 대응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2) 북한 외래어 가운데 표기가 원음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맞춤법 정보를 삽입하지 않는다. 가령, ‘다이너마이트’의 북한어로 뜻풀이된 ‘똥’은 원어가 toluole로 등재되어 있으나, toluole은 toluene의 옛 용어나 toluene의 비표준어로 ‘톨루엔’은 TNT와 관련되어 있다. 북한어에서 ‘똥’은 ‘다이너마이트’를 이르는 말이다.

(3) 순화어와 북한 외래어의 한글 맞춤법 정보 처리 지침

순화 대상어와 결합한 복합어가 북한어로 있으면 원어 제시는 순화 대상어의 것을 따르되 복합어의 한글 맞춤법 정보는 순화어(외래어 표기)에 따르도록 한다.

빠데(←<일>pate)

「명사」『화학』

「1」표면에 생긴 흠집을 메울 때 쓰는 아교풀 같은 것. ‘땀 풀’, ‘메움 밥’, ‘퍼티’로 순화.

「2」『복』‘퍼티’의 북한어.

빠데기 ←pate機 「명」『복』『건설』뜻풀이.

14. 의성 의태어

14-2. 뜻풀이

14-2-1. 문법 정보

1. 품사 정보

4) 북한어에는 문형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다.

14-2-2. 뜻풀이 방식

4.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은 매 뜻풀이 뒤에 모두 제시한다. 이때, 대응되는 표제어의 어깨번호와 뜻풀이 번호까지 모두 제시한다.

☞ 뜻이 여러 개이면 자주 반복적인 표현이 나오게 되어 보기 싫다는 문제점이 있다. 약호를 써서 한 번만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뜻풀이 뒤에 모두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쓸쓸 ㉞ ① 바람이 보드랍고 가볍게 부는 모양. ‘술술㉞’보다 센 느낌을 준다. ② 【북】 찬 바람이 매우 싸늘하게 부는 모양. ③ 【북】 남이 모르게 아주 살그머니 들어가거나 빠져 나오는 모양. ☞ ‘쓸쓸①’만 ‘술술①’의 센말인 경우

쓸쓸 ① 말이 막힘 없이 잘 나오는 모양. ‘술술㉞’보다 센 느낌을 준다. ② 얽히거나 쌓이었던 일들이 쉽게 잘 풀리는 모양. ‘술술㉞’보다 센 느낌을 준다. ③ 【북】 쉽게 들어가거나 빠져 나오는 모양. ☞ ‘쓸쓸①, ②’만 ‘술술③, ④’의 센말인 경우

9. ‘○○-하다’의 뜻풀이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자립형 + ‘-하다’의 경우

나) 대응 남한어가 없는 북한어의 경우

○○-하다 「동」 「북」 뜻풀이
○○-하다 「형」 「북」 뜻풀이

쓸라닥 I ‘쓸라닥거리다’의 어근. II ㉞ 【북】 뜻풀이.

쓸라닥-하다 ㉞ 【북】 뜻풀이

○○ ㉞ 뜻풀이.

○○하다 ㉞ 【북】 뜻풀이.

☞ 이 경우에도 ‘-하다’ 부표제어는 주표제어로 돌린다는 원칙이 우선한다. 다만, 최대한 용례를 찾아서 《조선말대사전》에만 있는 ‘NP하다’를 남한어로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다) 대응 남한어가 있는 북한어의 경우

○○-하다 「동」 ‘○○하다’의 북한어.
○○-하다 「형」 ‘○○하다’의 북한어.

쟁가당 ㉞ ‘쟁강’의 북한어.

쟁가당거리다 ㉞ ‘쟁강거리다’의 북한어.

쟁가당하다 ㉞ 【북】 뜻풀이. (X)

쟁가당하다 ㉞ 【북】 ‘쟁강하다’의 북한어. (O)

2) 어근 + ‘-하다’의 경우

○○-하다 「동」 뜻풀이.
○○-하다 「형」 뜻풀이.

찌릿 ‘찌릿하다’의 어근.

찌릿-하다 ㉠ ① 살이나 뼈마디에 매우 저린 느낌이 일어난다. ② 마음에 매우 저린 느낌이 일어난다.

쑥닥 ‘쑥닥거리다’의 어근.

쑥닥-거리다 【북】 저희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로 가만히 자꾸 이야기하다. ‘쑥닥거리다’보다 센 느낌을 준다. = 쑥닥대다.

쑥닥하다 ㉡ 【북】 => 쑥닥. (X) ㉢ 현재 원고 상태

쑥닥하다 ㉣ 【북】 뜻풀이. (O) ㉤ 북한어는 ‘-하다’가 어근과 결합할 경우, ‘-하다’ 결합형만 제시한다. 따라서 ‘쑥닥하다’는 주표제어가 되고, 독자 뜻풀이를 한다.

3) 어근/부사 + ‘-하다’의 경우

선뜻 I ① ‘선뜻하다①’의 어근 ② ‘선뜻하다②’의 어근 II ㉠ 동작이 빠르고 시원스러운 모양.

선뜻-하다 ㉡ ① ② ③ 【북】 뜻풀이

14. 같은 어휘군 내 단어들의 뜻풀이 배열은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1) 1음절 반복형의 부사만 있는 경우(여린말,센말만 존재)

- 가) 어휘군 공통 뜻풀이 혹은 가장 많이 공통되는 뜻풀이
- 나) 다른 계열의 대응어와 공통되는 뜻풀이
- 다) 작은말 계열과 공통되는 뜻풀이
- 라) 남한어 특수 뜻풀이
- 마) 북한어 뜻풀이

㉢ ‘술술, 술술, 쌀쌀’ 공통 뜻풀이 → ‘술술, 술술, 쌀쌀’의 공통 뜻풀이 → ‘술술, 술술’의 공통 뜻풀이 → 특수 뜻풀이 → 북한어 뜻풀이

2) 1음절 부사와 반복형 부사만 있는 경우(센말만 존재)

- 가) 어휘군 공통 뜻풀이
- 나) 다른 계열의 대응어와 공통되는 뜻풀이
- 다) 반복형과의 공통 뜻풀이
- 라) 남한어 특수 뜻풀이
- 마) 북한어 뜻풀이

㉢ ‘쑥, 쑥쑥, 쑥, 쑥쑥’ 공통 뜻풀이 → ‘쑥, 쑥’ 또는 ‘쑥쑥, 쑥쑥’의 공통 뜻풀이 → ‘쑥, 쑥쑥’ 또는 ‘쑥, 쑥쑥’의 공통 뜻풀이 → 특수 뜻풀이

㉣ 1), 2)의 순서는 《우리말샘》에서 그대로 구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16. 북한어 의성 의태어도 남한어의 준말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남한어에서는 준말 관계로 인정하나 북한어에서는 각기 뜻풀이한 경우에도 남한어의 준말 지침(15. ①,②,③,④,⑤,⑥ 참조)에 따라 준말 처리한다.

썰라닥 I '썰라닥거리다'의 어근. II ㉠【북】 뜻풀이.

썰닥 ㉠【북】 '썰라닥II'의 준말.

☞ 현재 원고 상태

절까닥 ㉠【북】 크고 단단한 물체가 맞부딪칠 때 나는 고르지 못한 소리.

절깍 ㉠【북】 크고 단단한 물체가 맞부딪칠 때 좀 빠르고 고르지 않게 나는 소리.

절깍하다 ㉠【북】 뜻풀이.

☞ 수정된 원고

절까닥 ㉠【북】 크고 단단한 물체가 고르지 못하게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절깍 ㉠【북】 '절까닥'의 준말. ☞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절까닥'과 '절깍'을 달리 뜻풀이하였으나 우리 사전에서는 남한어의 준말 지침에 따라 준말로 처리한다.

절깍하다 ㉠【북】 '절까닥하다'의 준말.

19. 북한어 의성 의태어의 뜻풀이도 남한어의 의성 의태어 뜻풀이 형식을 따르도록 한다. 하지만 어감을 나타내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스락 ㉠【북】 가는 꼬챙이 같은 것이 종이 위를 가볍게 쓸리면서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 ㉠【북】 가는 꼬챙이 같은 것이 종이 위에 가볍게 끌릴 때 나는 소리.

가뽁가뽁 ㉠【북】 여러 그릇에 다 가득하게 잔뜩 차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북】 여러 그릇에 다 또는 매우 가득하게 차 있는 모양.

20. 북한어 '-거리다/대다' 결합형의 뜻풀이 방식

1) 남한 대응어가 있는 경우

허기적거리다 ㉠【북】 '허덕거리다'의 북한어.

허기적대다 ㉠【북】 '허덕대다'의 북한어.

☞ 일반어 지침에서 '-대다'를 '-거리다'와 동의어 처리했으므로 주표제어는 '-거리다'가 된다. 그러나 '허기적대다'는 '허덕대다'와 형태가 가까우므로 '허덕대다'의 북한어로 처리한다.

2) 남한 대응어가 없는 경우

○○-거리다 ㉮ 뜻풀이.

○○-대다 ㉮ 뜻풀이 「동의어」 ○○거리다

21. 북한어 뜻풀이의 수정 : 용례도 없고 정확한 의미를 모를 경우, 북한어 뜻풀이는 교정 수준으로 하여 의미의 침착이 없도록 한다. 용례가 있는 경우는 용례를 참조하여 처리한다.

22. 남한어와 어형이 유사하면서 뜻풀이가 똑같거나 거의 같은 북한어 의성 의태어는 “대응 남한어”의 북한어.” 형식으로 뜻풀이한다. 현재 이러한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북한어 의성 의태어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같은 어휘군에 속한 단어들은 그 대응 남한어를 같은 어휘군에 속한 것들로 일치시킨다. 대응 관계를 판단할 때는 같은 어휘군의 단어들, 유사한 형태의 단어들을 모두 참조한다.

㉮ 현재 원고 상태

쟁강 ㉮ 얇은 쇠붙이나 유리 따위가 부러지거나 맞부딪칠 때 나는 가벼운 소리.

쟁가당 ㉮ [북] ‘쟁그랑’의 북한어.

쟁그랑 ㉮ 얇은 쇠붙이나 유리 따위가 떨어지거나 다른 물체에 부딪칠 때 나는 소리.

쟁경 ㉮ 얇고 조금 무거운 쇠붙이 따위가 부러지거나 부딪칠 때 나는 가벼운 소리.

쟁거덩 ㉮ [북] ‘쟁경’의 북한어.

쟁그령 ㉮ 얇은 쇠붙이나 유리 따위가 부딪치거나 떨어질 때 나는 소리.

쟁강 ㉮ 얇은 쇠붙이나 유리 따위가 떨어지거나 부딪쳐 울릴 때 나는 소리. ‘쟁강’보다 센 느낌을 준다.

쟁가당 ㉮ [북] 얇은 쇠붙이나 유리 따위가 세게 떨어지거나 부딪칠 때 나는 소리.

쟁그랑 ㉮ 얇은 쇠붙이나 유리 따위가 떨어지거나 다른 물체에 부딪칠 때 나는 소리. ‘쟁그랑’보다 센 느낌을 준다.

쟁경 ㉮ 얇은 쇠붙이나 유리 따위가 세게 부러지거나 부딪칠 때 나는 소리. ‘쟁경’보다 센 느낌을 준다.

쟁거덩 ㉮ [북] 얇은 쇠붙이나 유리 따위가 세게 부딪치거나 떨어질 때 나는 소리.

쟁그령 ㉮ 얇은 쇠붙이나 유리 따위가 세게 부딪치거나 떨어질 때 나는 소리.

㉮ 수정된 원고

쟁강 ㉮ 얇은 쇠붙이나 유리 따위가 부러지거나 맞부딪칠 때 나는 가벼운 소리.

쟁가당 ㉮ [북] ‘쟁강’의 북한어. ㉮ ‘쟁가당’과 ‘쟁강’, ‘쟁그랑’, ‘쟁거덩’과 ‘쟁경’, ‘쟁그령’의 뜻풀이로 보아 ‘쟁가당’은 ‘쟁강’보다는 ‘쟁그랑’의 뜻에 더 가깝다. 그러나 형태상으로는 ‘쟁강’과 더 가깝다. ‘쟁가당, 쟁거덩, 쟁가당, 쟁거덩’은 형태상으로 ‘쟁강, 쟁경, 쟁강, 쟁경’의 본말 형태인 것이다. 이 경우에는 형태상으로 더 가까운 ‘쟁강’ 쪽을 대응 남한어로 인정한다. 그리고 같은 어휘군에 속한 다른 단어들의 대응형도 이에 준하여 ‘쟁강’ 어휘군으로 한다.

쟁그랑 ㉮ 얇은 쇠붙이나 유리 따위가 떨어지거나 다른 물체에 부딪칠 때 나는 소리.

쟁경 ㉮ 얇고 조금 무거운 쇠붙이 따위가 부러지거나 부딪칠 때 나는 가벼운 소리.

쟁거덩 [북] '쟁경'의 북한어.

쟁그렁 [북] 얇은 쇠붙이나 유리 따위가 부딪치거나 떨어질 때 나는 소리.

쟁강 [북] 얇은 쇠붙이나 유리 따위가 떨어지거나 부딪쳐 울릴 때 나는 소리. '쟁강'보다 센 느낌을 준다.

쟁가당 [북] '쟁강'의 북한어.

쟁그랑 [북] 얇은 쇠붙이나 유리 따위가 떨어지거나 다른 물체에 부딪칠 때 나는 소리. '쟁그랑'보다 센 느낌을 준다.

쟁경 [북] 얇은 쇠붙이나 유리 따위가 세게 부러지거나 부딪칠 때 나는 소리. '쟁경'보다 센 느낌을 준다.

쟁거덩 [북] '쟁경'의 북한어.

쟁그렁 [북] 얇은 쇠붙이나 유리 따위가 세게 부딪치거나 떨어질 때 나는 소리.

재각재각² [북] ① 작고 단단한 물건이 자꾸 가볍게 맞부딪치거나 부러질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② 시계 따위의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나는 소리.

재각제각 [북] '재각재각'의 북한어. (x)

제각제각 [북] 단단한 물건이 가볍게 부딪치거나 부러질 때 잇따라 밝게 나는 소리. (○)
☞ '제각제각'과 '재각재각'의 뜻풀이가 유사하지만, 조선말대사전에는 '재각재각'과 '제각제각'이 모두 등재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남한어에는 없는 북한어 '제각제각'은 남한어 '재각재각'의 북한어가 아니다. 따라서 독자 뜻풀이한다.

찌릿 '찌릿하다'의 어근.

찌릿-하다 [북] ① 살이나 뼈마디에 매우 저린 느낌이 들다. ② 마음에 매우 저린 느낌이 들다.

찌릿 [북] 갑자기 찌르는 것 같은 자극을 받는 모양. ☞ 형태상 남한어의 '찌릿'과 가깝지만, '찌릿'은 어근이고 '찌릿'은 부사이므로 대응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품사가 다르므로 남한어와 북한어의 대응 관계를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찌릿하다'와 '찌릿하다'의 관계는 인정한다. 이 경우 '찌릿하다'의 뜻풀이를 참고하여 '찌릿'의 뜻풀이를 고칠 것인가의 여부 결정 요망!

찌릿하다 [북] '찌릿하다'의 북한어. ☞ 형태상 '찌릿하다'와 가깝고 의미도 거의 같다. 따라서 주표제어가 남한 대응어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응 남한어”의 북한어” 형식으로 뜻풀이한다.

찌릿 [북] 콧 쑤시는 것처럼 저린 느낌. ☞ '찌릿'과 '찌릿'은 형태상으로 유사하지만, '찌릿:찌릿'의 관계가 '찌릿:찌릿'의 관계보다 형태상 유사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찌릿'을 '찌릿'의 남한 대응어로 보지 않는다. 게다가 이 경우 '찌릿'은 어근이고 '찌릿'은 부사이므로 '찌릿'과 '찌릿'은 대응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찌릿-하다 [북] 콧 쑤시는 것처럼 저리다. ☞ '찌릿하다'는 의미상 남한어 '찌릿하다'와 대응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찌릿하다'는 '찌릿하다'보다는 북한어 '찌릿하다'와 형태상 유사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찌릿하다'와 '찌릿하다'의 대응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23. 북한어에 대응되는 남한어가 한 개 이상일 경우에는 형태가 가장 가까운 표제어를 대응 남한어로 제시한다. 또한 대응 관계를 판단할 때는 같은 어휘군의 단어들, 유사한 형태의 단어들 모두 참조한다.

15. 부호의 사용

15-3. 따옴표 사용 지침

2. 작은따옴표의 용법

1) 기본 표제어로 뜻풀이를 돌릴 때

: 작은따옴표 안에 있는 단어가 표제어로 올라 있고 뜻풀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 뜻풀이에 작은따옴표가 사용되는 표제어는 그 의미를 작은따옴표 안에 있는 단어의 의미에 의존한다.

라) 북한어·다듬은 말

나가딩굴다 ㉮「북」 ‘나뉘굴다’의 북한어. \=아이는 마당에서 마구 「나가딩굴며」 떼를 쓰기 시작했다. / 영감의 팔굽에 밀리어 그만 「나가딩굴어」 버렸다. <<NKYAA000:045>> \\$

나눔수문 ㉮「북」 ‘분수문’의 북한어.

6) 북한어에서 한글 맞춤법 정보를 보일 때

- 이때 따옴표 안에 든 어구는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다.

소철레루 ㉮「북」 좁은 철길에 놓는 레일. \⇒규범 표기는 ‘소철레일’이다.

8) 용례에 제시된 경우

- 북한에서는 작은따옴표 대신 ‘< >’을, 큰따옴표 대신 ‘<< >>’을 사용한다. 북한 문헌의 인용인 경우 이 기호는 남한어의 작은따옴표, 큰따옴표로 각각 바꾼다.

나가딩굴다 ㉮「북」 돌아서는 적 장교의 등때기를 꺾어 찢히었다. 높은 ‘혁’ 하고 허파 터지는 소리를 지르며 진창 속에 모로 나가딩굴다.《선대》

VII. 용례

1. 기본 원칙

1-2. 북한어 용례

1. 모든 표제어에는 용례를 보이는 것이 원칙이나, 북한어의 경우에는 《조선말대사전》에 실린 용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용례가 없을 경우 임의로 작성하지 않는다.
2. 모든 용례는 《조선말대사전》의 용례와 연구원에서 확보한 문헌에서 나오는 용례로 국한한다. 연구원에서 확보한 용례는 인용문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국한한다.
3. 북한어 용례는 예구와 예문의 순서로 제시하되 ‘《선대》에서 작성한 어구 → 《선대》에서 작성한 문장 → 담당자가 추가한 용례(출전이 기호로 표시된 소설 용례) → 《선대》에서 인용한 문장(주로 소설)’ 순으로 제시한다.

4. 《조선말대사전》의 용례를 그대로 옮길 때에는 용례의 어휘와 맞춤법은 《조선말대사전》을 그대로 따르고 띄어쓰기만 한글 맞춤법에 따른다.

2. 제시 범위

3. 소설, 수필, 신문, 잡지, 교과서, 기타 문헌, 방송 대본 따위의 예도 허용한다. 또, 번역문은 인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조선 왕조 실록》은 번역본을 인용할 수 있다.

☞ 북한어 용례는 작성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인용을 하여야 한다. 북한어는 신문을 인용할 경우 ‘로동신문’이라고 출전을 밝힌다. 부적절한 용례이거나 정치적인 색채가 짙은 표현이 아니라면 용례로 인정하고 출전을 밝힌다.

3. 제시 방법

3-1. 현대어

9. 인용례 중 작중 인물간의 대화는 큰따옴표로 표시한다. 이는 대화문이 여럿 동시에 인용될 때와 대화문과 지문이 동시에 인용될 때에 한한다. 즉, 대화문의 경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큰따옴표를 사용한다. 대화와 대화 사이는 한 칸을 띄운다.

예) “어디 가나?” ∨ “집에 간다.” <<…>>

돌연 영철의 외침이 들렸다. “위험해!” <<…>>

☞ 대화문 둘을 인용하면서 각각 또는 어느 한쪽의 일부만 인용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는 필요하면 앞 부분 생략 표시도 사용할 수 있다. 예) “…인용문” ∨ “인용문…”

- 대화문만 하나, 혹은 대화문 하나의 일부만 인용할 때는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 한낮이 가깝건만 미음 한 모금을 얻어먹지 못했고, 모두가 기운이 빠져서 촌보도 옮길 수 없다고 하오. <<…>>

- 북한어에서는 작은따옴표 대신 ‘< >’을, 큰따옴표 대신 ‘<< >>’을 사용한다. 북한 문헌의 인용인 경우 맞춤법을 북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데 이 기호는 남한어의 작은따옴표, 큰따옴표로 각각 바꾼다.

예) 그 완고한 영감들이 내세우는 <리상촌>을 뒤집어엮고 혁명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소? => ‘리상촌’

3-2 북한어

1. 《조선말대사전》의 작성문 용례를 인용할 때에는 《조선말대사전》의 용례를 그대로 인용하고 띄어쓰기만 한글 맞춤법에 따른다. 출전은 용례 끝에 <<선대>>로 표시한다.

록비작물 [명] 뜻풀이. || 논밭에 록비작물을 심고 질 좋은 거름과 광물질비료를 많이 내어 지력을 높이었다.

⇒ 「명」 「복」 뜻풀이. \= 논밭에 「록비작물」 심고 질 좋은 거름과 광물질 비료를 많이
내여 지력을 높이었다. <<선대>> \\$

2. 《조선말대사전》의 인용문 용례를 재인용할 때는 《조선말대사전》의 용례를 그대로
인용하고 띄어쓰기만 한글 맞춤법에 따른다. 출전 표시는 《조선말대사전》의 출전을 옮겨
오되 ‘장편소설, 단편소설’은 삭제하고 끝에 ‘선대’를 넣는다.

록신 [명] 뜻풀이. || 그리고 저편의 록용은 아시는바와 같이 사슴의 뿔인데 사슴에게 달린 것
은 무엇이나 령약으로 친답니다. 록신, 록용, 록정혈, 록태, 록포, 록혈 등이 모두 약이
됩니다.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

⇒ 「명」 「복」 뜻풀이. \= 그리고 저편의 록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슴의 뿔인데 사슴에게
달린 것은 무엇이나 령약으로 친답니다. 「록신」, 록용, 록정혈, 록태, 록포, 록혈 등이 모
두 약이 됩니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선대>> \\$

3. 《조선말대사전》의 문장 용례를 고쳐서 다듬을 때에는 용례의 어휘와 맞춤법은 《조
선말대사전》을 그대로 따르고 띄어쓰기만 한글 맞춤법에 따른다. 문장 용례를 고쳐서
다듬을 때는 반드시 선대에 있는 문장을 대상으로 수식어를 가감하는 정도로 그친다.
작성 문장은 만들지 않는다.

로역장 [명] 뜻풀이. ||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왜놈들은 조선의 청장년들을 로역장으로 수없이
끌고갔다.

⇒ 「명」 「복」 뜻풀이. \=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에 왜놈들은 조선의 청장년들을 「로역장으
로」 수없이 끌고 갔다. \\$

☞ 《조선말대사전》의 오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정한다. 인용문을 재인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붓이 몽당 달아서 몽당붓이 되다 ⇒ ‘달아서’로 수정.

4. 대응하는 남한어가 있는 북한어의 경우(“‘…’의 북한어.”도 포함)에도 《조선말대사
전》에 용례가 있으면 용례를 넣는다.

갑작부자 「명」 「복」 ‘벼락부자’의 북한어. \= 해방이 되자 우리는 옥답과 많은 밭을 그저 분
여 받아 「갑작부자가」 되었답니다. <<선대>> \\$

5. 《조선말대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용례가 해방 이전에 발표된 소설인 경우에는 용례
집을 검색하여 해당 표제어가 확인되면 남한어로 처리하고 방언인지 표준어인지 결정
한다. 《조선말대사전》에 인용된 <림격정> 용례는 해당 용례를 확인하여 홍명희 <임격
정>이면 고치고 없으면 그대로 놓아 둔다. 북한어 인용례에서 최서해의 작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표제어가 두음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면 그대로 둔다.

리상촌 『깨끗한 초가나 지어 놓고 글도 읽고 농민들을 가르쳐서 「리상촌을」 건설하리라.<<탈출기, 선대>> ▲

림리하다 「형」 「복」 「임리하다」의 북한어. 『입과 코에는 피 흘린 흔적이 「림리하고」 저고리와 치마 앞은 피투성이였다.<<박돌의 죽음, 선대>> ▲

임리-하다 『… 입과 코에는 피 흘린 흔적이 「임리하고」 저고리와 치마 앞은 피투성이가 되었다.<<최서해, 박돌의 죽음>> ▲

☞ 연구원에서 보유한 원문은 1925년 《조선 문단》에 발표한 것이다. 거기에도 ‘리상촌’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용할 때의 기준은 지금 다시 간행한다면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최서해 <탈출기>의 해당 부분은 남한에서는 ‘이상촌’이 되어야 하고 북한에서는 ‘리상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북한어의 용례로 둔다. ‘임리하다’는 용례가 드문데 우연히 남한어, 북한어에서 모두 인용했다. 그대로 둔다. 가급적 이런 경우는 나오지 않게 용례를 삭제하거나 교체한다.

3-5. 마침표의 사용 범위

3. 문장으로 끝난 용례는 끝에 마침표를 찍으며, 완전한 문장이 아닌 경우(문맥 없이 주어 등의 주요 성분이 결여되고 시제가 중화된 경우)에도 마침표를 찍는다..

3) 북한어: <<선대>>의 경우는 문장 용례가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현대어 인용문의 경우와 같고 구 용례가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옛말의 경우와 같다. 북한어의 구 용례 역시 남한어와 마찬가지로 한 개든 여러 개든 맨 앞에 오든 중간에 오든 맨 뒤에 오든 상관없이 모두 각각에 마침표를 찍는다.

거리길 「명」 「북한어」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도시의 길. 도시 간선, 구역 간선, 구획 거리 길 따위가 있다. 『대학 앞 {거리길의} 록지./신철민은 연구소에 올 때마다 늘 그리는 버릇대로 {거리길의} 버리고 뒤문으로 해서 제철소 구내에 들어섰다.<<변희근, 뜨거운 심장>>./{거리길의} 한참 더 가다가 골목 안에 들어섰다.<<선대>>

5. 출전

5-1. 현대어

5. 《조선말대사전》에 나온 구 용례는 출전을 밝히지 않고 인용하되 《조선말대사전》에 구로 나오는 것이라도 명사+동사처럼 짧은 구가 아니라면 출전을 밝힌다.

☞ 북한어에서 짧은 구에 출전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긴 구라면 작성자의 특징이 들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출전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 실제 작업에서는 어디까지를 짧은 구로 보느냐에 혼란이 많았다.

혜죽 「부」 『복』 은근히 흐뭇한 태도로 슬며시 웃음 짓는 모양. 『한 번 혜죽 웃고 마는 것이 마치 세상 리치를 다 아는 어른처럼 보이는 아이. ◇

=> 『한 번 혜죽 웃고 마는 것이 마치 세상 리치를 다 아는 어른처럼 보이는 아이. <<선대>>. ◇

VIII. 관련 어휘

2. 참고어휘

2-2. 세부 집필 지침

7. 의성·의태어

- 2) 참고어휘는 남한어의 표준어에서만 제시한다. 이때, 제시되는 참고어휘 역시 남한어의 표준어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어는 참고어휘로 제시하지 않는다.
- 6) 북한어의 경우에는 센말, 거센말을 참고어휘로 제시하지 않는다.

7. 기타 유의 사항

2. 북한어나 비규범표기, 옛말은 관련 어휘로 제시될 수 없으며, 관련 어휘를 제시하지도 않는다. 다만, 방언의 경우 《표준》에서는 관련 어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우리말샘》에서는 관련 어휘를 제시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북한어의 경우 준말만 밝혀줄 수 있다.)
 - 1) 해당 방언에 나타나는 동의어, 본말, 준말, 비슷한 말, 반대말, 높임말, 낮춤말을 밝힌다. 사용 지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밝히지 않는다.
 - 2) 동의어는 개념적 의미, 연상적 의미, 문체적 의미가 모두 같고 모든 문맥에서 교체 가능한 단어로써 품사도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
 - 3) 관계를 맺는 어휘 중 한 개의 어휘에만 표시한다.

IX. 어원

2. 제시 범위

1. 해당 표제어의 최초 출현형과 역사적 변천
 - 2) 현대어 표준어만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시하며 비표준어, 북한어, 옛말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다.
2. 표제어의 어원적 분석
 - 1) 현대 국어 표준어, 혹은 그것의 가장 선대형을 대상으로 어원적 분석을 한다. 비표준어, 방언, 북한어, 옛말에 대해서는 어원적 분석을 제시하지 않는다.

X. 관용구·속담

1. 표제어

1-1. 선정

3. <<조선말 대사전>>에만 있는 속담이나 관용구도 표제어로 선정한다. 관용구나 속담의 주표제어가 북한어일 경우는 해당 관용구, 속담은 당연히 북한 관용구, 속담이 된다. 하지만 북한 사전에만 실려 있는 속담이나 관용구라도 남한 문헌을 검색한 용례 목록에 나타나거나, 집필자가 남한에서도 사용하는 어구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남한어로 처리한다. 맞춤법이나 표준어 선정의 차이로 생기는 남북 간 차이는 해당 관용구, 속담을 따로 신지 않는다. 예컨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에서 ‘구렁이’는 ‘구렁이’의 북한식 표기이다. 따라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가 남한 속담으로 있는 경우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는 북한 속담으로 따로 등재되지 않는다.

【가래장부는 동네 존위도 모른다】「북」가래장부는 뒤에 서 있는 마을 어른도 몰라 보고 떠 받든다는 뜻으로, 장부군 뒤에 쓸데없이 서 있지 말라는 말.

8. 관용구의 구성 성분은 모두 표제어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속담은 표제어로 없는 구성 성분이 있을 수 있다.

금 잘 치는 서순동(徐順同)이라
널도깨비가 생도깨비를 잡아간다

☞ 표제어로 없는 구성 성분이 있으면 판단에 따라서는 속담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 북한 속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북한 속담 ‘계추리 소 밭 쪽에 디디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조선말 대사전>>에 ‘디디운다’가 표제어로 없다. 속담 자체를 삭제했다.

1-2. 표기

3. 표제어에서 교체 가능한 성분은 [] 안에 표시한다. [] 앞에 제시되는 대표형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형태의 단어 어절로 한정하고 [] 안에는 대표형과 교체 가능한 단어 또는 어절 이상의 단위가 올 수 있다. 단, 교체 가능형이 비표준어인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는다. 교체 가능한 성분이 조사일 경우에는 그 조사가 포함된 어절 전체를 [] 안에 제시한다. 교체 가능한 성분이 여럿 있을 경우에는 ‘/’로 구분해 주고, 가나다순으로 제시한다. 주표제어의 교체 가능 성분은 제시하지 않는다.

☞ 조사의 경우 교체 가능한 성분은 격 조사로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주 어울리는 경우에는 보조사도 예외로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기 원고에서 ‘콧방귀만 콧방귀를 뀌다’로 제시하였는데 ‘콧방

귀만'은 삭제한다. '만' 이외에도 다른 조사도 붙을 수 있어 필수적인 성분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용례에서는 '룻방귀부터'가 나왔다.

가을에 내 아비[애비] 제도 못 지내거든 봄에 의붓아비[의붓애비] 제 지낼까 × ㉠ '애비'는 '아비'의 북한어, 방언이므로 교체 가능형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 애비에 그 아들, 그 남편에 그 녀편네 ○ : 이 속담은 북한 속담이다. 그러므로 북한어인 '애비'를 '아비'로 고쳐서 등재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등재한다.

7. 북한 속담·관용구는 표기를 《조선말대사전》을 따르되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을 따른다. 제시 형식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수정한다.

길가의 조약돌 같다[처럼]
⇒ 길가의 조약돌처럼[조약돌 같다]
㉠ <<조선말 대사전>>에서 보이는 명백한 오표기는 수정하여 제시한다.
그물을 벗어난 새도 함정에서 뛰여 난 범이다. ⇒ '새요'
눈뿌리가 뜨겁다[따겁다] ⇒ '따갑다'

2. 뜻풀이 형식

2-3. 북한 속담·관용구

1. <<조선말 대사전>>에만 있는 속담이나 관용구는 뜻풀이 앞에 「북」 표시를 한다. 단, <<조선말 대사전>>에만 실려 있는 경우라도 남한에서도 사용한다고 생각되면 남한어로 인정하여 「북」 표시를 하지 않는다.
2. 속담이나 관용구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일부만이 북한 특유의 의미일 경우에는 뜻풀이 번호 뒤에 「북」 표시를 한다. 북한 뜻은 남한 뜻의 풀이가 끝난 뒤에 배열한다. 다른 사항은 남한어 집필 방식에 준한다.

「북」 「1」 뜻풀이.
「2」 뜻풀이. ㉠ 「1」, 「2」 뜻풀이가 모두 북한 뜻풀이일 때.
「1」 뜻풀이.
「2」 「북」 뜻풀이. ㉠ 「2」 뜻풀이만 북한 뜻풀이일 때.

3. 북한 관용구나 속담끼리는 동의어로 처리하지만, 남한 관용구나 속담과 동의 관계에 있는 북한 관용구, 속담은 “‘남한 기본 표제어’의 북한 관용구.”, “‘남한 기본 표제어’의 북한 속담.”의 형식으로 뜻풀이한다. 단, 북한 관용구나 속담끼리 동의 관계일지라도 이에 대응하는 남한 관용구나 속담이 있는 경우에는 “남한 기본 표제어’의 북한 관용구.”, “남한 기본 표제어’의 북한 속담.” 형식으로 뜻풀이하고 북한 관용구, 속담끼리의 동의 관계는 밝히지 않는다. 남한 기본 표제어는 ‘()’, ‘[]’의 내용까지 포함하여 표제어로 제시된 형태를 그대로 보인다.

【가래장부는 동네 존위도 모른다】「복」 가래장부는 뒤에 서있는 마을 어른도 모르고 떠받치는 뜻으로 장부군 뒤에 쓸데없이 서있지 말라고 경계하여 이르는 말. ≙ 가래장부는 본고를 좌수도 몰라 본다.

【가래장부는 본고를 좌수도 몰라본다】「복」 = 가래장부는 동네 존위도 모른다.

【가물에 돌 친다】 물이 없는 가물에 강바닥에 있는 돌을 미리 치워서 물길을 낸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물에 도랑 친다】「복」 ‘가물에 돌 친다’의 북한 속담.

계사니목청을 내다 「복」 계사니가 우는 소리와 같이 목청을 높여 갑자기 짹짹 소리를 지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계사니소리를 지르다. \= 밤낮 「계사니목청을 내니」 지겨워 들을 수가 없다. \

계사니소리를 지르다 「복」 계사니가 우는 소리와 같이 목청을 높여 갑자기 짹짹 소리를 지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계사니목청을 내다. \= 「계사니소리만 지르지니」 말고 조용히 이야기해 보지. \

골수에 박히다[뿌리박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빠져 나갈 수 없게 마음 속 깊이 자리잡히다. \= 그는 그 일만큼은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골수에 박힌」 사람이다. \

골수에 배기다 ‘골수에 박히다[뿌리박히다]’의 북한 관용구. \= 그는 어려서부터 출세해야 한다는 말을 「골수에 배기도록」 들으며 자랐다. <<선대>> \

【국에 덴 놈 물[냉수] 보고도 분다[놀란다】 어떤 일에 한 번 혼이 나면 그와 비슷한 것만 보아도 공연히 겁을 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국에 덴 놈이 랭수를 떠 놓고 분다】「복」 ‘국에 덴 놈 물[냉수] 보고도 분다[놀란다]’의 북한 속담.

【국에 덴 놈이 랭수를 불고 먹는다】「복」 ‘국에 덴 놈 물[냉수] 보고도 분다[놀란다]’의 북한 속담.

4. 기타

3. 북한 속담·관용구에서는 한글 맞춤법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다.

■ 띄어쓰기

6. 북한어의 띄어쓰기

1. 표제어

- 1) 북한어의 어휘 선정 원칙도 남한어와 동일하다. 일반어는 단어로 판단된 말만을 등재하고 전문어나 고유 명사는 구 구성이라도 등재한다.
- 2) 북한어로 판단된 표제어는 일반어는 물론이고 전문어나 고유 명사라도 아무 표시 없이 띄어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3) 북한어와 남한어가 같은 표제어 안에 있을 경우에는 남한의 띄어쓰기를 따른다.

2. 뜻풀이, 한글 맞춤법 정보

- 1) 북한어라도 남한어만을 사용하여 뜻풀이하고 남한어의 띄어쓰기 원칙에 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글 맞춤법 정보의 띄어쓰기도 마찬가지로 원칙을 적용한다.
- 2) 그러나 실제 원고에서는 북한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뜻풀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전에 없는 단어도 부득이 쓸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남한어 뜻풀이에 북한어가 사용된 것도 있다. 다음의 경우로 나누어서 해결하기로 한다.
 - 가) 북한어 일반어가 북한어 표제어의 뜻풀이나 한글 맞춤법 정보에 사용되었으면 그것은 일단 단어라고 인정하고 붙여 쓴다.

예) '가두녀성'이라는 북한어가 다른 북한어 표제어의 뜻풀이로 사용되었다면 붙여 쓴다.

- 나) 북한어 전문어가 뜻풀이나 한글 맞춤법 정보에 사용되었으면 남한식의 띄어쓰기를 가정하고 띄어쓰기를 한다.

예 1) '랭간압연강'은 '냉간 압연강'의 북한어로 되어 있으므로 '랭간 압연강'과 같이 띄어쓰기를 한다.

예 2) '랭간압연기'는 한글 맞춤법으로는 '냉간 압연기'이므로 '랭간 압연기'와 같이 띄어쓰기를 한다.

예 3) 또 '배각법[복]'이라는 표제어의 뜻풀이 '두 번째의 침로각이 처음 침로의 두 배 되는 ……'에서 '침로각'은 북한어 전문어로만 있는데, 남한어 표제어라면 '침로^각'이 아니라 '침로-각'일 것이라고 보아 붙여 쓴다. 그러나 여기에는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4) '덮인곰팡이'의 한글 맞춤법 정보 '덮인곰팡이': 우리말로 된 동식물의 품종명은 전체를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 다) 만약 북한어 표제어 뜻풀이에 북한어로든 남한어로든 표제어에 아예 없는 말이 사용되었다면 담당자의 판단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를 수밖에 없다. 주로 대구나 열거로

이루어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 1) '방망01'의 뜻풀이가 '땀줄에 조임 장치가 있고 발줄에 자루 그물이 달린 ……'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땀줄'은 표제어로 없고 '발줄'은 표제어로 있다. 그러나 대구적인 문맥에서 쓰인 경우이므로 '땀줄'은 '발줄'에 맞춰 띄어 쓰지 않는다.

예 2) '방향기'의 뜻풀이가 '자침으로 잦 방위로 수평각 또는 수직각을 측정하는 기구'로 되어 있는데, '수평각'은 표제어로 있고 '수직각'은 표제어로 없다. 그러나 대구적인 문맥에서 쓰인 경우이므로 '수직각'은 띄지 않는다.

☞ 주의: 이는 남한어 뜻풀이에서도 적용된다. 예컨대 어떤 뜻풀이에서 '숫을추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표제어로 없더라도 한 단어로 보아('숫을 추녀'라고 구로 쓰면 무슨 뜻인지 모른다) 붙여 쓴다. 그러나 아무리 열거적인 문맥이라도 전문적이지 않은 말들은 표제어를 따라 띄어쓰기를 한다.

라) 만약 남한어 표제어의 뜻풀이에 북한어가 사용되었다면 그 말은 남한어에서는 구라고 보고 띄어쓰기를 한다.

예) 남한어 표제어 '박쥐목'의 뜻풀이에서 '뒷발가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남한어 표제어로서는 없고 북한어 표제어인 '뒤발가락'으로서만 있으므로 남한어로는 구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뒤 발가락'으로 띄어 써야 한다.

3. 용례

- 1) 북한어의 용례에서도 띄어쓰기는 남한어의 띄어쓰기를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2) 북한어로는 구이고 남한어로는 단어인 항목이 나오면 표기는 북한식으로 하고, 띄어쓰기는 남한식을 따른다.

예) 북한어 표제어 '량도03' 속의 용례에서 '적들은 도로를 오래 동안 봉쇄함으로써 ……'가 나오는데, 북한어로는 '오래동안'(북한어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음)이라는 표제어가 없고 남한어는 '오랫동안'이라는 표제어가 있으므로 띄어쓰기는 남한식을 따르고 표기는 북한식을 따라서 오래동안이라고 붙여서 쓰면 된다.

3) 용례 속의 해당 표제어는 띄어 쓰지 않는다.

예) 전문어 표제어 '예술소조' 속의 용례: 예술소조에서 근로자들의 예술적 재능이 꽃피어 나다

☞ 위의 예에서 '예술소조'는 전문어로서 남한어의 띄어쓰기에 따르면 '예술 소조'로 띄어 쓰게 될 가능성이 많다(만약 남한어의 표제어라면 '예술'소조[예]라고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러나 해당 표제어의 띄어쓰기 상태와 똑같이 보이기 위해 모두 붙여 쓴다.

4. 관련어, 참고 어휘, 다듬은 말: 북한어의 관련어, 참고 어휘, 그리고 'A의 다듬은 말', 'A로 다듬음'과 같은 뜻풀이에서의 A는 표제어를 찾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표제어 상태를 그대로 보여 줄 수 있도록 띄어 쓰지 않는다. 북한어 표제어는 어느 경우에도 띄어 쓰지 않기 때문이다.

11. 1 음절 한자어의 띄어쓰기

* 원고에 붙여 쓰여져 있는 형식들이 복합어인지 구인지 분명하지 않아 띄어쓰기에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다. 기본 원칙은 표제어에 있으면 붙이고 없으면 띄어 쓴다는 것이지만, 모든 합성어와 임시어를 어휘로 등재할 수 없고, 또 띄어쓰기가 관용에 따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원칙에만 의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표제어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항상 붙여 쓰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아래에 목록을 제시한다.

- ☞ 항상 붙여 쓰는 경우는 《표준 국어대사전》에 명사로 제시된 일부 1 음절 한자어와 고유어이다. 이들은 원고에 ‘((일부 명사 앞/뒤에 붙어))’라는 기타 문법 정보와 함께 용례가 제시된다.
- ☞ 일부 1 음절 고유어나 새로 추가되는 접사 목록도 함께 제시하였다.
- ☞ 표제어 등재 여부에 따라 띄어쓰기하는 경우를 뒤에 제시하였다. 이는 혼동의 여지가 많은 경우를 수집하여 정리한 것이다.

1. 항상 붙여 쓰는 경우

【가】 강가, 냇가, 우물가, 물동가

- ☞ 북한어에서도 사이시옷만 넣지 않고 모두 붙여 쓴다.

12. 생물, 동물, 식물 용어(부위 명칭) 목록

* 이 목록에서의 용어들은 표제어에 없을 수도 있으나(표제어에 있는 것은 ○ 표시를 하였음),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지 않고 이 목록에서 규정한 띄어쓰기를 그대로 따른다.

- ☞ 굵은 색으로 표시하고 각주를 단 단어는 전문어 감수자가 표제어를 수정·추가·삭제함에 따라 기존 지침과 띄어쓰기가 달라진 것이다. 기존 지침에 ‘(0)’, ‘(북)’ 표시가 누락된 단어에도 각주를 달았다. 또한 내부에서 붙여 쓰도록 올린 단어도 목록에 넣고 각주를 달았다.

1. ㄱ

가로 흠, 가로세로 흠, 가로띠, 가로띠 무늬, 가로 맥, 가로면, 가로선, 가로
 용기선, 가로점 무늬, 가로줄기, 가루썩, 가름벽, 가슴다리(0), 가슴등, 가슴등면,
 가슴등판, 가슴마디(0), 가슴방패판, 가슴배, 가슴센털, 가슴순판, 가슴지느러미(0),
 가슴지느러미발⁴⁾, 가슴지느러미가시, 가슴털, 가시 돌기, 가시묵음(북), 가시뿌리,
 가시줄, 가운데가슴⁵⁾(0), 가운데가슴등⁶⁾, 가운데가슴등판⁷⁾, 가운데가슴마디⁸⁾(0),

4) 뜻풀이에 대부분 붙어서 나와서 목록에 추가함. 어휘 추가하지는 않았음.

5) 원래 《표준》에는 ‘가운데*가슴’으로 있었으나, ‘가운데*’ 및 ‘머리가슴’과의 일관성상 ‘가운데-가슴’으로 표제어 수정함.

6) ‘가운데*가슴’이 ‘가운데-가슴’으로 수정됨에 따라 뜻풀이에 나오는 ‘가운데 가슴등’을 ‘가운데가슴등’으로 붙여 씀. 어휘 추가하지는 않았음.

가운데더듬이, 가지잎, 각판, 갈고리 돌기, **갈고리발톱**⁹⁾, 갈기털, 갈래씩(북), 갈래열매(북), 갈래잎(북), 갈래줄, 갈래쪽(북), 갈래포자, 갈미선(북), **갈비선**, 감각털, 갓주름 면, 거미줄돌기, 거짓가로막, 거짓고치, 걷는다리, 걸껍질막, 걸날개, 겨드랑이깃, 겨울 깃, **겨울 포자**¹⁰⁾(0), 겨울 흠씨 더미, 곁가시, 곁씩, 고리 흠, 골질 돌기, 공기주머니(0), 공동 막, 균 더미, 귀날개(북), 금속광택(0), **기는가지**¹¹⁾(0), 기는줄기(0), 기술평(북), 긴 마디, 깃겹잎, 깃조각잎, 깍지 구멍, 꺾데기판, **꼬리돌기**¹²⁾, 꼬리마디, 꼬리마디판, 꼬리발톱, 꼬리샘, 꼬리 위 털깃, 꼬리 위 덮깃, 꼬리자루(0), **꼬리지느러미가시**¹³⁾, 꼬리지느러미발, 꼬리털, 꼬리털 구멍, 콩무니뼈, 꽃대 마디, 꽃떡잎, **꽃줄기**¹⁴⁾(0), 끝면

5. ㄴ

바깥 가로선, 바깥기슭(북)¹⁵⁾, 바깥 줄, 발마디, **발목마디**¹⁶⁾(0), 반둥근형, **반삭동물**(0)→**반색동물**¹⁷⁾, 방사 가시, 방패 비늘(0), 방패판, 바깥 가로선, 배강모, 배 기낭, 배껍데기, 배다리(0), 배등, **배마디**¹⁸⁾(0), 배마디등판, 배면¹⁹⁾, 배순판, **배우자주머니**²⁰⁾, 배자루마디, 배지느러미(0), 배판(腹板), 배 편(=배 쪽), 부착뿌리, 부챗살마루(0), 분생 흠씨, 분열 흠씨주머니, 비늘가지, 비늘줄, 비늘줄기(0), 비늘털(0), 빗비늘(0), 뺨주머니, 뺨는줄기, 뿔가시, 뿔털

6. 스

삼각실, 생식 구멍, 생식돌기, 생식마디, 생식매듭, 생식배방패판, 생식순판, 생식 잎, 석회판, 성장맥, 세균식물, 세로띠, 세로 맥, 세로선, 세로줄, 세로줄 무늬, 세로 흠, 세로 흠 줄, **세잎꽃**²¹⁾(0), 세쪽잎, 세포살(북), 세포선, 세포 실, 세포실줄, 세포열, 세포입, 세포축, **센털**²²⁾(0), **속날개**²³⁾, 속 층, 쇄골긴기낭,

-
- 7) '가운데[^]가슴'이 '가운데-가슴'으로 수정됨에 따라 뜻풀이에 나오는 '가운데 가슴등판'을 '가운데가슴 등판'으로 붙여 씀. 어휘 추가하지는 않았음.
 8) 감수자가 표제어 삭제한 단어.
 9) 감수자가 한 단어로 어휘 추가함에 따라 '갈고리 발톱'에서 '갈고리발톱'으로 수정됨.
 10)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11) 감수자가 표제어 삭제한 단어.
 12) 원래 《표준》에 없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삭제함.
 13) 뜻풀이에 대부분 붙어서 나와서 추가한 단어. 어휘 추가하지는 않았음.
 14)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15) '버드나무박나비', '벼종알말이벌레' 등 북한어 풀이에 나오는 단어. 북한어 표지 추가.
 15)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16)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17) 웹 사전 개정에서, 동물 전문어의 '*색(索)*'은 '*삭(索)*'으로 표제어 수정되거나, 표준어로 새로 등재되었음. 이에 따라 '반삭동물'도 '반색동물'로 표기가 바뀜.
 18)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19) 물리적인 의미의 '면05(面)'이 합성어적 요소로 단어의 뒤에 쓰일 때 붙여 쓰는 것으로 지침이 바뀜에 따라 '등면(-面), 배면(-面)'도 붙여 써야 함에 따라 동식물 생물의 부위 명칭 목록 띄어쓰기도 붙이는 것으로 수정함.
 20) '복자낭'의 뜻풀이에 쓰였으나 뜻풀이가 수정되면서 쓰임이 없음. '배우자*' 일관성상 '배우자주머니'로 붙여 쓰는 것 어색함. 목록에서 삭제함.
 21) 감수자가 표제어 삭제한 단어.
 22)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수기관, 수꽃이삭(0), 수상 돌기²⁴(0), 수술 털, 수평날개, 숨구멍²⁵(0), 신경 돌기(0), 실 모양체²⁶)

7. ○

아가미구멍(0), 아가미덮개(0), **아가미딱지²⁷(북)**, 아가미뚜껑(0), 아가미판, 아래턱, 아랫날개, 아랫부리, 안쪽 가로선, 암기관, 암꽃이삭(0), 앞 가두리, 앞가슴 기낭, 앞가슴등, **앞가슴등판²⁸(0)**, 앞가슴마디(0), 앞가슴뼈, 앞기슭, 앞날개(0), **앞등판²⁹**, **앞마디³⁰(0)**, 앞몸(0), 앞몸마디, 앞 발가락, 앞방패판, 앞뿔, 앞지느러미, 앞지느러미발, 어깨가슴털, 어깨센털, 엄지줄기, 여름 깃, 여름 포자, 여린줄기, 열매날개, 엽상 지의류, **영양잎³¹(0)**, 옆가시, 옆더듬이, 옆돌기, **외오리 실 모양체³²**, 울림판, 원형질 돌기, 위턱, 윗가슴, 윗가슴등, 윗날개, 윗눈, 윗머리뼈, 윗부리, **이마뿔³³(0)**, 이마털, 이삭수염, 이삭줄기, 이삭열매, 입 구멍, 입둘레마디, 입막, 입아래판, 입앞마디(북), **잇갈퀴**, **잇겨드랑이³⁴(0)**, **잇귀³⁵**, 잇각지, 잇막, **잇몸³⁶(0)**, 잇세포, 잇순, 잇집, 잇틀, **잇끝³⁷(0)**, 잇날개, 잇혀

8. ㅈ

작은꽃자루, 작은방패판(0), 작은입술수염, **작은턱³⁸(0)**, 잔털묶음(북), 잔톱니, 잡는기관, 점눈, 정강이마디, 정수리돌기, 젓꼭지돌기, **종아리마디³⁹**, 줄기마디, **줄기잎⁴⁰(0)**, 중간 맥, 중앙맥, 지지뿌리, 집게다리, 짝지발

23) '걸날개, 아랫날개, 윗날개, 앞날개, 뒷날개' 등이 모두 '생물, 동물, 식물 용어(부위 명칭) 목록'에 붙여 쓰도록 되어 있어 2019. 07. 03. 내부 논의를 통해 '속날개'도 목록에 추가하여 붙여 쓰는 것으로 결정함.

24) '가지 돌기'의 전 용어가 됨에 따라 목록에서 삭제함.

25)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26) 감수자가 '원실체'를 '실모양체'로 표제어 수정함에 따라, 북한어는 '실모양체'. 대응 남한어는 '사상체'임. 이에 따라 목록에서 삭제됨.

27) 북한어 표지 추가.

28) 감수자가 '앞가슴등판'을 표제어 삭제하고, 해당 단어로 '앞등판'으로 어휘 추가하였음.

29) '앞가슴등판'이 삭제되고 어휘 추가된 '앞등판'과 중복되어 목록에서 삭제.

30) 원래 《표준》에 일반어 풀이만 있었는데, 감수자가 동물 뜻풀이를 추가함에 따라 붙여 씀. 표제어 표시 '(0)' 함.

31) 원래 《표준》에 북한어로 있었으나, 감수자가 남한어로 돌림에 따라 붙여 씀. 표제어 표시 '(0)' 함.

32) '검은청실말', '노을청실말', '누운청실말' 등의 뜻풀이에서 쓰였으나 표삭되면서 쓰임이 없음. 목록에서 삭제. '실 모양체'도 삭제되었음.

33)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34)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35) 북한어로 돼 있었고, 《표준》에는 쓰임 없었으나, 해당 전문어 사전, 백과사전에 나오므로 목록에 추가함. 이에 따라 '잇귀, 엽이' 모두 남한어로 돌림.

36)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37) 원래 《표준》에 북한어로 있었으나, 감수자가 남한어로 돌림에 따라 붙여 씀. 표제어 표시 '(0)' 함.

38) 원래 《표준》에 북한어로 있었으나, 감수자가 남한어로 돌림에 따라 붙여 씀. 표제어 표시 '(0)' 함.

39) 감수자가 표제어 삭제한 단어.

40) 원래 《표준》에 있던 단어. 표제어 표시 '(0)' 함.

12. 표

팔목마디, 편모 구멍, 포삭(복), 풀이끼, 피질 돌기

13. ‘한’과 관련한 표제어 및 띄어쓰기

‘한’으로 시작하는 표제어 가운데 수 관형사 ‘한’과 결합된 합성어와 접두사 ‘한-’과 결합된 파생어에 대한 띄어쓰기이다.

<p>한01 「관」 「1」 『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 『한 사람 / 책 한 권 / 말 한 마디 / 노래 한 곡 / 국 한 그릇 / 한 가닥 빛도 없는 지하실 / 한 가지만 더 물어 보자. / 그는 한 달 월급을 모두 도박에 탕진했다.』 § 「2」 『어떤』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옛날 강원도의 한 마을에 효자가 살고 있었다. /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의 한 고위 관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3」 『같은』의 뜻을 더하는 관형사. 『{한} 경기장 / 전 교생이 {한} 교실에 모여 특강을 들었다. / 동생과 나는 {한} 이불을 덮고 잔다.』 § 「4」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대략』의 뜻을 나타내는 말. 『한 20분쯤 걸었다. / 한 3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다. / 초봉은 한 100만원 정도 된다.』 §</p> <p>한-13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1」 『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한격정 / 한길 / 한시름.』 § 「2」 『정확한』 또는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한가운데 / 한복판 / 한겨울 / 한낮 / 한밤중 / 한잠.』 §</p> <p>한-14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1」 『바깥』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한데.』 § 「2」 『끼니때 밖』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한밥 / 한동자 / 한음식 / 한저녁.』 §</p>

1. ‘한01’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연결될 때에는 띄어 쓰고, ‘한-13’, ‘한-14’과 명사가 연결될 때에는 붙여 쓴다.

☞ ‘한01’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의 결합은 사전에서 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표제어 및 뜻풀이는 삭제되었다. 띄어쓰기에 유의한다.

1) 표제어 삭제

라) 한모라기 「명」 『복』 「1」 연기나 김 냄새 따위가 한 차례 피어 오르는 것. 「2」 바람 따위가 한 번 산들 부는 것.

☞ 【한V모라기의 산뜻한 바람.】

마) 한모태 「명」 『복』 떡판에 놓고 한 차례 치는 떡의 분량.

☞ 【흰떡 한V모태를 치다.】

바) 한복새 「명」 『복』 한번 일으키는 복대기.

☞ 【한V복새 겪다.】

2) 뜻풀이 삭제

가) 한꼭지 「명」 『복』 「1」 모숨을 지어 잡아맨 물건을 셀 때 한 개를 이르는 말. 「2」 『말』 이야기 따위의 명사 다음에 ‘떼다’와 함께 쓰여 한 번 떼는 꼭지.

☞ 「1」 삭제. (꼭지 :모숨을 지어 잡아맨 물건을 세는 단위) 【미역 한V꼭지.】

다) 한입 「명」 「1」 한 번에 입에 넣을 만한 음식물의 분량. 「2」 입에 음식물 따위가 가득 찬 상태. 「3」 ((주로 ‘한입에’ 꼴로 쓰여)) 한 번 입을 벌린 상태. 「4」 『복』 한 사람의 의사 표시 능력.

㉞ 「1」 삭제. (입[5] :한 번에 먹을 만한 음식물의 분량을 세는 단위.) 【사과를 한V입 베어물다/물을 한V입 머금다/고기를 한V입 물어뜯다/한V입만 먹어./아이들이 칠판글 속살을 한V입씩 베어물었다.】

라) **한줄금** 「명」『복』「1」‘한줄기(1)’의 북한어. 「2」‘한줄기(2)’의 북한어.

㉞ 「1」 삭제. 【몽클 치미는 생각과 함께 칼끝으로 에이는 듯 또 한V줄금 따가운 눈물이 눈굽을 지지며 새어나온다./문득 어디선가 한V줄금의 선들바람이 훅 물비린내를 풍기며 불어왔다.】

2. 수 관형사 ‘한’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연결되더라도 의미가 달라지면 붙여 쓴다.

타) **한차례**한-차례「명」어떤 일이 한바탕 일어남을 나타내는 말. =한축01. ㉞한차례의 태풍이 농사를 다 망쳐 놓았다./폭소가 한차례 터졌다./비가 한차례 내리더니 추워지기 시작한다./너무나 생생하게 그날의 충격이 되살아났으므로 그녀는 한차례 경련을 일으켰다.《이동하, 도시의 늪》/옹보는 노루목을 떠난 뒤 또 한차례의 감내하기 힘든 큰 시련에 부딪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문순태, 타고르는 강》§

㉞ <비교 :‘차례1[3]’의 쓰임> 일이 일어나는 횟수를 셀 때는 띄어 쓴다. [오전에 한V차례, 그리고 오후 이맘때가 되면 또 한V차례, 기적을 울리며 철교를 지나 북쪽으로 가는 것이었다./개인전도 동경서 한V차례, 서울서 두 번, 상당한 반향이 있었으며 역량 있는 화가로 인정을 받고.../딱 한V차례, 어머니는 정말이지 딱 한V차례 당했다고 했어요/요새는 매일같이 이른 아침에 한V차례, 점심 전에 또 한V차례씩 등달미에서 벼락치듯이 호들갑스러운 폭격 소리가.../익삼씨는 한V차례 씹쓰레하니 웃고 나서/술을 두 차례 먹구 먼저 한V차례 갑만 냐다구 합디다./문득 六二五 난리 때, 아버지 제사를 한V차례 걸른 뉘우침이...] 어떤 일이 한바탕 일어남을 의미하는 것인지 횟수를 세어 한 번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을 때는 한바탕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여 붙여 쓴다.

하) **한축02** 「명」『복』‘한뿔’의 북한어.

너) **한탕** 「명」「1」‘한바탕’이라는 뜻으로, 한 번의 일거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㉞한탕 잡아/일을 한탕 벌이다/그는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을 하고 손을 씻자고 제안했다.§ 「2」『복』‘한바탕01[1]’의 북한어. ㉞예상 외로 식량 공장이 잘 된 데다가 한탕 연설까지 하고.§#8한탕 치다#^ 부정 행위나 범죄 행위 같은 못된 짓을 한바탕 무분별하게 저지른다. ㉞기왕 내친 걸음이니 다부지게 한탕 치고 나서 발을 씻겠다고 마음 먹었다. §

㉞ <비교 :‘탕1’의 쓰임> 무엇을 실어 나르거나 일정한 곳까지 다녀오는 횟수를 세거나(탕1[1]), 어떤 일을 하는 횟수를 셀 때는(탕1[2]) 띄어 쓴다. [모레를 한V탕 실어 나르다/아르바이트를 한V탕 뛰다]

■ 북한어의 남한어 처리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지침 ‘북한어’ 정비 원칙

첫째, 2008년 개정 당시 지침의 구조와 내용을 유지하되,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수정한다.

둘째, 현재 《우리말샘》에서 북한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기존 사전을 《우리말샘》으로 한다. 지침의 정보가《우리말샘》과 다를 경우 ‘ㅇ’ 다음에 제시한다.

셋째,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수정한다.

넷째, 북한 사전은《조선말대사전》(2017)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말샘》수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ㅇ’ 다음에 제시한다.

1. 표제어

1.1. 원칙

3.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올라 있으나 남한어 쓰임이 발견되는 표제어는 남한어로 처리한다.

1.2. 세칙

1. 아래와 같은 경우 《우리말샘》의 표제어 정보를 수정한다.

- 1) 북한어 수정 원칙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등재되어 있는 표제어가 말뭉치나 인터넷 등에서 남한어 쓰임이 발견되면 ‘북남’, ‘북남검’, ‘표삭검’의 방법을 통해 남한어로 처리한다.

- (1) 아래와 같은 경우 ‘북남’으로 집필한다. ‘북남’으로 분류하였을 때는 #3에 정보 없음 표시(%)를, #4에 표제어(IC 분석 포함), 원어, 발음, 활용, 품사, 문형 정보, 문법 정보, 전문어 영역, 뜻풀이, 용례, 관련 어휘, 참고 어휘를 모두 순서대로 집필한다.

- ① 북한어로 분류된 표제어 중, 인용 말뭉치에서 남한어 쓰임이 보이고 집필자도 남한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북남’으로 분류하여 남한어로 집필한다.(그러나 인용 말뭉치에서 그 예가 보이더라도 특정한 작가의 작품에서만 나타날 경우에는 ‘북남’으로 바로 집필하지 않고 ‘북남검’으로 하여 검토 사항으로 남긴다.)

#1가동음#2북남#3%#4가동-음(稼動音)「명」기계나 공장 설비들이 작동할 때 나는 소리.▶점심시간이 되자 공장 {가동음} 멈췄다./문득 주차장 쪽에서 엔진 {가동음}이 요

란하게 들려온다.<NKVAA480,401,홍성원,육이오>§#5남한 용례 있음.

#1거짓스럽다#2북남#3#4거짓-스럽다[거:진쓰-따](-스러워, -스러우니)「형」보기에 거짓을 부리는 태도가 있다.『너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단순한 욕망 때문에 {거짓스러운} 몸짓을 한 적이 있다./말이란 소란스럽고 {거짓스러운} 것이라 믿었던 그녀는 말 대신 침묵이 있는 글쓰기를 택했다.』§#5남한어 용례 확인되고 실제로 쓰이므로 남한어로 집필함. '거짓스레'도 남한어로 바꿈.

#1거짓스레#2북남#3#4거짓스레[거:진쓰-「부」⇒거짓스럽다.#5'거짓스럽다'를 남한어로 수정한 것에 따름. '*스레'는 표제어 분석하지 않음.

○ 《우리말샘》 뜻풀이가 위와 다름.

거짓스레 「001」 「부사」보기에 거짓을 부리는 태도가 있게.

- ② 《우리말샘》에 주표제어와 부표제어가 모두 북한어로 분류되어 있는 표제어 중에서, 주표제어의 남한어 쓰임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부표제어가 인용 말뭉치의 다양한 작품에서 나타나고 집필자도 남한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부표제어를 '남한어'로 집필하고 이에 대응하는 주표제어도 '남한어'로 분류하여 집필한다.

#1길쭉길쭉하다#2북남#3#4길쭉길쭉-하다[--길---]「형」⇒길쭉길쭉. 『염색한 작업복 소매를 건어붙이고 있었으나 {길쭉길쭉한} 사나이의 육체는 매력적이었다.<netc3703,062,강신재,해방촌 가는 길>』§#5%

#1길쭉길쭉#2북남#3#4길쭉-길쭉[--길-「부」여럿이 다 시원스레 조금 기름한 모양.#5부표제어 '길쭉길쭉하다'를 남한어로 수정함에 따름.

※ 길쭉길쭉「부」『복』 여럿이 다 시원스레 조금 기름한 모양. 『애기는 뼈마디가 모두 {길쭉길쭉} 뿔혀서 키가 상당히 크게 커질 듯싶다.<<선대>>』
길쭉길쭉하다「형」『복』⇒길쭉길쭉.

- ③ 《우리말샘》에 '-하다', '-되다' 등이 결합한 형태가 북한어 주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말뭉치에서 해당 어휘의 남한어 쓰임이 나타날 때, 남한어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북남'으로 분류하여 집필하고, 이에 대응하는 주표제어를 '표추검' 항목으로 분류하여 집필한다.

#1길쭉하다#2북남#3#4길쭉-하다「형」⇒길쭉.『광채가 번쩍이는 두 눈에다 얼굴이 {길쭉한} 이 사나이는, 말에 상당한 자신을 가진 듯해 보였다.<NBNA000,007,김동리,사반의 십자가>』§#5'길쭉'의 부표제어로 수정되므로 표제어 재배열할 것.

#1길쭉#2표추검#5'길쭉하다'가 남한어로 수정되었으므로 '길쭉하다'의 어근으로 추가할 것.

※ 길쭉하다「형」『복』 시원스레 조금 기름하다. 『{길쭉한} 말을 한 사나이<<선대>>/성이라도 난 듯 셨쪽한 표정을 지으며 따지고 드는 국화의 {길쭉한} 얼굴과 짙은 눈선은 바라볼수록 귀엽고 사랑스러웠다.<<잊지 못할 겨울, 선대>>』§

#1감송하다#2복남#3#4감송-하다「형」1잔털 따위가 드물게 나서 까무스름하다. ‘감송하다’보다 센 느낌을 준다.『아궁이에 왕겨를 한 줍씩 던지느라 주름살 많은 {감송한} 얼굴을 옥 오그린다.<NKTAA000,57,현덕,남생이>』2『복』~.#5말뭉치에 예들이 있어 남한어 뜻풀이를 추가하고 ‘감송하다’, ‘검송하다’에 맞춰 뜻풀이함. 어근 ‘감송’도 반드시 추가해야 함.

#1감송#2표추검#5‘감송하다’를 남한어로 고쳤으므로 ‘감송하다’의 어근으로 추가해야 함.

※ 감송하다「형」『복』좀 까무스름하다. 『강아지의 {감송한} 몸뚱이/얼굴이 {감송해지다}』.

★④ 식물인 ‘○○’이 식물과 식물의 일부(열매나 꽃 등)를 모두 뜻하는 다의어로 풀이되어 있고 ‘○○나무(꽃)’는 북한어로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말뭉치에서 ‘○○나무(꽃)’의 남한어 용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나무(꽃)’를 ‘복남’으로 분류하여 남한어로 바꾸고 ‘○○’의 뜻풀이를 수정한다.

☞ 식물과 식물의 일부에 대한 뜻풀이와 전문어 영역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북한어를 남한어로 바꿀 때에도 이에 맞추어야 한다.

‘○○’을 ‘1』『식』~식물.2』1』의 꽃.’과 같은 형식의 다의어로 뜻풀이한다. 이때 1』은 식물 전문어로, 2』는 일반어로 분류한다.

‘○○꽃’은 ‘=○○2』.’와 같은 형식으로 뜻풀이한다.

#1머루나무#2복남#3#4머루-나무「명」『식』1』=머루01』1』.2』=머루01』2』.#5남한어 쓰임이 발견되어 남한어로 집필함.

#1머루01』2』뜻수#3「명」『식』1』포도과의~. 2』포도과의~분포한다.≒목롱. 4』=왕머루.#4「명」1』『식』포도과의~.≒머루나무1』. 2』『식』포도과의~분포한다.≒머루나무2』.목롱.산머루. 4』『식』=왕머루.#5‘머루나무’를 남한어로 집필한 것에 따라 뜻풀이 수정함. 3』은 식물 전문어가 아니므로 3』을 제외한 뜻풀이 번호 각각에 전문어 영역을 넣어줌. 3』에는 동의어 ‘산머루’도 추가함.

※ 머루나무「명」『복』『식』 ‘머루01’의 북한어.

머루01』『명』『식』 1』포도과의 왕머루, 까마귀머루, 새머루, 개머루, 털개머루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산머루.2』포도과의 낙엽 덩굴나무. 왕머루와 비슷하나 잎 뒷면에 붉은색을 띤 갈색 털이 있으며, 흑자색 열매가 달린다. 울릉도에 분포한다. ≒목롱. (Vitis coignetiae)3』머루의 열매. ≒산포도01』1』. 야포도2』.4』=왕머루.

○ 현재 《우리말샘》 뜻풀이는 아래와 같이 두 개의 다의만 있음.

머루-나무 「001」 「명사」 『식물』 포도과의 왕머루, 까마귀머루, 새머루, 개머루, 털개머루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머루-나무 「002」 「명사」 『식물』 포도과의 낙엽 덩굴나무. 왕머루와 비슷하나 잎 뒷면에 붉은색을 띤 갈색 털이 있으며, 흑자색 열매가 달린다. 울릉도에 분포한다.

- ⑤ 북한어로 등재된 표제어 중에서 북한어 뜻풀이와는 다른 의미의 남한어 쓰임이 발견되면 ‘뜻추’나 ‘뜻추검’으로 분류하지 않고 ‘복남’ 또는 ‘복남검’으로 하여 남한어로 돌리고 뜻풀이를 추가한다.

#1보호막#2복남검#5보호-막(保護膜)[보:--][보호막만[보:-망-]]「명」「1」사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표면을 덮고 있는 막.▶새끼는 연약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든든한 {보호막으로} 싸여 있다./자외선 코팅으로 CD에 {보호막을} 씌운다.§「2」『복』~. 기타 말뭉치.

※ 보호막(保護膜)「명」『복』『의』‘점막02(粘膜)’의 북한어.

- (2) 아래와 같은 경우 ‘복남검’으로 분류하여 집필한다. ‘복남검’으로 집필할 때에는 #1에 표제어, #2에 ‘복남검’, #5에는 메모를 남긴다.(검토 사항으로 집필할 때는 #3과 #4 항목은 삭제한다. 이에 따라 파일에는 ‘#1#2#5’만 입력해야 한다.) 이때 참고가 될 만한 말뭉치나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5에 복사하여 남긴다.

- ① 말뭉치에서 남한어 용례가 보이나 특정한 작가의 작품에만 나와서 표준성이 의심스러운 것은 ‘복남검’으로 분류하여 집필하고 해당 표제어의 표준성을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이때 ‘표사검’ 항목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

#1개물01#2복남검#5‘개물’이 남한어로도 쓰이나 이것이 표준어인지, 방언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음. 검토 바람.

※ 개물01「명」『복』「1」‘개밥’의 북한어. ▶{개물을} 주다.§「2」‘개죽(-粥)’의 북한어.

#1게질게질#2복남검#5기타 말뭉치에 ‘게질게질하다’가 없음. ▶밥상을 앞에 놓고 {게질게질하면서} 하도 분통을 돋우기에, “너 자꾸 그러면 아빠, 터져”라고 위협하면, 밥을 문 이쪽을 쏘아...§ ‘게질게질, 게질거리다, 게질대다’의 두 번째 뜻은 남한어로 보아야 할 듯하다. 남한어 표준어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 게질게질「부」『복』「1」질깃한 물건을 보기 흉하게 입을 놀리며 자꾸 씹는 모양. 「2」내키지 않는 음식을 자꾸 억지로 먹듯 하는 모양.

- ②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등재된 의성 의태어 중에서 말뭉치에는 용례가 나타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표제어는 ‘복남검’으로 분류하여 #5에 쓰임이 보이지는 않으나 남한에서도 파생이 가능한 단어라는 메모를 남긴다.

- ③ 옛말 투의 한자어나, ‘예전에, ~’로 풀이된 북한어는 그 쓰임이 말뭉치에서 발견되지 않더라도 ‘복남검’으로 분류하고 #5에 남한어로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1노비운삭공#2복남검#5정치색과 무관한 역사 전문어인데 북한어로 되어 있음. 남한에서도

쓰일 법한 용어.

※ 노비윤삭공(奴婢潤朔貢)「명」『복』『역』 노예살이를 하지 않는 노비들이 윤달에 공물로 바치던 쌀이나 천.

#1금삼01#2북남검#5옛 제도와 관련된 한자어.

※ 금삼01(禁蔘)「명」『복』 예전에, 인삼의 수출을 금지하던 일. 또는 그 인삼.

- ④ 북한 전문어 중에서 남한어 쓰임이 보이지만 전문가 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북남검’으로 분류하여 집필하고 #5에 전문가 감수가 필요하다는 메모를 남긴다.(그러나 북한 전문어라고 하더라도 각 전문어 사전을 통해 남한어임이 확실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남한어로 집필할 수 있다.)

#1발성기관#2북남검#5발성기관(發聲器官)「1」『동』=발음 기관「1」.「2」『어』=발음 기관「2」.『위』로라면 그저 보통의 병어리처럼 귀머거리를 겸한 것이 아니라, {발성 기관의} 이상으로 말을 못할 뿐이라는 정도일까.<NADAD001,156,이문열.황제를 위하여>§남한에서도 쓰임이 발견되거나 표준성 검토, 전문어 감수 필요함. 또는 구 구성으로 보아 삭제할 수도 있음.

※ 발성기관(發聲器官)「명」『복』『동』 ‘발음 기관「1」’의 북한어.

○ 현재 《우리말샘》 뜻풀이는 아래와 같음.

발성기관 「001」 『동물』 동물체의 소리를 내는 기관.

발성기관 「002」 『언어』 음성을 내는 데 쓰는 신체의 각 부분. 성대, 목젓, 구개, 이, 잇몸, 혀 따위가 있다.

- (3) 《우리말샘》의 북한 표제어 중에서 남한어가 확실한 듯하나 단순 구어서 표제어로 등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표삭검’으로 분류하여 집필한다. 이때 해당 표제어와 관련된 어휘가 있으면 관련된 어휘도 함께 검토하라는 메모를 #5에 남긴다.

#1녹두깍지#2표삭검#5북한어인데 남한어의 구 ‘녹두 깍지’와 같은 뜻임. ‘녹두깍지’를 삭제할 경우 동의어 ‘녹두깍대기’도 같이 삭제할 것. 『벗집이나 가랑잎을 태운다 여린 불빛이 노르스름하다 콩깍지 {녹두깍지} 솔가래를 태운다./식은땀은 메밀가루 한 줌을 노랗게 볶아 물에 달여 마시면 즉시 회복된다. 또 {녹두깍지}를 진하게 달여 마셔도 잘 듣는다.』

※ 녹두깍지(綠豆--)「명」『복』 녹두알을 털어 낸 깍지. ≍ 녹두깍대기.

○ 《조대》(2017)에 ‘녹두깍지’가 없음.

- (4)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북한어에 대응하는 남한 표제어를 추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 ★① 한글 맞춤법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북한어는 반드시 말뭉치와 인터넷 등에서 대응 남한어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대응 남한어가 발견되면 한글맞춤법 정보에 제시된 형태를 ‘표추검’으로 남기고, 남한어를 추가할 경우 북한어의 뜻을 풀이를 수정하라는 메모를 남긴다.(예1) 그러나 만약 대응 남한어가 단순한 구 구성으로 판단되면 ‘표삭검’ 메모로 남긴다.(예2)

#1되박쌀#2표추검#5현재 ‘되박쌀’만 북한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기타 말뭉치에 쓰임이 발견됨. ‘되박쌀’을 표제어로 추가할 경우 ‘되박쌀’의 뜻을 풀이를 ‘되박쌀’의 북한어로 수정해야 함.
 ¶농민들의 먹고 살 곡식마저 반나마 빼앗아 가고 나니 혹 암거래되는 말쌀이나 {되박쌀}이 있다 해도 그건 너무나 비싸서…§

- ※ 되박쌀「명」『북』되박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양의 쌀. ¶강화도의 주민들은 세상에 이름난 돛자리와 초물 제품을 가지고 왔고 연백 사람들은 쌀 고장에서 사는 것만큼 가난한 살림에도 {되박쌀을} 꿈져 들고 장으로 갔었다.《우리 마을, 선대》§ ♣되박쌀.

#1연결동작#2표삭검#5대응하는 남한어 ‘연결 동작’ 말뭉치에 다수 나타남. ¶주서봉의 {연결동작이} 얼마나 빨랐는지 마유신과 검진이 부딪친 순간에 그의 목운신검은 그의 손을 떠나 검진에 이 <D96ADA23,금 강.절대지존(중)>/가장 급진적이었고, 활동적이었던 이본 레이너(Yvonne Rainer)에 의해, 기존 현대춤에서 발견되어지는 춤의 {연결동작이나} 그것의 전개와 클라이맥스, 리듬, 형내, 다이내믹 같은 변형의 요소들, 인물, 공연서…<D950908,김태원,후기현대춤의 미학과 동향>§ 구 구성으로 보아 ‘연결동작’을 삭제하거나, ‘연결 동작’을 표제어로 추가한 다음, ‘연결동작’의 뜻을 풀이를 ‘연결 동작’의 북한어로 수정해야 함.

- ※ 연결동작(連結動作)「명」『북』『예』 춤의 토막과 마디 사이를 이어 주거나, 기교 동작을 수행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동작을 통틀어 이르는 말. ♣연결 동작.

○ 《조대》(2017)에 ‘연결동작’이 등재되어 있고 북한의 학술사전, 영조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음. 《우리말샘》의 뜻풀이 중에도 3번 수록되어 있음. 춤 및 동작에서 용어로 쓰인다고 볼 수 있음. 위의 의견처럼 남한어 표제어로 추가하고 ‘연결동작’을 ‘연결 동작’의 북한어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② 직접 뜻풀이가 되어 있는 북한어 중에서 대응 남한어가 있는 경우에는 ‘표추검’으로 분류하여 대응 남한 표제어 추가를 검토한다. 이때 #5에 해당 표제어가 추가될 경우 관련된 북한어의 뜻풀이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메모를 남긴다. 또한 해당 북한어는 ‘뜻수검’ 항목을 남겨 대응 남한어가 추가될 경우 뜻풀이를 수정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1깃가락#2표추검#5깃가락(詩--). 기타 말뭉치에 자주 나옴.¶첫 시집 「자작나무 내 인생」이 적요롭고 농밀한 내면의 산책길을 열어 보이며 전통적인 {깃가락의} 현대적 변용을 시도했다면 이 시집에서는 시인의 고통스런 자기 부정 그리고 새로운 출발에…<4BJ01001,bookoo.com,서평>/글 솜씨가 뛰어나고 시적인 감흥이 남달랐다면 한 구절

의 아름다운 {씻가락이} 흐를 만도 한데 그쪽으론 영 솜씨가 없는지라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단지 환상적이다...<4BJ01001,bookoo.com,신불평원의 가을 단상>§ '씻가락'을 추가할 경우 북한어 '시가락'의 뜻풀이를 “‘씻가락’의 북한어”로 수정해야 함.

#1시가락#2뜻수검#5'씻가락'이 표제어로 추가될 경우 “‘씻가락’의 북한어”로 풀이 수정해야 함.

※ 시가락(詩--)'명』『북』『1]시를 읊을 때의 곡조. 「2]저속한 시를 낚잡아 이르는 말.

○《우리말샘》에 남한어 다의어로 수록되어 있음.

③ 운동 경기나 동식물 명칭 같은 표제어 중에서 《우리말샘》에는 북한어로만 등재되어 있으나 남한에서도 같은 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표제어는 '뜻수검'으로 분류하여 대응 남한어가 있는지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1로라호케이경기#2뜻수검#5내용상으로 볼 때 남한에서도 하는 경기로 보임. 대응 남한어가 있는지 전문가 감수 필요.

※ 로라호케이경기(roller hockey競技)'명』『북』『운]롤러스케이트를 신고 하는 하키 경기. ♣롤러 하키 경기.

○《우리말샘》에 '롤러 하키 경기'의 북한어로 등재되어 있음.

(5) 북한어 관련 기타 사항

★① 다의어의 뜻풀이 중 일부가 북한어로 되어 있는 것을 남한어 쓰임이 확인되어 남한어로 바꿀 때에는 '북남'이 아니라 '뜻수'로 분류하여 수정한다.

☞ 이와 같은 경우 표제어는 남한어이고 뜻풀이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북남' 또는 '북남검'이 아니라 '뜻수', '뜻수검' 항목으로 구분한다.

#1몽두리#2뜻수#3「2』『북]여자가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쓰던 것.#4「2]여자가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쓰던 것.#5남한 쓰임이 확인되어 남한 뜻풀이로 수정함.

#1몽두리#2용수#3「2]『머리에 뒤집어썼던 {몽두리를} 벗어제끼고 우증이 쪽으로 몸을 돌렸다.<늦새바람, 선대>§4「2]『왕자 부인과 나인에게는 얼굴에 {몽두리를} 씌우게 하여 일본 군사들에게 여자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NDPAC031,304,박종화,임진왜란>§5 남한어 뜻풀이로 바꾸고 용례를 남한 용례로 수정함.

※ 몽두리(蒙頭里)'명』『1]『예]조선 시대에, 궁중에서 기녀가 춤출 때에 입던 옷. 보통 초록색 두루마기와 비슷한데, 어깨와 가슴에 수를 놓고 붉은 띠를 매었다. ≡몽두의. 「2]『북]여자가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쓰던 것. 『머리에 뒤집어썼던 {몽두리를} 벗어제끼고 우증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늦새바람, 선대>§3「3]『북]‘몽두01(蒙頭)’의 북

한어. ¶{몽두리를} 쓰다.§

○ 《조대》(2017)에는 1번 뜻풀이가 전날에 여자가 나들이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는 머리쓰개를 뜻하는 ‘몽도리의 비표준어’로 되어 있음. 《우리말샘》에 ‘몽도리’를 ‘몽두리002’의 북한어로 추가해야 함.

★② 다의어 중에는 ‘○○의 잘못’이면서 동시에 ‘○○’의 북한어로 뜻풀이가 올라 있는 표제어가 있다. 이 중에서 남한어 쓰임이 보이는 것은 표제어를 ‘표사검’으로 분류하여 표준어 사정을 검토하고 표준어로 바꿀 경우 동일한 북한어 뜻풀이를 삭제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③ 북한어를 남한어로 수정할 때에는 #4에 표제어(IC 분석 포함), 원어, 발음, 활용, 품사, 문형 정보, 문법 정보, 전문어 영역, 뜻풀이, 용례, 관련 어휘, 참고 어휘 등을 사전의 형식에 맞게 입력한다. 특히 뜻풀이는 유형별 뜻풀이 형식에 맞게 제시해야 하고, 북한어에서의 뜻풀이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를 살펴 만약 남한어에서의 쓰임과 차이가 있다면 뜻풀이를 조정하여 제시한다. 다만 뜻풀이를 조정할 때 집필자가 확신할 수 없어 전문가의 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5에 전문가 감수가 필요하다는 메모를 남긴다.

#1단선04#2북남#3#4단선04(單選)『명』『정』‘단독 선거’를 줄여 이르는 말.¶드디어 5.10 단독 선거는 강행되고 {단선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조리 경을 쳐야만 했다.<netc3108,296,김정한,슬픈 해후>/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밤잠 안 자고 {단선} 반대 운동을 한 일을 생각하니 얼굴이 뜨거워질 판이다.<NGYAA052,315,이병주,지리산>§#5말뭉치에 여러 예가 있어 남한어로 수정.

#1단독선거#2북남#3#4단독^선거(單獨選舉)『정』일부 지역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선거.¶마침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 일 년을 바라볼 무렵이었다.<NDNAA002,232,박완서,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5말뭉치에 여러 예가 보여 남한어 구로 수정함. 북한에서 ‘단독 선거’를 부정적으로 보아 풀이를 수정함.

※단선04(單選)『명』『북』『정』 =단독선거.

단독선거(單獨選舉)『명』『북』『정』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부 지역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선거. ≍단선04(單選).

○ 《우리말샘》에 남한어로 ‘단독 선거를 줄여 이르는 말로 등재되어 있음.

★④ 북한어의 뜻풀이에 한글 맞춤법 정보가 빠져 있을 때에는 ‘뜻수’로 분류하고 ‘㉸(문자표-347f)’ 표시를 한 후에 한글 맞춤법 정보를 넣어 준다.

#1다듬량#2뜻수#3#4㉸다듬양.#5한글 맞춤법 정보 추가함.

★⑤ 같은 언어로 제시된 표제어이면서 남북한의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에 따라 표

기가 다른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 정보를 넣어 주고 원어 자체가 달라서 표기가 다른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 정보를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어긋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뜻수검’으로 분류하여 내용과 해당 단어가 결합한 표제어들을 일괄적으로 검토하라는 메모를 남긴다.

#1분콧스#2뜻수검#5♣분코크스’가 현재 한글 맞춤법 정보가 들어 있으나 북한어 ‘콧스’는 독일어이고 남한어 ‘코크스’는 영어로, 언어가 다르므로 한글 맞춤법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없음. ‘콧스’가 결합한 표제어들 일괄적으로 검토하여 한글 맞춤법 정보 삭제.

○ 《우리말샘》에 ‘분코프스’의 북한어로 처리되어 있음.

#1분배플라로그래프법#2뜻수검#5현재 한글 맞춤법 정보가 없으나 ‘그래프’와 ‘그래프’는 원어는 같고 표기만 다른 것이므로 한글 맞춤법 정보를 넣어야 함. ‘그래프’가 결합한 표제어를 모두 한글 맞춤법 정보를 추가해야 함.

2. 원어

2.1. 원칙

1. 원어의 제시 범위, 제시 방법 등은 《우리말샘》의 원칙을 그대로 따른다.
2. 《우리말샘》에 제시된 원어 정보 중 명백한 오류는 수정하고 오류로 보이거나 집필자가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토 사항으로 분류하여 메모를 남긴다.
3. 원어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도 수정 사항으로 분류하여 집필한다.(‘원추’, ‘원추검’으로 분류하지 않고 ‘원수’ 또는 ‘원검’으로 분류한다.)

2.2. 세칙

- ★3. 북한 한자어의 원어가 대응 남한어와 다른 경우 북한어의 한자는《조선말대사전》에 따른다.

○《조선말대사전》(2017)을 기준으로 함.

9. 뜻풀이

9.1. 원칙

1. 《우리말샘》의 모든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우리말샘》의 뜻풀이에 북한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뜻수’로 분류하여 뜻풀

이를 남한어로 수정한다. 북한어 중에서 직접 뜻풀이가 되어 있는 표제어의 뜻풀이
에도 원칙적으로 북한어를 쓸 수 없다.

#1도화돈#2뜻수#3띠돈의 하나.#4땃돈의 하나.#5'띠돈'은 북한어임.

※ 도화-돈「명」「옛」띠돈의 하나.

(16) '○○'의 잘못, '○○'의 옛말, '○○'의 북한어, '○○'의 방언과 같은 뜻풀이에서
'○○'은 형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에 형태가 아닌 기
본 표제어가 쓰였을 경우에는 '뜻수'로 분류하여 수정한다.

2. 다의어의 뜻풀이

◆3) 다의어의 뜻풀이는 '표준어(일반어→전문어)→비표준어→방언→북한어→옛말'
순으로 배열한다. 남한어끼리 묶어서 풀이해 주는 것이 층위에 맞기 때문에
배열을 '비표준어→방언→북한어'로 수정.결정하였다. 또한 옛말을 맨 뒤에
둔 것은 공시어→통시어로의 풀이 대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는 편찬지침Ⅱ
p68-4-2. "2)고어의 뜻풀이를 북한어 뜻풀이보다 먼저 배열한다."를 수정한
것이다.

7. 북한어의 뜻풀이

1) 북한어의 뜻풀이가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호응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지나
치게 장황할 경우에는 의미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한다. 다만 반
드시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를 확인한 후 수정한다.

#1간접도급지불제#2뜻수#3직접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 결과를 간접적 방법으로 도급 생활비
를 계산하는 도급 지불 제도.#4직접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 결과에 대해, 간접적 방법으로 도
급 생활비를 계산하는 도급 지불 제도.#5《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도 이와 같지만, 통사적으
로 호응이 되지 않는 문장이므로 뜻풀이를 수정함.

※ 간접도급지불제(間接都給支拂制)「명」 『북』『경』직접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 결과를
간접적 방법으로 도급 생활비를 계산하는 도급 지불 제도.

○ 《우리말샘》에 '간접도급지불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되어 있음.

「명사」 「북한어」 『경제』 직접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 결과에 대해, 간접적 방법으로 도급 생
활비를 계산하는 도급 지불 제도.

- 2) 북한어 표제어에 대해 똑같은 뜻을 지닌 남한어가 있을 경우에는 ‘뜻수’로 분류하고 ‘○○의 북한어’와 같은 형식으로 뜻을 수정한다. 이때 관련된 단어가 있을 경우, 모두 수정한다.

#1말림터#2뜻수#3무엇을 말리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춘 곳.#4‘건조장01’의 북한어.#5회의 결정 사항. 동일한 의미임.

- ※ 말림터「명」『북』 무엇을 말리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춘 곳.
건조-장01(乾燥場)「명」물건을 건조하기 위하여 특별한 장치를 한 곳.『김 {건조장}/오징어 {건조장}.』

○《우리말샘》에 ‘말림터’는 ‘건조장’의 북한어로 처리되어 있음.

- 3) ‘북남검’으로 분류하여 남긴 표제어 중에서 표준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표제어는 ‘표사검’ 항목을 따로 만들지 않고 #5에 표준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메모를 남긴다.

★4) 독자적으로 뜻풀이되어 있는 북한 전문어의 경우, 유사한 뜻을 지닌 남한어가 있을 때, 직접 자료를 확인하여 ‘○○의 북한어’로 수정하거나 ‘뜻수검’으로 분류하여 ‘○○의 북한어’로 뜻풀이 수정 검토 바란다는 메모를 남긴다.

#1롯데마광기#2뜻수검#5남한어 ‘로드 밀’과 동일한 의미로 보임. 전문어 감수 후 “로드 밀”의 북한어’로 뜻풀이 수정 검토 바람.

#1롯데분쇄기#2뜻수검#5남한어 ‘로드 밀’과 동일한 의미로 보임. 전문어 감수 후 “로드 밀”의 북한어’로 뜻풀이 수정 검토 바람.

- ※ 롯데마광기(rod磨鑛機)「명」『북』『공』=롯데분쇄기. ♣로드 마광기.
롯데분쇄기(rod粉碎機)「명」『북』『공』여러 개의 로드가 들어 있는 원통이 돌아가면서 광석을 필요한 크기대로 잘게 부수는 기계. 선광장(選鑛場)의 일차 분쇄에 주로 쓴다. ≙롯데마광기. ♣로드 분쇄기.

○《우리말샘》에 ‘롯데마광기’와 ‘롯데분쇄기’ 모두 ‘로드 밀’의 북한어로 처리되어 있음.

[부록 3] 북한어 집필 세부 지침

1. 표제어

(1) 해당 어휘가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1차적으로 표제어 선정 과정에서 확인했지만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

- ① 표제어는 제공된 한글 또는 엑셀 파일의 형태에 따른다.
- ② 제공된 한글 또는 엑셀 파일에서 ‘명복’ 또는 ‘등재 후보’ 표제어를 집필한다.
- ③ 《우리말샘》에 북한어로 등재된 기등재 어휘는 집필을 하지 않고 목록의 비고란에 “기등재 어휘(북한어)”라고 메모를 남긴다.
- ④ 《우리말샘》에 남한어로 등재된 기등재 어휘는 목록의 비고란에 “기등재 어휘(남한어)”라고 메모를 남겨 국립국어원의 판단에 맡긴다.

예 상호잡지:

(2) 《우리말샘》에 전문어로 등재되었더라도 일반어로 쓰인 북한어를 등재할 수 있다.

예 목꺾이:《의학》척추에서 목뼈 부위가 앞으로 볼록하게 굽은 부분. 《우리말샘》

→ 예 목꺾이: ㄷ 목에서 턱까지 올라오는 부분.

(3) 용례 뒤에 있는 관용구와 속담은 단독 표제어로 집필한다.

예 먼지벼락: “뜻풀이.” ㄱ 앞쪽에서는 ~ 그녀석 심술에 {먼지벼락}을 맞았군.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 ▼먼지벼락(을) 맞다▼ 뜻밖에 갑자기 많은 먼지를 뒤집어 쓰다.

→ 예 먼지벼락: “뜻풀이.” ㄱ 앞쪽에서는 ~ 그녀석 심술에 {먼지벼락}을 맞았군.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

먼지벼락(을) 맞다: 뜻밖에 갑자기 많은 먼지를 뒤집어 쓰다.

(4) 북한어의 말뚝리적단어(어근적 단어)가 집필 목록에 있으면 선정 과정에서 검토를 한 것이니 주표제어를 참조하여 명사로 집필한다.

예 신기무쌍: 《신기무쌍하다》의 말뚝리적단어.

→ 예 신기무쌍: ㄷ 신기롭기가 비길 데 없음.

* 신기무쌍하다: ㄷ 신기스러운것이 비길데 없다.

2. 원어

① 외래어와 한자어가 포함된 표제어는 《우리말샘》의 원어 제시 방식대로 고유어를 포함하여 외래어와 한자어의 원어를 제시한다.

예 컴파일러(compiler)

예 쿨롱(coulomb)

예 조약대(跳躍臺)

예 고시크미술(gothic美術)

예 두점(두點) (○) / 두점(-點) (×)

예 앓은레슬링(앓은wrestling) (○) / 앓은레슬링(--wrestling) (×)

② 고유어 표제어에는 원어를 제시하지 않는다.

예 집생각 (○) / 집생각(집생각) (×)

③ 《조선말대사전》에서는 복합어인 경우 한자어인데도 원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원어를 밝혀 제시하고 비고란에 메모 “원어 복원”을 남긴다.

예 학교(學校) / 학교교육() (×)

학교(學校) / 학교교육(學校教育) (○)

④ 《조선말대사전》이나 제공된 엑셀파일에 원어가 잘못 제시되었으면 이를 바르게 수정하고 비고란에 메모 “원어 수정”을 남긴다.

예 반식량(半食量 → 半食糧): 식량은 아니지만 낱알의 절반과 맞먹는 음식.

병고생(別苦生 → 病苦生): 병으로 겪는 고생.

⑤ 제공된 엑셀파일과 《우리말샘》의 원어가 다르면 《우리말샘》을 따르고, 제공된 엑셀파일에 언어명이 있더라도 언어명은 제시하지 않는다.

3. 발음

① 북한어는 《우리말샘》의 원칙에 따라 발음을 제시하지 않는다.

4. 품사

① 《우리말샘》의 전체 품사는 아래와 같다.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접사, 의존 명사,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 어미, 관형사·명사, 수사·관형사, 명사·부사, 감탄사·명사, 대명사·부사, 대명사·감탄사, 동사·형용사, 관형사·감탄사, 부사·감탄사, 의존 명사·조사, 수사·관형사·명사, 대명사·관형사
품사 없음

② 《조선말대사전》에서 ‘성어’로 취급한 것은 ‘명사’로 처리한다.

예 부처오누이:《성어》= 부부오누이.

→ 부처오누이: ㉠ “뜻풀이.”

③ 북한에서 명사로만 처리된 표제어 ‘○○적(○○的)’은 《우리말샘》처럼 관형사·명사로 처리한다.

예 살륙적(殺戮的): ㉠ 사람을 함부로 마구 죽이려는(것).

→ 살륙적(殺戮的): ㉡ 사람을 함부로 마구 죽이려는. 또는 그런 것. ⇒규범 표기는 ‘살육적’이다.

5. 전문어 영역

① 《우리말샘》의 전체 전문 분야는 아래와 같다.

가톨릭, 건설, 경영, 경제, 고유명 일반, 공업, 공예, 공학 일반, 광업, 교육, 교통, 군사, 기계, 기독교, 농업, 동물, 매체, 무용, 문학, 물리, 미술, 민속, 법률, 보건 일반, 복식, 복지, 불교, 사회 일반, 산업 일반, 생명, 서비스업, 수산업, 수의, 수학, 식물, 식품, 심리, 약학, 언어, 역사, 연기, 영상, 예체능 일반, 음악, 의학, 인명, 인문 일반, 임업, 자연 일반,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치, 종교 일반, 지구, 지리, 지명, 책명, 천문, 천연자원, 철학, 체육, 한의, 해양 행정, 화학, 환경

② 엑셀파일에 있는 전문어 영역을 위 분야에 맞춰 집필한다.

③ 남한 대응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응어의 전문어 영역대로 집필한다.

구분한다.

예 머리맵시: 머리를 곱게 매만지는 일 또는 그런 모양새.

→ 머리를 곱게 매만지는 일. 또는 그런 모양새.

⑤ 《우리말샘》 미등재어가 뜻풀이 용어로 포함되어 있으면 쉽게 풀어서 집필한다.

예 멀탕하다: 사람이 멧하지 못하고 물렁하다.

→ 사람이 옹골차지 못하고 물렁하다.

예 난돌이: (말체) 생각하는것이나 하는짓이 남달리 뛰어나고 속대가 바른 사람.

→ 생각하는 것이나 하는 짓이 남달리 뛰어나고 쫄대가 바른 사람.

속대[-대][명] ① 푸성귀의 줄대로 둘러싸인 속에 있는 줄기나 잎. || 배추~. ② 일부 나무줄기의 속살을 이룬 단단하지 않은 부분. | 싸리나무의 껍질을 벗기면 노란 속대가 드러날것이다. (장편소설 《해돋이》) ③ 어떤 물체의 가운데를 켜 대. || 연필~. ④ 마음의 주대. | 허허허 녀석두. 겉은 아빌 닭았어두 속대는 탄판이란 말야. (장편소설 《꽃파는 처녀》)

◇ 속대(가) 서다 주대가 있다. | 무골충처럼 해불해불한데가 있었으나 결과는 달리 속대가 선 상호였다.

예 간색질: ① 두가지이상의 색깔을 섞어서 다른 색을 내는 것.

② 《자기의 본성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표정이나 열성을 내는짓》을 비겨 이르는 말.

→ ① 두 가지 이상의 색깔을 섞어서 다른 색을 내는 일.

② 자기의 본성을 숨기기 위하여 표정이나 행동을 과장하여 꾸미는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표제어에 대응하는 남한어가 있으면 “○○’의 북한어.” 형식으로 집필한다.

① 뜻풀이하기 전 주어진 엑셀파일에 남한 대응어가 있는지 확인한다.

예 갑작부자: ‘벼락부자’의 북한어.

예 곤포(昆布): ‘다시마’의 북한어.

예 살양말: ‘스타킹’의 북한어.

② 표제어가 남한 맞춤법과 다르지만 남한 규범으로 고친 형태가 남한 대응어와 같다면 따로 규범 표기는 붙이지 않는다.

예 강냉이튀기: ‘강냉이튀김’의 북한어. (○)

예 강냉이튀기: ‘강냉이튀김’의 북한어. ⇒규범 표기는 ‘강냉이튀김’이다. (×)

예 콤파일러: ‘컴파일러’의 북한어. (○)

예 콤파일러: ‘컴파일러’의 북한어. ⇒규범 표기는 ‘컴파일러’이다. (×)

예 아침꾼: ‘아침꾼’의 북한어. (○)

예 아침꾼: ‘아침꾼’의 북한어. ⇒규범 표기는 ‘아침꾼’이다. (×)

③ 남한 대응어가 다의어인 경우에는 의미 번호를 붙인다.

예 어린고기: ‘치어003’의 북한어.

(4) 표제어가 남한 맞춤법과 달라 남한의 규범 표기를 보여야 하는 경우에는 뜻풀이 뒤에 규범 표기를 붙인다.

예 방사성폐물: ‘방사선 폐기물’의 북한어. ⇒규범 표기는 ‘방사성 폐물’이다.

예 간막이널: 간막이로 쓰이는 널판자.

→ 칸막이로 쓰이는 널판자. ⇒규범 표기는 ‘칸막이널’이다.

예 나무레루: 나무로 만든 레일. ⇒규범 표기는 ‘나무 레일’이다.

예 량반인테리: “뜻풀이” ⇒규범 표기는 ‘양반 인텔리’이다.

예 무더기돈: 몽치돈을 낫잡아 이르는 말. ⇒규범 표기는 ‘무더깃돈’이다.

※ 《조선말대사전》에서 발음을 [무더기똥]으로 제시한 것을 반영하였다.

(5) 의성의태어는 《우리말샘》의 뜻풀이 방식을 참고하여 이해하기 쉽게 고쳐 뜻풀이한다.

① 의성의태어는 《우리말샘》의 뜻풀이 방식대로 뜻풀이한다.

예 며밀며밀: 소리를 죽여가며 조용조용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 며밀며밀: 몸이나 몸의 일부를 소리를 죽여 가며 조용조용 움직이는 모양.

② 뜻풀이에 포함된 북한 의성의태어는 어감이 유사한 표준어로 고친다.

예 쓸꺼덕쓸꺼덕: 큰 것들이 마디진 동작으로 쉽게 쓸쓸 들어가거나 빠져나가는 모양.

→ 큰 것들이 쉽게 쭈쭈 들어가거나 자꾸 빠져나가는 모양.

③ ‘○○거리다’, ‘○○대다’, ‘○○○○하다’는 동의어로 보아 뜻풀이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예 밀치닥거리다: 자꾸 밀치닥밀치닥하다.

밀치닥대다: 잇따라 자꾸 밀치닥밀치닥하다.

밀치닥밀치닥: 서로 밀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밀치닥밀치닥하다:

→ 예 밀치닥거리다: 잇따라 자꾸 서로 밀치다.

밀치닥대다: 잇따라 자꾸 서로 밀치다.

밀치닥밀치닥: 잇따라 자꾸 서로 밀치는 모양.

밀치닥밀치닥하다: 잇따라 자꾸 서로 밀치다.

(6) 뜻풀이가 되어 있지 않은 부표제어는 주표제어 뜻풀이를 참조하여 뜻풀이를 채운다.

예 맞소리질: 서로 마주 응하여 소리를 지르는 일.

→ 맞소리질하다: → 서로 마주 응하여 소리를 지른다.

(7) 자타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을 모두 반영하여 뜻풀이한다.

① 북한에서 자타동사로 처리한 표제어는 그에 걸맞은 뜻풀이를 붙인다.

예 며밀며밀하다: 둙(자, 타)

→ 며밀며밀하다: 몸이나 몸의 일부가 소리 없이 조용조용 움직이다. 또는 몸이나 몸의 일부를 소리를 죽여 가며 조용조용 움직이다.

② 북한에서 자타동사로 처리했다라도 명백한 자동사나 타동사라면 거기에 걸맞은 뜻풀이로 고친다.

예 발기죽거리다: 둙(자, 타) 자꾸 발기죽발기죽하다.

→ 발기죽거리다: 입을 조금 벌리고 소리 없이 자꾸 웃다.

예 모다쉬다: 둙(자, 타) (숨을) 모두어 쉬다.

→ 모다쉬다: 숨을 한데 몰아 쉬다.

예 모다잡다: 둙(자, 타) (여럿을 함께) 모두어 잡다.

→ 모다잡다: 여럿을 함께 모아서 잡다.

(8) 북한에서 동의어로 처리된 뜻풀이는 《조선말대사전》을 참조하여 단독으로 뜻풀이한다.

- ① 그 동의어의 의미가 남한과 다르지 않으면 《우리말샘》 뜻풀이를 반영하여 고친다.
 예 매몰지다: = 매몰차다.
 → 매몰지다: ① 인정이나 싹싹한 맛이 없고 아주 쌀쌀맞다.
 ② 목소리가 높고 날카로우며 옹골차다.
- ② 그 동의어의 의미가 남한과 다르면 《조선말대사전》의 주표제어 뜻풀이를 참고하여 고친다.
 예 물켜오다: = 물려오다.
 → 물켜오다: ① 많이 때를 지어 오다.
 ② 쫓겨서 오다.
- 예 부처오누이: = 부부오누이.
 → 부처오누이:《남편과 안해의 얼굴생김이 한부모에게서 난 오빠와 누이의 모습과 같이 비슷한것을》비겨 이르는 말.
 → 남편과 아내의 얼굴이 흡사 같은 부모에게서 난 오누이처럼 닮았다 하여 이르는 말.
- ③ 북한에서 동의어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주표제어가 이중 피동의 형태일 때는 “남한 대응어”의 북한어.” 형식으로 뜻풀이한다.
 예 박히우다: = 박히다.
 → 박히우다: ‘박히다’의 북한어.
- (9) 뜻풀이가 “○○를 달리 이르는 말.”로 처리된 경우 주표제어의 뜻풀이를 《조선말대사전》에서 가져와 집필한다.
 예 산날망이:《산등성이》를 달리 이르는 말.
 → 산날망이: 산의 등마루.
- (10) 뜻풀이가 “○○의 준말.”로 처리된 경우 주표제어의 뜻풀이를 《조선말대사전》에서 가져와 집필하고 본말을 부가 정보로 제시한다.
 예 부스럭담배:《부스러기담배》의 준말.
 → 부스럭담배: 그대로 말리거나 썰어서 말린 잎을 부스러뜨린 담배. ‘부스러기담배’의 준말이다.
- (11) “비겨 이르는 말.”은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고친다.
 예 방아촌수:《촌수의 높고낮음이 오르내리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방아촌수: 촌수의 높고 낮음이 오르내리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2) “홀하게 이르는 말.”은 “낮잡아 이르는 말.”로 고친다.
 예 멋부림쟁이:《멋만 차리며 다니는 사람》을 홀하게 이르는 말.
 → 멋부림쟁이: 멋만 차리며 다니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13) 북한에서 체언의 뜻풀이에 쓰는 “욕으로 이르는 말.”은 “비난조로 이르는 말.” 등으로 고친다.
 남한에서는 “욕으로 하는 말.”을 주로 감탄사 뜻풀이에서 쓴다.
 예 방귀신:《하루종일 방안에 붙박혀있는 사람》을 욕으로 이르는 말.
 → 방귀신: 하루 종일 방 안에 붙박여 있는 사람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
- (14) 뜻풀이 안의 “같은 것”은 “따위”로 고친다.
 예 민송이판: 나무나 풀 같은것이 없이 번번한 산이나 들판.
 → 민송이판: 나무나 풀 따위가 없이 밋밋하고 평평한 산이나 들판.
- (15) 뜻풀이 안에 “남은 사회에서, ~”, “전날에, ~” 등이 있는 경우, 이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맥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으로 고친다.

☞ 살림싸움: 낮은 사회에서 집안에서 부부사이에 살림살이로 하여 벌어지는 싸움.
 → 살림싸움: 집 안에서 부부 사이에 살림살이로 인해 벌어지는 싸움.

7. 용례

- ① 용례는 주어진 파일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제시한다.
- ② 용례 안의 명백한 오타자는 수정할 수 있다.
- ③ 용례 안의 “~”는 표제어로 채운다.

☞ 민족대국상: ~을 당하다.
 → 민족대국상: {민족대국상}을 당하다.

- ④ 다의어의 경우 뜻풀이 번호에 대응하여 용례에도 번호를 부여한다. 단 동의어로 처리된 경우 어느 뜻풀이의 용례인지 확인할 수 없으면 용례에 번호 ①을 부여한다.

☞ 버둥치다: ① 발을 버둥거리며 몸부림을 치다. ② 있는 힘을 다하여 모질음을 쓰다.
 ¶ ① 흑시 산모가 덜컥거리는 말달구지를 타고 먼길을 오는통에 죽은 아이를 낳은것이나 아닌지, 다음 순간 살아서 {버둥치}는 애기의 가느다란 목에 태가 감긴것을 발견했다.(장편소설 《력사에 묻다》 3) | ② 울부짖으며 {버둥치}는 젊은이의 몸에 몽둥이들이 사정없이 날아들었다.(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천지》)

☞ 매몰지다: ① 인정이나 싹싹한 맛이 없고 아주 쌀쌀맞다. ② 목소리가 높고 날카로우며 옹골차다. ¶ ① 주인아저씨의 {매몰진} 목소리가 들리더라지? 둘이 다 껌짝 놀랐을밖에.(장편소설 《계명산천은 밝아오느냐》 2)

* ‘매몰지다’는 ‘매몰차다’의 동의어로 처리되어 용례가 어느 뜻풀이의 것인지 알 수 없음.

☞ 몰켜오다: ① 많이 때를 지어 오다. ② 쫓겨서 오다. ¶ ① 야간순찰병들이 사격을 해대면서 남호가 있는 쪽으로 {몰켜오기} 시작했다.(장편소설 《력사에 묻다》 2)

* 동의어로 처리되었지만 용례를 보면 어느 뜻풀이에 대응하는지 알 수 있음.

<기획·연구>

국립국어원 김선철 과장

국립국어원 박주화 학예연구사

<사업 참여자>

연구책임자 이선웅(경희대학교)

공동연구원 도원영(고려대학교)

이시우(언어정보연구원)

이영제(고려대학교)

이시우(한용운)

연구보조원 강다현(경희대학교)

김지영(경희대학교)

김희성(경희대학교)

박상훈(언어정보연구원)

엄소영(경희대학교)

오재연(경희대학교)

임고은(경희대학교)

한수미(언어정보연구원)

함병호(충남대학교)

황지영(경희대학교)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23년 12월 15일

발행일: 2023년 12월 15일

인 쇄: 오픽스넥스 수원점

※ 이 보고서는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23년 북한어의 사전 정보 집필 및 지침 정비’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